2016 한국영국국제협력프로젝트 (Nobody(가제)) 대본 - (지영 수정본)

작가: 고순덕 (한국), Evan Placey(영국)

번역: 유혜련

공동대본완성일: 2015.12.16.

번역완성일: 2015.12.28.

⟨Nobody(working titl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 Hanyong Theatre Company

Combined English-Korean script. (16. Dec.2015) 15th May 2016

Written by Sunduck Ko, Evan Placey

Translated by Hyeryun Ryoo (28.Dec.2015)

Prologue:

프롤로그:

Jiyong and the Boy sit on large melting cubes of ice, the cubes moving precariously. as they melt, until eventually Jiyong lands in the elevator curled up.

지영과 소년, 녹아내리고 있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 위에 각자 앉아있고, 얼음 덩어리는 위태롭게 떠다닌다. 녹아 움직이면서, 지영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 응그리고 앉게 된다.

지영: 나는 빙하기에서 떠내려온 마지막 얼음 조각.

딱딱한 얼음으로 세상과 경계를 긋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시절.

Jiyong: I am the last piece of ice, floating down from the Ice Age.

Drawing a line in the world with a sheet of hard ice,

Those were the days when nothing happened if you sat still.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7 개월 전, 내 빙하기는 끝났다.

지구 온난화로 내 몸은 녹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시작된 이물질들의 반란. 여드름, 가슴, 엉덩이, 허벅지살... 코끼리 같아...

(옷을 최대한 끌어내려 몸을 가리려고 애쓴다.)

채 변하지 않은 어정쩡한 몸으로, 난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4p)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것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졌다.

한번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 될 거라고 상상 못했던 것들이

내 몸을 뚫고 솟아나가 시작했다.

However, seven months ago from today, my Ice Age was seeing its end.

My body has begun melting by the Global warming, and finally oozing with blood between my legs.

The line which divided their bodies from mine has given away.

Never once they were mine, never once have I

dreamed they would be mine,

But they found a way out of my body and gushed out.

And the revolt of aliens began: Pimples, breasts, buttocks, thick thighs… like a colossal elephant…(Tries hard to cover her body by pulling down her shirt)

With a body yet to become mature, I was exposed to the world.

Boy: The ice cracks

An avalanche.

And the boy reaches out, but there's no one there to take his hand.

The ice spins, drifts, and then large brown eyes come toward him, closer and closer.

A polar bear.

Surrounded by water, gripping his piece of floating ice, the boy realises: this is the end.

The boy sees the girl across the room and the room stops.

Or the boy bumps into the girl and as they fumble to pick up fallen books their eyes lock. And they just know.

소년이 방 건너편에 있는 소녀를 바라보고 방이 멈춘다. 또는 소년이 소녀에게 부딪치고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섬주섬 챙길 때 서로 시선이 교차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안다. But this isn't that kind of love story.

그러나 이것은 상투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다.

The girl had been there the whole time.

In fact the boy had looked at her hundreds of times.

And she him.

But they'd never really seen each other.

Like a Joni Mitchell tree that you don't notice until it's gone.

But I'm skipping a bit.

그 소녀는 내내 그곳에 있었다.

사실 소년은 소녀를 몇백 번은 봤다.

그리고 소녀도 그를.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정말 서로를 본 적은 없었다.

없어지고 나서야 존재를 느끼는 조나 미첼 노래에 나오는 선인장처럼.

그런데 내가 좀 건너뛰고 있네.

The Boy's cube lands him in bed curled up, mirroring Jiyong.

As Jiyoung speaks and moves her body in the following, the boy is waking from bed, stretching, etc, so that his body movements in some way mirror Jiyoung's as she's highlighting each part of her body.

소년 얼음 덩어리에 실려와 침대에 웅그리고 앉게 된다, 지영과 같은 자세. 지영어 말하면서 차례대로 몸을 움직일 때, 소년도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쭉 펴는 등의 동작을 하여. 그 몸동작이 지영이 몸의 각 부분을 강조하는 동작과 닮아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며 지영을 쳐다본다.

Elevator opens.

As people pack into the box, they stare at Jiyong.

충수 표시창에 얼굴, 가슴, 엉덩이, 화이트 글자가 차례대로 뜬다. 지영, 글자 차례대로, 그러나 허둥지둥 몸을 가리기 시작한다.

The words face, breast, hips, 'White' show up in turn on the elevator floor indicator.

Jiyong, in the order words appear, but hastily covers her body parts.

얼굴.

Face

지영: 사람들이 이마에 돋은 여드름을 본다. (전기 고데기로 앞머리를 내리며) 얼굴을 가린다. Jiyong: People stare at the pimples on the forehead. (Working on her bangs with an electric curler) to cover her forehead.

가슴.

Breast.

지영: 사람들이 어깨 아래 솟은 젖가슴을 본다. (후드 점퍼를 서둘러 걸치며) 가슴을 가린다.

Jiyong: People stare at the protruding breast along the collarbone. (Hurriedly throwing on a hooded jacket) to cover her breast.

엉덩이.

Hips.

지영: 사람들이 히리 아래 튀어나온 엉덩이를 본다. (후드 점퍼를 밑으로 잡아당기며) 엉덩이를 카린다.

Jiyong: People stare at the hips along the waistline. (Pulling down a hooded jacket) to cover her hips.

화이트.

'White.'

1

지영: 사람들이 생리대로 불룩해진 가방을 본다. (가방을 등에다 재빨리 매며) 가방을 가린다.

Jiyong: People stare at the backpack bulging with sanitary napkins. (Quickly wearing the backpack on her back) to cover her backpack.

사람들, 저마다 카톡, 핸드폰 문자 찍기에 정신 없다. 지영, 사람들을 의식하며 푸념한다.

People, each engrossed in *Kakao Talking², and text messaging. Jiyong, grumbles being conscious of people.

지영: 얼굴, 가슴, 엉덩이, 화이트…

눈동자 수십 개가 내 몸의 우스꽝스러운 곡선을 따라 덕지덕지 붙는다.

골반 뼈 안쪽 뻐근한 통증.

자궁이 깨어나는 신호.

머지 않아 자궁은 또 펌프질을 할 것이다.

한 때 내 몸이었던 피를 쏟아내기 위해...

그 날이 언제일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초경을 한 지 벌써 7 개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또 얼룩이 생길까 두렵다.

얼굴, 가슴, 엉덩이, 화이트.

세상에 나갈 준비 완료.

_

¹ *White - Feminine sanitary napkin. A popular brand in Korea.

² Kakao talk is a free mobile Instant messaging application for smartphones with free text and free call features. [https://en.wikipedia.org/wiki/KakaoTalk.] 5

Jiyong: Face, breast, hips, 'White'...

Scores of eyes are encrusting along my disgraceful body line.

Burning sensation inside the pelvis.

Signals the waking up of my uterus.

Before long my uterus will start pumping again.

To drain out blood once part of my body---

Never know when that day will be.

It's already been seven months since I began menstruating...

I am afraid of another unexpected blood stain.

Face, breast, hips, 'White.'

Fully prepared to go out into the world.

띵.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사람들, 부라부라 자기 길을 간다. 지영, 마지막으로 쭈뼛쭈뼛 나간다.

Beep. Signals the arrival of an elevator.

She passes Boy who is on his way in. But of course, he's not actually coming into the elevator, he's going into his kitchen.

지영 들어서는 소년을 지나친다. 그러나 물론, 그가 실제로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다.

Scene 1. Morning & School.

장면 1. 아침과 학교.

Boy: Mum has left a note by his cereal bowl.

Milk.

Potatoes.

Cabbage.

Carrot.

Cigarettes.

Which the boy's not old enough to buy. But Raj at the shop knows him. Knows his mum. So sells them to him.

The boy once pointed out to him that what Raj was doing was illegal. Selling him cigarettes. You know that this transaction we've just had is illegal.

And he laughed. Call the police then.

How do you know I'm not going to go smoke these myself?

And he just shrugged, smiled and shook his head. The kind of face fathers on TV do when their kids say something funny.

But he's not my father. So he should stop acting like he is.

Raj 'gets' the boy. He told him that one time. *I get you* and he gave him a free packet of crisps.

Dunno what that means. Because they're both immigrants? Because him and the boy's mum both have shitty jobs? He doesn't 'get' shit about the boy.

The boy didn't tell him that.

He just took the crisps and the shopping and left.

엄마가 시리얼 그릇 옆에 쪽지를 남겼다.

우유.

감자.

양배추.

당근.

담배.

그건 소년이 미성년이라 살 수 없는 것. 그렇지만 가게 점원 라지는 그를 안다. 그의 엄마를 안다. 그래서 그에게 담배를 판다.

소년이 한 번은 라지한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에게 담배를 파는 거. 방금 우리가 한 거래가 불법인 건 형도 알지.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럼 경찰 불러.

내가 피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라지는 소년을 '이해한다.' 소년에게 언젠가 그렇게 말했다. *난 너를 이해해* 하고는 공짜로 크리스프 과자 한 봉지를 주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둘이 다 이민자이기 때문인가? 둘이 다 엄마가 허접한 일을 해서일까? 그는 소년에 대해 눈곱만치도 이해할 리가 없다.

소년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냥 크리스프 과자를 받고 물건을 사고 나왔다.

Cocopops.

Which the boy's mum doesn't get.

(Mum) We do not have such things in my country.

Well then go back to your country.

She also doesn't get that it's the boy's country too.

In her eyes *this* is the boy's country. This place where she cleans up after people who can't be bothered to do their own hoovering, where she wipes the arses of old people – the same old people who proclaim that everyone should just go back to their own country.

Mum buys him the cocopops as he's convinced her it's what people do here.

She buys it for him so people will think he's more British.

Even though it's just him in yesterday's pants watching the news while he eats them and no one can actually see him eating them – see him being British.

코코팝 시리얼.

그건 소년의 엄마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나라에는 그런 건 없어.

그래 그럼 엄마 나라로 돌아가.

엄마는 그곳이 소년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 눈에는 *바로 이곳이* 소년의 나라이다. 이곳, 스스로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 귀찮은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노인들의 엉덩이를 닦아주고 - 두말할 것없이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노인네들.

소년이 여기서는 다 그런다고 설득하자 엄마는 코코팝 시리얼을 사준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를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소년에게 코코팝 시리얼을 사준다. 어제 입었던 바지를 입고 뉴스를 보면서 그걸 먹는 똑같은 아이, 아무도 실제로 소년이 그걸 먹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영국 사람으로 보지도 않지만.

The news is showing airstrikes
Is showing ISIS flags
Is showing bleeding bodies

뉴스는 공습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ISIS 의 깃발을 보여주고 있다 피를 흘리고 있는 몸뚱어리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뉴스가 지영 집에서도 똑같이 방송된다. 지영 아빠가 집에 있을 때면 항상 BBC 뉴스를 틀어놓기 때문이다.

The news turns on at the Boy's house. The same news is on at Jiyong's house simultaneously. Because Jiyong's dad always sets the channel to BBC World News.

She is struggling to make it the right style. Again Each standing in front of one's own mirror, Will is putting on his tight fit uniform shirt and shorts as they are meant to, and Jiyong is putting on her loose fit uniform to cover her awkward body. There is a mirror image of Jiyong getting ready and Boy getting ready.

이번에도 각자 거울 앞에 서서 윌은 꽉 조이는 교복셔츠와 짧은 바지를 FM 으로, 지영은 몸을 가리려고 헐렁한 교복을 차려입는다. 지영이 채비를 하는 것과 소년이 채비를 하는 모습이 닮은 꼴이다.

Dad is busy getting his briefcase ready for work, and grandma is mopping around between dad and Jiyong. Jiyong, is getting pads in the backpack and straightening her bangs with a hair curler.

아빠는 분주하게 직장 서류가방을 챙기고, 할머니는 아빠와 지영 사이에서 걸레질을 하며 왔다 갔다 한다. 지영, 생리대 파우치를 가방에 넣고는 전기 고데기로 앞머리를 편다.

Boy: And the boy puts on his school shirt with its too tight collar

소년: 그리고 소년 깃이 너무 꽉 조이는 교복 셔츠를 입는다.

And its too big tie

And its too short trousers

And its too scuffed shoes.

그리고 타이는 너무 폭이 넓고 그리고 바지는 너무 짧고 그리고 신발은 너무 닳고

지영: 우르르 쿵 쿵

윗집에서 떨어지는 또 한차례 수중폭탄.

(아빠) 저 새끼들 진짜...

아빠 고함 소리가 자갈처럼 뒹굴고

(할머니) 밥 다 식엄저!

할머니 고함 소리가 갈매기처럼 파드득대고

(내 앞머리는) 너무 옆으로 삐쳤어. 다시.

아파트 정기 소독 안내 방송.

할머니는 15 층까지 올라온 개미떼를 걸레로 꾹꾹 눌러 죽이고 아빠는 16 층에서 내려오는 소음을 꾹꾹 밟아 죽이고 싶어 안달 나고 너무 일자로 펴졌어. 다시.

나는 두 번째 생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 혼자 불안하고... 맨날 똑같이 일자로 펴지는 하루. 다시!

Jiyong: Rumbling thud and thud

Water bombing again from the upper floor.

(Dad) Those assholes...

Dad's yelling is tumbling over like pebbles

(Grandma) Breakfast is getting cold!

Grandma's yelling is flapping up like a seagull

(My bang is) off to the side too much. Try again.

Boy: The news is showing airstrikes Is showing ISIS flags Is showing bleeding bodies **Jiyong:** Announcement of monthly disease control from an apartment management. Grandma is killing a swarm of ants for sure invading up the 15th floor with a mop Dad is anxious to kill the noise for sure coming down from the 16th floor This is too flat. Do it again.

I'm nervous because I don't know when my second menstruation is going to start…

Every day is as flat as my hair. Try again!

할머니 : 밥 다 식엄져!

Grandma: Breakfast is getting cold!

아빠 : 부지영!

Dad: Jiyong Bu!

지영 : 다시.

Jiyong: Do it again.

할머나: 밥 다 식엄저!

Grandma: Breakfast is cold!

아빠 : 부지영!

Dad: Jiyong Bu!

지영: 다시. 다시. 다시.

Jiyong: Redo. Redo. Redo.

할머니: 돈 주라. 생선 사온 거영 참기름 빠 온 거영.

아빠 : 또? 있는 거 먹지 뭘 자꾸 사요?

지영: 잘 나가는 게임포털회사 꼰대 지갑을 열려면 저런 핀잔은 기본.

할머니: 메! 나 먹는 거가? 느네 먹이젠 사는 거주. 봐 보라. 먹을 거 뭐 신가.

지영: 맞는 말씀. 시대에 뒤떨어진 나물 반찬부터 최우선 개혁.

아빠 : 나중에. 갔다 와서. (나가며) 오늘 늦어요.

할머니: 어떵 맨날 늦엄시? 밥은? 먹엉 올꺼?

아빠 : 알아서 할게요.

아빠, 나간다.

Grandma: Give me some money. I need to buy some fish and to press fresh sesame seed oil.

Dad: Again? Why don't we ever finish the food we have first before we buy more?

Jiyoung: This nagging is expected when you want to have a hotshot game portal company guy open his wallet.

Grandma: What? It's not for me. I'm buying all of this for you guys.

Jiyoung: True. We need to reform that old-fashioned side dishes of cooked greens first.

Dad: Later. After I get back. (As he's leaving) I'll be late tonight.

Grandma: Why are you always late? What about dinner? Are you eating out?

Dad: Don't worry about me.

Dad leaves.

할머니: 밖에서라도 밥은 꼭 챙겨 먹으라이.

Grandma: Just because you're out and about, you shouldn't forget to eat.

할머니, 아직도 거울 앞에 있는 지영을 본다.

Grandma looks at Jiyoung who's still lingering in front of the mirror.

할머니: 밥 다 식엄저!

Grandma: The food is getting cold!

지영: 아, 쩔어.

(할머니는) 밥 말고는 할 말이 없지.

밥보다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밥보다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밥 밥.

10 년 넘게 아파트에 살면서 다 잊어버린 거야.

갓 잡은 해산물들을 들어올리던 상군 해녀의 싱싱한 모습...

혼자 집에 남으면,

할머니는 또 남은 밥을 먹어치우고

소화가 안돼 꺽꺽대며 고향 친구한테 전화하겠지.

(흉내내며) 밥 먹언...

할머니: 밥 다 식엄댄 호난!

Jiyoung: Oh Geeze,

(Grandma) don't you have anything else to say besides telling me to eat.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are more important than food,

There are so many foods that taste better than rice, always rice, rice,

She forgot them all after living in this apartment for more than 10 years.

That active and fresh woman diver who lifted freshly caught seafood...

When she's left alone,

Grandma would finish off the leftovers as always

Call her friend from her hometown as she tries to digest her food.

(Mimicking) Have you eaten…

Grandma: The food is getting cold!

아빠, 할머니, 지영이가 한참 손질중인 고데기를 우악스럽게 붙잡는다. 지영, 놀란다. 그제서야 아빠를 할머니를 본다.

그러나 순간, 고데기를 안 뺏기려고 힘으로 맞선다. 아빠와 지영, 고데기를 서로 붙든 채 힘 거루기를 한다.

Dad, Grandma grabs the hair curler ferociously, which Jiyong is busy using for her hair. Jiyong, was flabbergasted. Only then she sees her Grandma. Dad.

But just then, she squared up to him for the hair curler.

Dad and Jiyong, brace themselves against each other for the hair curler.

지영: 암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절대 이해못하는 남자. 잘 나가는 게임포털 회사에서 맨날 야근을 하며 성공을 꿈꾸는 남자. 남한테 꿀리는 건 더더욱 못 참아 빚을 지고서라도 고급만 찾는 남자. 제주를 떠난 뒤론, 제주말도 제주 사람 흔적도 깡그리 다 던져버린 남자. 이제는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에 영어 뉴스만 고집하는 남자. 이 남자가 바로 내 아빠.

Jiyong: Working hard doesn't always do the trick, that this man never gets.

This man works late into the night all the time at his big name game portal company, and dreams of success.

He always insists on high end things, even if it means being in debt, because he can't stand falling behind others.

After leaving Jeju, this man got rid of his Jeju dialect, his unique Jeju Islander quality, and anything that had to do with Jeju. Now called himself James, this man exclusively watching BBC World News.

This man is my one and only dad.

지영, 고데기를 되찾는데 성공한다. 아빠, 당혹감을 감추느라 씩씩댄다.

Jiyong, succeeds in recovering her hair curler. Dad, breathes heavily to hide his embarrassment.

아빠 : 빨리 밥이나 먹어. 뭐 별 차이도 없구만.

Dad: Eat and go to school.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you know.

지영, 입술을 깨문다.

Jiyong, bites her lips.

아빠 : 할머니, 오늘은 소독 놓치지 말아요. 괜히 약장수한테 가지 말고...

Dad: Grandma, please don't miss the monthly disease control today. Don't go talk to the sales person for supplements.

할머니: 밥은?

Grandma: What about breakfast?

아빠, 나간다.

Dad, exits.

지영: 얼굴, 가슴, 엉덩이. 화이트.

세상에 나갈 준비 완료.

Jiyong: Face, breast, hips, 'White.'

Be perfectly prepared to get on in the world.

할머니: 밥은?

Grandma: What about breakfast?

지영, 나간다.

Jiyong, exits.

지영: 아파트에 엄청난 해일이 덮쳤으면 좋겠어.

아빠가 해일에 떠내려가고

윗층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Jiyong: Wish a mega tsunami hits:

Dad drifting away by the tsunami

People on the upper floors falling downstairs

띵!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

지영, 잽싸게 달려간다.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밀려든다.

Beep! Signals the arrival of an elevator.

Jiyong, dashes to the elevator. Steps in it.

A swarm of people steps in the elevator.

지영: 사람들이 숨어 있던 개미들...처럼 밀러나온다.

층마다 쌓이는 새로운 욕망들이 쌓인다.

삑삑삑 욕망 초과.

욕망을 일부 덜어내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간다.

세상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

구석 자리마저 살 떨리는 구조조정.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애완견들은 집에 남겨두고

엘리베이터는 무서운 속도로 내려간다.

세상에 나갈 준비... (띵)

Jiyong; People are pouring out like ants in hiding.

New desires are piled up floor after floor.

Beep Beep – desire exceeds the limit.

The company's restructuring process threatening even the entry levels.

Leaving the kids, elderly, and pet dogs at home

The elevator goes down at the threatening speed.

Ready to go out into the world… (Beep)

Elevator moves down again after taking some desire out.

To let people out into the world.

엘리베이터가 열린다. 사람들, 부랴부랴.자기 길을 간다. 지영, 마지막으로 쭈뼛쭈뼛 나간다.

Elevator opens. People, hurry to go one's own way. Jiyong, steps out last uncertainly.

Boy pops up amongst the people squished in the elevator. A sign appears above the elevator numbers: NEXT STOP...

The squished people in the elevator are also the squished people on the bus. It is both the elevator and bus at once. The boy in the bus and Jiyong in the elevator.

소년 엘리베이터 안 짓이겨진 사람들 틈에서 홀연히 나타난다. 엘리베이터 충수 번호 위에 공지가 뜬다. 다음 내리실 충은…

엘리베이터 안의 짓이겨진 사람들은 동시에 버스 안의 짓이겨진 사람들이다. 엘리베이터이자 버스이다.

버스 안의 소년이자 엘리베이터 안의 지영.

The boy in the bus and Jiyong in the elevator.

Boy: And he stands on the bus wading knee deep in the sea of similar uniforms Except they're anything but uniform

(Because we can see everyone on the bus has 'individualised' their uniform)

Rolled up sleeves

Rolled up skirt

A loose tie

A short tie

A chunky tie.

Untucked shirt

Knot tied shirt

Collar up

Buttons down revealing a necklace, or cleavage, or both.

But the boy wears his just as it's meant to.

그리고 그는 버스 안에 무릎까지 차오른 비슷비슷한 교복의 바다에 서있다 그건 다 같은 교복일 뿐이지만 제각각

걷어붙인 소매

허리를 접어올린 치마

헐렁하게 맨 타이

짤막한 타이

바지 안에 넣지않은 셔츠

매듭을 지은 셔츠

깃을 위로 세우고

단추를 최대로 풀어 목걸이나, 가슴골이나, 또는 둘 다를 드러내고.

그러나 소년은 그의 교복을 FM 으로 입고 있다.

Music explodes from headphones

Words sprayed from lips

Bombs of books thudding to the floor

Too much perfume smoking the air

Moving wreckage as the bus trucks along.

Amongst it all the boy tries to hide. A face in the background of the photo.

Staring at nothing.

What you staring at Paedo?

Because his eyes have accidentally landed on Arthur.

Such a weirdo.

And the boy closes his fists. Tries to be invisible. Like he is most of the time. But it doesn't work. And now Arthur's friends are looking over too, sniggering.

So the boy turns his gaze to the side.

Chelsea, I think Billy boy's he's starting at your cleavage.

And she adjusts her shirt, turns away from the boy, and the bus comes to a halt.

음악이 헤드폰에서 폭발한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들

마루로 쿵쿵 떨어지는 책 폭탄

공기를 뿌옇게 만드는 과다한 향수

버스가 무겁게 실어나르는 잔해.

이 와중에 소년은 숨어보려고 한다. 사진의 배경으로 자리한 얼굴.

아무것도 보고있지 않다.

뭘 봐 변태 자식?

그의 시선이 무심결에 아더에게 향했기 때문에.

이상한 놈.

그리고 주먹을 움켜쥔다. 남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보통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다 틀렸다. 그리고 이제 아더의 친구들까지 합세하여 킬킬거리며 쳐다보고 있다.

소년은 이번에는 시선을 옆으로 돌린다.

첼시, 빌리 녀석이 네 가슴골을 쳐다보는 것 같네.

그리고 소녀는 자기 셔츠를 가다듬고, 소년에게서 등을 돌리고, 버스가 정거한다.

Groups colliding, a mixing pot of every label and stereotype of school.

Strike that.

Archetype - not stereotype, because the shorthand works for a reason.

각 집단 간의 충돌,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스테레오타입의 집합체. 깨부셔.

아키타입 - 스테레오타입 말고, 줄여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A classroom in the UK and a classroom in Korea – it is both at once though again, **Boy** and **Jiyong** are only in their own while the ensemble are in both.)

영국의 교실과 한국의 교실 - 동시에 둘 다이지만 이번에도, 소년과 지영은 두 사람간에 앙상블을 유지하면서 각자 공간에서 움직인다.

The nerd making miniature notes in font size 6 with a pencil, always a pencil.

The geek swiping images on his ipad.

The hipster in spray—on jeans, leaving little to the imagination, with one headphone in his ear leads down through his V—neck, connected to the ipod tucked into the palm of his fingerless gloves.

The hipster-geek hybrid, the headphones connected instead to the ipad.

The goth, with heavy eye shadow who dare not smile and her copy of Sartre tucked secretly into her maths textbook.

The jock doodling a tattoo of the pi symbol on his tanned bicep, glancing up and smiling cheekily at the Popular girl.

The popular girl who focuses hard on the teacher, willfully ignoring the looks from everyone around her.

The clown, making a 'witty' joke about pi and pies.

The weird kid who hasn't showered in years and offers that the whiteboard marker miss is using to draw the pi symbol is responsible for Global Warming.

The nerd, the geek, the hipster, the hipster-greek hybrid, the goth, the jock, the popular girl, the clown, the weird kid… And then the boy. With no label. Who fits nowhere.

And something feels different today. Unbalanced.

He can't see anything sticking out. Can't see something different than other days. Because it's more the *absence* of something.

It's more just…a gap, space.

연필로, 언제나 연필로 글자 크기 6 의 미니 노트를 만들고 있는 공붓벌레.

아이패드로 이미지를 검색하고 있는 컴퓨터 괴짜.

한 쪽 귀에 꽂은 헤드폰을 브이넥 셔츠를 통과하여 손가락 없는 장갑 손바닥안에 쥐고있는 아이팟으로 연결하고, 상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라고는 없는, 물감을 뿌려 꾸민 청바지를 입은 나름 앞서가는 놈.

컴퓨터 괴짜와 나름 앞서가는 놈의 혼종, 헤드폰은 아이팟아닌 아이패드에 연결됐다.

미소가 웬말이야 진한 눈화장을 하고 자기 수학 교과서에 은밀하게 사르트르의 책을 끼워놓은 중세 고딕풍 여자애.

햇볕에 그을린 이두박근 위에 파이 기호를 *끄*적거리며, 인기짱 여자애를 힐끔힐끔 쳐다보다 느끼한 미소를 날리는 몸짱 녀석.

인기짱 여자애...자기 주변 모든 녀석들의 시선을 단호히 외면하고, 선생님을 뚫어져라 응시한다. 웃기는 놈, 파이 기호와 음식 파이로 '재치있는' 농을 하고 있다.

언제 목욕을 했나 싶은 괴상한 놈은 여선생님이 파이 기호를 그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 보드 마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And then the boy. Doing his best just to be well just to be.

그리고 소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뭐 그냥 살아 있기.

There's a sudden switch of light and/or sound and we're in Jiyong's classroom.

조명과/혹은 음향의 급반전으로 우리는 지영의 교실에 있다.

태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로 나온다.

Taehee, enters the stage in the spotlight.

태희: 짜잔, 나 폰 바꿨다!

Taehee: Voila, I got a new phone!

아이들, 환호한다. 지영,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펴 든다.

Classmates, cheer. Jiyong, opens the book in the corner seat.

태희: 자, 폰카 준비! 얼짱 각도 알지? 45 도로 도도하게! 하나, 둘, 셋! (찰칵)

One, two, three! (Snap)

Taehee: Hey, get your cell phone ready! You know how to get the best selfie? 45 degrees, with a provocative look!

(모두. 얼짱 각도로 정지 자세.)

(All, posed for the best selfie.)

지영: 우리 반에서 페이스북 얼굴 사진이 없는 건 나 하나뿐.

그래도 난, 죽을 때까지 내 모습 안 남겨.

아무 것도 안 남겨.

나같은 사람은 아예 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날 두고 이러쿵저러쿵. 딱 질색이야.

Jiyong: I am the only one in my class who doesn't have a facebook picture.

Still I, won't leave behind my picture.

I won't leave behind anything.

I hate it when they talk behind my back. I just hate it.

As if someone like me didn't exist in this world...

여학생들 : 와, 이게 나야? / 넌 역시 우리의 여신이야~

Girls: Wow, is this me? / You are definitely our goddess~

지영: 여신 태희?

사실,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태희를 만날 때만 해도, 태희는 그다지 눈에 띄는 애가 아니었다. 나보다 키도 작고, 훨씬 애 같았어.

Jiyong: Goddess Taehee?

As a matter of fact, about the time we became friends, Taehee was not so special. Smaller than me, when compared, she was like a baby.

태희 : 너 옷 예쁘다. 나도 그 메이커 좋아하는데. 같이 급식실 갈래? 난 한태희.

Taehee: Pretty t-shirts. That is also my favorite brand. Let's go to the cafeteria, shall we? Call me Taehee Han.

지영 : 어? 어… 난…

Jiyong: Well? well... I am...

태희: 알아. 부지영. 너 봤어. 아파트에서. 207 동이지? 집 커서 좋겠다. 난 201 동.

Taehee: I know you. Jiyong Bu. I saw you. In the apartment. Unit 207 right? You live in such a large unit. Lucky. Mine is Unit 201.

지영: 그 당시 태희가 여신 될 확률은 0. 00000000000001% 하지만 1 학년 겨울부터 태희 몸은 탈바꿈을 거듭했고, 3 학년이 되자

However since the winter break of freshman year Taehee's body has kept metamorphosed, by senior year

태희: 야, 지땡, 옷이 그게 뭐냐? 애도 아니고. 라인이 드러나야지.

Taehee: Hey, Ji-dang³, Is it a cloth? Are you a baby? Where is your waistline?

지영: 태희는 이미 여자가 되어 있었다.

태희가 완숙한 여자가 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주변 남자들.

힐끔 곁눈질로 혹은 뚫어지게 태희를 음미하는 그 시선들이란...

Jiyong: Taehee has already become a woman.

Once Taehee became a full blown woman,

boys were the first to notice.

They would either steal glances or bluntly stare and admire Taehee…

Again a switch and we're back in Boy's class.

다시 반전, 우리는 소년의 교실로 돌아온다.

Boy: And it's here that their story really started. Not because he saw her. Because it isn't that kind of story.

But because he didn't see her. And he felt it, the not seeing her. He felt the absence of her.

The space where she had been.

Unbalanced.

See sawing with someone to suddenly find they've jumped off while you weren't looking. Unease.

It was there through lunch while he sat he sat at a table surrounded by people, but alone – a divider between two groups of friends.

It was there on the bus home.

³ used as a more polite form of damn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ang] Translator chose to use this to express Taehee's indiscretion toward Jiyong.

It was there when Raj winked at him while he did the shopping.

It was there in the swirling electrodes of the microwave

The curling post-it note saying 'dinner' stuck to the Tupperware lid

And when he played his video game — punching, slitting, ramming — even this didn't totally relieve him. But relieve him from what? He couldn't place. Trying to scratch an itch, but he didn't know where the itch was.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진정 시작되었다. 소년이 소녀를 보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년이 소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그것을 느꼈다. 소녀를 보지 못했음을, 소년은 소녀의 부재를 느꼈다.

소녀가 존재했던 그 공간.

균형이 깨졌음이다.

누군가와 시소를 타고 놀다가 네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문득 발견하고.

불편함이다.

그곳에서 였다 점심 시간 자리를 잡을 때 아이들에 둘러 쌓여 식탁에 앉았는데, 그런데 혼자야 -두 부류의 친구들을 나누는 칸막이.

그곳에서 였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

그곳에서 였다 물건을 사는 소년을 보고 라지가 윙크를 할 때.

그곳에서 였다. 전자 렌지의 소용돌이치는 전극 안.

타파웨어 뚜껑에 딱 붙은 '저녁 밥'이라고 적힌 끝이 말려 올라간 포스트잇.

그리고 소년이 비디오 게임을 할 때 - 주먹으로 치고, 째고, 처박고 - 이렇게 해도 완전하면안해 지지 않았다. 그런데 뭐가 불편한대? 어딘지 찾아낼 수 없었다. 간지러운 데를 긁어보려고 했지만, 어디가 간지러운지 몰랐다.

Bell rings. And we're back in Jiyong's classroom.

수업 종이 울린다. 그리고 우리는 지영의 교실로 돌아온다.

지영: 수업 시간.

책상을 타고 스물스물 태희에게로 넘어오는 느끼한 눈길.

Jiyong: In class.

Slithery gazes crossing over the desks to Taehee creepily.

선생: (분필을 다트처럼 날리며) 야, 야, 거기! 태희 얼굴이 칠판이냐?

Teacher: (Throwing a piece of chalk as if a dart) Hey you. Over there! Is Taehee's face the blackboard?

지영: 쉬는 시간.

태희를 둘러싼 추종자들의 결투.

태희 페이스북엔 연애중인 남자가 실시간으로 바뀌지.

Jiyong: Break time.

Fighting for Taehee amongst her admirers.

You can see that Taehee's boyfriend status changes by the hour.

남학생: 태희, 내가 먼저 찜했거든. 내 꺼거든.

Male student: I got first dibs on Taehee. She's mine.

지영:체육시간.

생리통 핑계가 전혀 먹혀 들지 않는 고집불통 체육 선생.

Jiyong: P.E. class.

That stubborn gym teacher doesn't fall for any menstrual cramp excuse.

체육선생: 시끄러! 니년들이 생리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운동장 3 바퀴, 실시!

P.E. teacher: Shut up! You young bitches don't even bleed that much for menstruations...
Three rounds on the track, Run!

태희: 선생님… 오늘 그 날인데…

Taehee: Mr. Kim… But today is the day…

체육선생: (태희 등을 쓰다듬으며) 오, 그래? 어서 가서 쉬어.

P.E. teacher: (Patting Taehee's back) Oh, no, please go ahead and rest, okay?

지영: 으… 저런 남자들 때문에 내가 여자 되기 싫은 거야.

Jiyong: Dang... Those lowly men are the reason why I don't want to be a woman.

지영, 순간 태희와 눈이 마주친다.

Jiyong, in a split second locks eyes with Taehee.

지영: (얼른 고개를 돌린다. 책에 얼굴을 묻으며) 그나마 태희 혼자 무대 조명을 받는 건 봐줄만 해.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태희가 날 무대로 끌어들이는 순간... (긴장한다)

Jiyong: (Quickly turns away, burying her face in her book) I don't mind if only Taehee is in the spotlight.

Because I am not visible.

But, the moment Taehee drags me in on the stage… (gets nervous)

태희: (다가오며) 야, 지땡~

Taehee: (Approaching) Yo, Ji-dang~

지영: 사방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 언제부턴가 내 이름이 욕처럼 느껴져. 그래도 웃자.

태희가 주인공이니까.

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는 엑스트라니까.

주인공과 충돌하면 사건이 복잡해지니까.

Jiyong: Leering glances from all four directions.

At some point, my names started to seem like an insult.

but I just have to keep laughing.

Because Taehee is the heroine.

and I am just an extra, available for anyone's disposal.

The plot will get even more complicated if I clash with the heroine.

태희, 지영이가 보고 있던 책을 불쑥 집어든다.

Taehee, snatches the book, Jiyong is reading out of her hands.

태희: 쉬는 시간엔 쉬어야지. (책을 툭 던지며) 그거 있냐?

Taehee: You should chill during break time. (Tossing the book) Do you have it?

지영: (허둥지둥 책을 받으며) 뭐?

Jiyong: (Rushed to catch the book) What?

태희: 생리대.

TaeHee: Sanitary napkin.

생리대 소리가 교실 가득 메아리처럼 소용돌이친다. 지영, 바짝 긴장한다.

The word "Sanitary napkin" is echoing and swirling around the classroom. Jiyong, becomes quite nervous.

지영: 미끼. 미끼야. 미끼에 걸린 물고기.

남들은 초등학교 때 끝낸 초경을 이제야 한 걸 눈치 챈 거야.

두 변째 생리를 언제 할지 몰라 생리대를 늘 갖고 다니는 걸 알아버린 거야. 눈치챘나?

낚시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온 몸이 아프다.

숨을 쉴 수가 없어.

태희가 낚시대를 바짝 잡아당긴다.

Jiyong: The bait. It's the bait. I am the fish biting that bait.

I had my menarche only recently while others in grade school. She must notice it.

I've been carrying the sanitary napkins forever for the second occurrence. Did she notice that?

The fishhook cuts into my skin and I ache all over.

I cannot breathe.

Taehee reels in the rod tight.

태희: 뭐야? 있어, 없어?

Taehee: So? Do you have one or not?

지영: 사방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

니들한테 어린애 취급받는 건 죽어도 싫거든.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면서.

Jiyong: Leering glances from all four directions.

I would rather die than being treated like a kid by you guys.

Calm down as best as you can and smile.

(태희한테 생리대를 건네주며) 맨날 있는 건 아냐.나도 그 날이라...

(Handing over a sanitary napkin to Taehee) You know that I don't have it all the time.

It's that time of the month for me too…

태희 : 뭐가? 레알?

Taehee: What do you mean? Really?

지영 : (생리대를 가리키며) 그기. 오늘이나 내일쯤? 알잖아. 28-29 일 주기.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면서 당근.

Jiyong: (Pointing at the sanitary napkin) That. Today or tomorrow? You know. A 28~29 day cycle. Calm down as best as you can and smile.

Of course.

태희, 지영을 빤히 쳐다보다가 자지러지게 웃는다.

Taehee, gazes at Jiyong a while and bursts into a laugh.

태희: 28-29 일 주기? 무슨 성교육 대사 치냐? 얘들아, 지땡이… (하도 웃느라 눈물을 닦으며) 지땡이 글쎄…야, 이거 할머니가 샀냐? 완전 구려.

Taehee: A 28~29 day cycle? Are you reading a script from sex ed.? Everybody. Ji-dang… (Laugh till she's crying) Ji-dang said… Did your grandma get this for you? It sucks.

지영 : 낚시 바늘 수십 개가 내 몸에 꽂힌다. 어어. 나는 입술을 꼭꼭 깨물며 태희와 함께 웃는다. 개미로 변한 허리 잘룩한 태희를 할머니가 걸레로 꾹꾹 눌러 죽이는 상상을 하며 얼굴근육이 마비될 때까지 웃는다. 깊은 바다 속에 혼자 가라앉지 않으려고.

Jiyong: Dozens of fishhooks cut into my flesh.

Not to sink into the deep sea alone.

Yeah.

I bite my lips and laugh along with Taehee.

Taehee wasp-waisted, metamorphosed into an ant

I imagine grandma killing her by squashing with a mop

I laugh until my face gets numb.

Not to sink into the deep ocean by myself.

지땡, 지땡, 지땡, 지땡....

오늘밤 우리 반 카카오톡에 내 얘기가 뜰까 무섭다.

Ji dang, Ji dang, Ji dang....

I'm scared that they might post something about me on Kakaotalk class chat room tonight.

대희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Taehee's laughter echoes throughout the room.

Scene 2. Dad / Mum.

장면 2. 아빠 / 엄마.

Boy: At lunch the boy feels that same sense of unbalance, like when he was a kid and would try to ride the see-saw by himself. And on the bus ride home, despite it being crowded, he feels it again – the space, the gap. Like trying to scratch an itch, but he didn't know where the itch was. So he distracts himself by playing his video game.

Punching, slitting, ramming.

And when that doesn't work, he tries to distract himself by eating. Pulls off the sticky note saying 'dinner' off the tupperwear and puts his food in the microwave.

Watches his dinner spin and spin with nowhere to go.

The same as everyday. Except, still, the feeling it's different. Something's…missing.

The news is showing a polar bear stranded on a broken ice cap. And a grey-haired lady is showing a diagram of what this will look like in 10 years, 20, 50. And the boy thinks: why do you care? You won't be here. It will be the rest of us swimming, drowning in the waterworld. There's a number at the bottom to call and donate. The polar bear's eyes reach out from the screen and give him an eyelash kiss.

The boy picks up the phone. Dials the number. But the polar bear doesn't answer. It's a man from Scotland. So he hangs up.

소년: 뉴스는 갈라진 빙하 사이로 표류하는 북극 곰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머리가 허연 여자가 보여주는 도표는 10 년 후, 20 년, 50 년 후 북극 곰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은 생각한다. 어쩌라고? 넌 여기 없을 건데. 우리는 모두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하고, 익사하고 그럴 텐데. 화면 하단에 기부 전화 번호가 있다. 북극 곰의 눈이 화면에 바짝 다가와 소년에게 눈썹으로 키스를 한다.

소년은 전화를 든다. 번호를 돌린다. 그러나 북극 곰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건 스코트랜드 남자다. 그래서 소년은 전화를 끊는다.

In bed the boy tosses and turns, the ice water particularly turbulent this evening. A crack of light from a fisherman's boat.

Except it's the polar bear. Her brown eyes com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boy realises this might be the end. There is nothing left to eat so the polar bear will eat him. But then she kisses him. Smelling of sweat and bleach and pine.

You can't sleep? Thank you for doing the shopping.

Try to sleep. It's nearly one o'clock in the morning. You want me to sing for you? When you were a baby in my country, I would sing.

침대에 누운 소년은 몸을 뒤척인다, 빙하의 물은 오늘 저녁 유난히 요동을 친다. 어부의 배에서 새어 나오는 한 줄기 빛.

북극 곰이라는 사실만 빼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 오는 곰의 갈색 눈알. 그리고 소년은 어쩜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깨닫는다. 먹을 것이 하나도 안남았으니 북극곰은 나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곰이 소년에게 키스를 한다. 땀과 표백제와 소나무향 세제 냄새를 풍기며. 잠이 안와? 장 봐다줘서 고마워.

자야지. 벌써 한 시다. 자장가라도 불러 줘? 우리 나라에서 네가 아가였을 땐, 내가 자장가를 불러줬지.

And the boy remembers how they would make music with spoons and pots when Dad was at work.

And when the boy was older, they would watch Eurovision together and make bets. And when he was older still, they would sing along to the radio. And then on day it was just him alone. Singing for no one to hear in an empty house.

Look, I'm asleep.

And he rolls over onto his side.

Can you get out of my room? Can't I have some privacy?

봐, 자잖아. 그리고 소년은 옆으로 돌아 눕는다. *내 방에서 나가 줄래? 난 프라이버시도 없어?*

이제 대회와 지영은 함께 길을 가고 있다. 대회는 혼자 신이 나서 뭐라 계속 지껄이고, 지영은 끌러가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Tachee and Jiyong are walking together now. While Tachee, in excitement, keeps babbling on, Jiyong smiles uneasily dragging along.

지영: 태희와 함께 교문을 나서며 나는 웃는다. 태희와 함께 학원을 가며 나는 웃는다. 태희와 함께 아파트로 가며 나는 웃는다. 힘들어도 웃는다. 깊은 바다 속에 혼자 가라앉지 않기 위해.

Jiyong: I giggle as I exit the school gate with Taehee.

I giggle as I go to the preparatory school with Taehee.

I giggle as I come to the Apartment with Taehee.

I giggle even in pain.

(차 경적 소리.)

(The sound of a car horn.)

아빠 : 지영아!

Dad: Jiyong!

태희 : (반가워하며) 와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Taehee: (Glad to meet him) Wow.Mr. Bu, How are you?

지영: 나는 더 이상 웃지 않는다.

Jiyong: I don't giggle any more.

태희 : 와아, 신상차?

TaeHee: Wow, a 2016 model car?

아빠 : 쿨?

Dad: Cool?

태희 : (엄지 손가락을 쳐들며) 쿨~

Taehee: (Giving out her thumb) Cool~

아빠 : (웃으며) 역시 태희가 물건 볼 줄 아네.

Dad: (Smiling) Taehee you have an eye for quality items.

지영: 아빠랑 태희가 같이 웃는다.

멀미 나.

Jiyong: Dad and Taehee laugh together.

I'm sick and tired of it.

아빠 : 얼른 타!

Dad: Hey get on!

지영: 밖에서 여자들이랑 있으면 저렇게 변하는 거겠지.

있는 척, 잘난 척, 멋진 척.

구역질 나.

나는 뒤도 안돌아보고 달린다.

아빠랑 태희 모습을 잊으려고 기를 쓰고 달린다.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를 지나,

현관문을 지나,

마침내 내 방 앞.

빨리 책상 속으로.

Jiyong: He probably flirts like that with other women when he's outside.

Pretending to be rich, smart, and cool.

Disgusting.

I run without looking back at all.

Run desperately to escape from dad and Tachee.

(Panting) Pass the elevator,

Pass the front door.

Finally in front of my room.

Hurry up and go under the desk.

지영, 온 종일 태희한테 시달리다 집에 들어온다. 걸레를 들고 방에서 나오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다.

Jiyong comes home exhausted from hanging out with Taehee all day. Makes eye contact with grandma getting out of her room with a mop in her hand.

지영: 왜 내 방에서 나와?

Jiyong: Why are you getting out of my room?

할머니: 아, 이제 오멘?

Grandma: Ji, how's your day?

지영: 내 방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Jiyong: Don't spy on me in my room.

할머니: 가여 가여. (책상 쪽을 가리키며) 난 또 저다 이시카부덴...

걸레 시커멍한 거 보라. 안 들어가게 생겨시냐.

Grandma: Look how dirty this (mop) is. How could I not go into your room. I know I know.

(Pointing to the desk) I just thought judi isikabuden...

지영: (짜증을 참으며)...혹시 화장대 건들었어?

할머니: 나가 무사 건드느니? 호쏠만 만져도 난리치는디.

지영: 뭐본거 없지?

할머니: 뭐?

지영: 아, 아냐. 됐어. 가.

할머니, 가만히 지영을 쳐다본다.

Jiyong: (trying to ease her anger)... By any chance did you touch my vanity?

Grandma: Why would I touch that? Knowing that you'll be kicking up a fuss about such a small thing.

Jiyong: Did you see anything?

Grandma: what?

Jiyong: Oh, never mind. Get out. Go.

Grandma looks at Jiyong speculatively.

지영: 저 표정.

어릴 때부터 쭉 따라다니는 저 표정.

내 고통을 다 안다는 듯 바라보는 저 표정.

못마땅해.

할머니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Jiyong: That expression on her face.

That expression has followed me around since I was young.

That expression as if she knows my pain all too well.

I don't like it.

I know what Grandma is thinking.

그래, 이젠 다 큰 거야.

책상 밑에 들어가기엔 너무 컸어.

다행이야.

Right, she's grown by now.

she's too big to get under the desk.

I am so relieved.

할머니는 또

그리고 날 책상 <mark>화장대</mark> 밑에서 처음 발견했던 때를 더듬고 있어.

이맛살에 거센 파도를 일으키면서.

옛날 옛날 지영이가 한 3 살쯤 됐을 때였나?

망사리가 넘치도록 해산물이 많이 잡혀서 뭔 숭시가 날 것만 같던 그 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배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바다 건너 서울 아들 집에 온 날이었어.

Again

And Grandma is recollecting the first time she found me under the vanity. the desk.

Creating a furious wave on her forehead.

At that time I believe my Jiyong was three or so.

That day I collected mansari net full of seafood, and which seemed some kind of an omen,

The first time "divorce" was pronounced

The first time taking an airplane instead of boat

The first time coming to my son's place in Seoul across the sea: That was that day.

아빠 : 엄마, 도와줘요. 지영이 클 때까지만……

Dad: Mom, help me please, at least until Jiyong grows up…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지영이는 찾을 수 없었어.

찾다 찾다 방 걸레질을 하는데, 뭔가가 툭 걸리길래 봤더나

지영이가 책상 화장대 밑에 잠들어 있었지.

지 엄마가 쓰던 책상화장대 밑에…

그때부터인 거야.

제주바다 속에서 전복을 찾는 대신

책상 화장대 밑에서 지영일 찾았던 게.

However, I couldn't find Jiyong until night time.

I kept searching for her and eventually something got caught in my mop, while mopping the floor

Jiyong fell asleep under her desk-vanity.

Under the desk her mom used to use...

It started from then on.

Instead of finding abalones in Jeju water

I have been finding Jiyong under this desk vanity.

그래, 아직 내 기억력은 팔팔해.

저 세상으로 가기엔 너무 젊어.

다행이야.

할머니 이맛살이 비로소 잔잔한 바다가 된다.

Good, I still have my memory.

I am too young to leave this world for "the Pure Land."

I'm glad.

Then wrinkles on grandma's forehead become calm waves of the sea.

할머니: 밥 먹언? 뭐 주카?

Grandma: Have you eaten yet?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지영: 또 밥 타령…

나는 대답 대신 방문을 꽝 닫는다.

맨날 밥밖에 몰라서 꽝,

다이어트의 'D'자도 몰라서 꽝,

내 몸이 변하는 것도 몰라서 꽝,

전부 꽝, 꽝, 꽝!

Because all you know is just food, you're wrong,

Because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dieting, you're wrong,

Because you don't even notice that my body is changing, you're wrong, Nothing but, wrong, wrong, wrong!

지영, 화장대 앞에 앉는다.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쓴다. 서랍 속에서 그동안 사모은 화장품들을 하나씩 꺼내본다.

Jiyong sits at the vanity. She tries hard to calm down. She brings out entire makeup she's bought and stored and admires them.

지영: 퍼프, 비비크림, 틴트, 섀도우, 뷰러, 아이라이너...

사용법 전혀 모름.

사용감 전혀 없음.

화장대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은정 씨 냄새...

그 냄새마저 잃을까봐 다시 화장품을 사모으고

어딘가에서 화장 하고 있을 은정 씨를, 아주 잠깐, 상상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존재하는 모... 김은정...

이혼도 흔해진 마당에, 은정 씨는 단 한번도 자녀 면접 교섭권을 쓰지 않았다.

뭐, 상관없다. 내가 붙잡고 싶은 건 은정 씨가 아니니까.

화장대는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한 유품.

Jiyong: Sponge, BB cream, tint, eye shadow, eyelash curler, eyeliner...

Don't know how to use any of them.

Never tried it before.

She found Eunjung's smell in the vanity drawer by accident…

She buys more makeup because she's afraid of losing her smell

She imagines Eunjung, very briefly, who is putting on makeup somewhere.

Eunjung Kim… mother who exists only in the certified copy of family register…

In this day and age where divorce is common, Eunjung never used her child visitation right.

Whatever, it doesn't matter. It's not Eunjung that I want to hold on to.

The vanity is the only legacy of my childhood.

(화장품 냄새를 깊이 맡는다.)

화장품 냄새를 맡으면 은정 씨 발이 보여. 얼굴은 전혀 기억 안 나는데 화장대 밑에서 움직이던 커다란 발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던 발이...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던 발이... 그 발과 장난치며 숨 넘어갈 듯 웃어대던 한 아이가... 적당히 익은 따스한 햇살이... 모든 게 느껴져. 그 발을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여자 되기... 참 복잡해. 생리 주기도 모르겠고... 다 어색해. 은정 씬... 이런 기분 알지? 같은 여자니까...

(Smells the makeup deeply.)

When I smell the makeup, I see Eunjung's feet.

I don't remember her face at all, but I remember her big feet under the vanity...

Moving from one side to another like the wave…

Almost able to reach…

The kid that once tried to catch those feet and laughed hesterically...

That warm sunlight ripened perfectly...

I feel everything.

If I didn't let those feet go, would things be better now?

It's really complicated ··· becoming a woman.

You know how I feel right? Eunjung?

You are also a woman...

아빠: (씩씩대며 들어오며) 지영이는? 저기, 진짜, 요즘 왜 저래 정말?

Jiyong: All you do is to nag about eating.

I bang the door shut without answering...

Dad: (Huffing and puffing as he enters) Is Jiyong in? She's, over the line, what's wrong with her?

할머니: 밥은?

Grandma: Have you eaten yet?

지영 : 아빠도 대답 대신 방문을 꽝 닫는다.

할머니 인생을 좀먹고 있으면서, 우린 왜 이 모양일까.

Jiyong: Dad also bangs the door shut without answering.

Gnawing at Grandma's life, what's wrong with us.

Scene 3. Relationships.

장면 3. 관계

The elevator/ the bus. (Again, it's both at once.) Boy is on the bus.

엘리베이터/버스. (이번에도, 동시에 둘 다이다.) 소년은 버스를 타고 있다.

Boy: Cocopops splashing

Music exploding

Ice water spraying

Bombs thudding

And the bus trucks along.

소년: 코코팝 시리얼은 물텀벙

음악은 쾅 터져

빙하 물은 물보라 쳐

폭탄은 쿵 떨어져

그리고 버스는 털털털 나아간다.

Boy exits the bus at the same moment Jiyong gets in the elevator.

소년이 버스에서 퇴장하는 순간 지영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빗소리.

지영, 우산을 탁탁 털어 접는다.

Sound of raindrops.

Jiyong, shakes and folds the umbrella.

지영: 학원 수업을 끝내고, 수많은 문을 지나, 마침내 엘리베이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있다.

여기서 혼자 타면 끝까지 혼자.

혼자 있고 싶은 날, 다행이야.

Jiyong: Finishing classes in a preparatory school, passing many gates, and at last here's the elevator.

Luckily the elevator is on the first floor.

If I am the only one to get in now, I will be the only one going up to my floor.

I want to be alone on this kind of day, thank God.

엘리베이터 실내등은 비구름에 지친 달빛.

나는 달빛에 기대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조각 배.

한번도 가 본 적 없는 25 개 항구가 나를 본다.

한번도 벗어난 적 없는 15 번 항구가 나를 재촉한다.

Jiyong: Interior light in an elevator is moonlight weary of a rain cloud.

I am a small boat drifting in a vast ocean guided by a moonlight.

Never-before-visited 25 harbors stare at me.

Never-before-escaped-from 15 harbors urge me.

15 번 단추에 불이 들어온다.

Light is on at button 15.

Boy: Melting pot pours into maths class but today it's different.

It's like looking in the mirror. Because amongst the hipster jeans and geek ipads there's him. But it's not him. It's her. The girl. Just being. No label. Not fitting. She glances at him and it's the first time and the hundredth time all at once.

소년: 수학 시간은 잡동사니 도가니인데 오늘은 다르다.

거울을 들여다 보는 것만 같다. 최신 유행의 청바지와 컴퓨터 괴짜 아이패드들 틈에 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소년이 아니다. 소녀다. 소녀. 그냥...존재하기. 소녀가 그를 힐끔 쳐다 보고 그건 첫번째이자 동시에 100 번째 이기도 하다.

지영: 높은 파도가 한바탕 몰아치면 나는 곧 15 번 항구에 도착. 슈우우웅 파도가 밀려온다. 높은 파도가… (눈을 감는다)

Jiyong: Once the big wave surges I will soon arrive at the harbor 15. Shhhhhh the waves roll in. High waves… (Close my eyes)

남자 : (멀리서 다급하게) 잠깐, 잠깐만요!

Man: (Pressingly from afar) Wait, wait for me!

Boy: The boy's never seen her before, but at the same time knows he has.

The video rewinds a week before and there she is in the same spot at the same desk in the same class barely a few feet from him. Her skirt at the waist, hem just above the knee, collar done up, tie the correct length.

소년: 소년은 전에 한 번도 소녀를 본 적이 없지만, 동시에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 동영상을 일 주일 전으로 돌려 보면 같은 교실 같은 책상 같은 자리 겨우 일 미터도 안될 거리에 소녀가 있다. 소녀의 치마는 딱 허리에, 치맛단은 딱 무릎 위에, 깃은 위로 올리고, 타이는 딱 맞춤한 길이.

지영: 어두운 밤 바다를 헤치며 다가오는 목소리. 남자? Man?

나는 서둘러 기울을 본다.

바 오는 날엔 에써 손질한 앞머리가 돼지털처럼 부스스.

그냥 가버릴까. 못 들은 척?

Jiyong: The voice rows near me against the dark night's sea.

Hook in the mirror hurriedly.

Bang all the efforts put into becomes disheveled on a rainy day.

Should I move on. As if I didn't hear him?

남자 : 잠깐만요!

Man: Please wait!

Boy: It rewinds another few months and there she is at the next table in the dining hall eating the same tuna sandwich as him with too much mayo.

소년: 서 너달을 더 돌려보면 식당 바로 옆 식탁에 앉아 소년과 마찬가지로 마요네즈 범벅인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소녀가 있다.

지영: (문 쪽을 보며) 저 다급한 목소리.

(앞머리를 보며) 아, 추한 돼지털.

어떡하지? 어떡하지?

괜찮을까, 남자랑 단둘이?

Jiyong: (Looking to the door) That urgent voice.

(Looking at her bang) Really, what an ugly stringy hair.

Will it be ok, just the two of us with man?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Boy: Rewind another year and there she is getting on the bus a stop after him. And everyday after that.

There she is in the background of every school photograph. Like him.

Hiding in plain sight.

소년: 또 한 해를 돌려보면 소년의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소녀가 있다. 그리고 그후로도 매일.

그곳에 학교 단체 사진마다 배경에 소녀가 있다. 소년과 마찬가지로. 떡 하니 있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영: 어어, 문이... 닫히려고 한다.

간신히 마음을 열어

열림 선택.

15 층까지 45 초.

조금만 참으면 돼.

Jiyong: Oh no, the door is about to close.

Open my heart just in time

choose 'Open.'

To the 15th floor it takes 45 seconds.

It will be over soon.

(타이머 소리.)

(Sound of the timer.)

비에 젖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전화벨 소리. 남자, 급하게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지영, 얼굴을 가리려고 몸을 살짝 옆으로 든다. 곁눈질로 몰래 남자를 훔쳐 본다.

A man soaked in rain steps into the elevator.

Phone rings. The man, hesitantly gets the phone.

Jiyong, turns her body aside to hide her face. Gazes at the man from the corner of her eye.

at the exact same moment Boy makes eye contact with Girl.

바로 그 순간 소년, 소녀와 시선이 마주 친다.

Boy: The girl holds eye contact for a few seconds and then looks away, back to the teacher.

소년: 소녀는 몇 초간 눈을 맞추고는 눈을 돌려, 다시 선생님을 쳐다본다.

남자: (전화기에 대고) 다 왔어. 이제 엘리베이터야… 아빠가? ...아, 알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숨을 고르며) 후유, 고맙습니다.

Man: (Talking on his phone) Almost there. Now in the elevator Dad? ... well, okay.-(*gets off the phone and e*vens out his breath) Hew, thanks.

지영: 엘리베이터는 남자 숨소리로 꽉 찬다.

남자 목소리로 꽉 찬다.

15 층까지 80 초.

조금만 참으면 돼.

Jiyong: The elevator is filled with that man's breath.

Is filled with that man's voice.

To the 15th floor it takes 80 seconds.

It will be over soon.

남자: 내가 아빠랑 얘기할 테니까 좀만 참아.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숨을 고르며) 후유, 고맙습니다.

Man: Wait a minute until I talk to dad. (gets off the phone and evens out his breath) Hew, thanks.

지영, 얼른 자세를 바로 잡는다.

Jiyong, straightens up her posture quickly.

지영: 남자는 전투에 나갈 태세로 16 번 항구를 꾹 누른다.

15 와 16. 위아래로 나란히 불을 밝힌 항구.

저 남자는 싸우러, 나는 숨으러 들어가는 항구.

천장을 사이에 두고도 각자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르다.

Jiyong: Man pushes Harbor 16 firmly as if to go into battle.

15 and 16. Harbors lighted side by side above and below.

The harbor that man enters to fight, I to hide.

Divided by a thin ceiling, we live a whole different lives.

남자: 저기…

Man: Excuse me...

지영: 네? (당황한다)

Jiyong: Me? (Embarrassed)

이런 것까지는 준비 못했는데.... 생리대 말고는...

I am not prepared this far except for sanitary napkins...

남자 : 저기… 혹시 1503 호예요?

Man: By any chance do you live in unit 1503?

지영: (놀라며) 네?

Jiyong: (Being startled) Excuse me?

이럴 땐 맞다고 해, 아니라고 잡아떼?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아는 거지?

날 어떻게 아는 거지?

날 언제부터 본 거야?

엘리베이터 탈 때 저 남자가 있었나?

아침 등교 시간에 사람들 틈에서?

학원 끝나고 탔을 때 배달원 뒤에서?

Should I say yes, or should I deny it?

How much does he know about me?

How did he know me?

When did he start noticing me?

Was he there when I got in the elevator?

Among the people during the morning commute?

Behind the delivery man on the bus after the preparatory school?

남자 : 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이 좀 시끄러워서… 1603 호에요. 가끔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오길래…

Man: Well, I just, we make a lot of noise... unit 1603. We get the intercom from the floor beneath us sometimes...

지영: 아!

Jiyong: Yeah!

층간 소음 때문에 아빠가 벼루고 있는 바로 윗집!

That upper floor that my dad is on the watch for an opportunity to complain interfloor noise.

남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Man: I am sorry.

지영: 네에. (순간 당황하며) 아, 아니에요. 아, 아니....

Jiyong: No, don't worry. Well, (Embarrassed momentarily) no, that's okay...

지영, 앞머리를 펴려고 자꾸 만지작거린다.

Jiyong, Keeps fumbling her bangs to straighten.

(Dining hall)

(식당)

Boy: You weren't here yesterday.

소년: 너 어제 여기 없었지.

Girl: What?

소녀: 응?

Boy: Right?

소년: 그치?

Girl: So?

소녀: 그래서?

Boy: Just Imnoticed. I think.

소년: 그냥...못본 것 같아서. 내 생각에.

(Pause. He hovers with his dinner tray. Then finally sits further along the table. Pause. He eats.)

(멈춤. 소년은 식판을 들고 떠돈다. 그러다 마침내 식탁 저쪽 끝에 자리를 잡는다. 멈춤. 먹는다.)

Girl: Is the Bolognese as terrible as the ratatouille? Think it's just the tomato soup from earlier this week with some soggy courgettes added in.

소녀: 고기 토마토 볼로니도 라타튜유 야채스프만큼 맛 없니? 아무래도 며칠 전에 나왔던 토마토 스프에 시들 시들한 주키니 호박을 쓸어 넣은 것 같아.

Boy: It's all right actually. You can have it if you like? Trade you?

소년: 이건 그럭 저럭 괜찮아. 이거 먹든지? 바꿔 줘?

Girl: I don't eat meat.

소녀: 고기 안 먹어.

Boy: Right, sorry.

소년: 아. 미안.

(Pause.)

(멈춤.)

Girl: You can sit here if you want. (Indicates across from her.)

소녀: 여기 앉아도 되는데. (자기 맞은 켠 자리를 말한 거다.)

Boy: I'm all right thanks.

소년: 고맙지만, 됐어.

(They continue eating in silence.

He gets up with his tray and sits across from her.)

(둘 다 말없이 먹는다.

소년이 식판을 들고 일어나 소녀 맞은 켠에 앉는다.)

Boy: More efficient use of space.

(Beat)

How come?

소년: 좀 더 효율적인 공간 이용.

(둥둥) 어떻게?

Girl: How come what?

소녀: 뭐가 어떻게?

Boy: You don't eat meat?

소년: 고기를 안 먹어?

Girl: Um, like a million reasons. The pain, the pointless violence of factory farming, the waste, not to men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소녀: 음, 이유를 대자면 한 없어. 고통, 공장화된 축산 농장의 무의미한 폭력, 쓰레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Boy: Yeah but what about fruits and vegetables?

소년: 그렇지 그런데 과일이나 야채는?

Girl: You're have ethical reservations against fruit and vegetables?

소녀: 과일 야채에 윤리적 책임감 느끼니?

Boy: Our consumption of them is killing the environment too. The overproduction, the pesticides doing damage to children in some country far away.

소년: 우리가 그걸 소비하는 행위도 환경을 해치기는 마찬가지지. 과잉 생산, 먼 나라 어디에서는 아동들이 살충제 피해를 입고.

Girl: And their parents, the underpaid workers,

소녀: 그리고 그 아동들의 부모는, 임금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

Boy: And their parents, the underpaid workers, and the carbon footprint from flying that courgette from Morocco

소년: 그리고 그 아동들의 부모는, 임금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 주키니 호박을 모로코에서 공수하느라 생기는 탄소 발자국

Girl: The greenhouse gases from the plane that are heating up the artic and making polar bears homeless.

소녀: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극지대의 온도를 높여 북극 곰을 집없는 처지로 만들고.

(Beat.)

(둥둥.)

Boy: Why weren't you at school yesterday?

소년: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

Girl: No reason. I just didn't fancy it.

소녀: 이유 없어. 그냥 별 생각없이.

Boy: Your parents let you just do that?

소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

Girl: They don't care. They didn't know, but they wouldn't care anyway.

소녀: 신경 안 쓰신다. 모르셔, 알아도 어차피 상관않지만.

Boy: Aren't you worried the school will notice?

소년: 학교에서는 알텐데 괜찮아?

Girl: You think any of this lot notices us?

소녀: 이 치들 중의 누가 우리를 주목한다고?

Boy: So you do it often? Bunk off?

소년: 그러니까 자주 그러는구나? 학교 막 빼먹고?

Girl: "Bunk off?" What are you a 90's movie?

소녀: 학교 막 빼먹고? 90 년대 영화 찍니 너?

Boy: But if they caught you

소년: 그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Girl: Then they'd kick me out of school. Which is rather ironic.

소녀: 그땐 퇴학시키겠지. 그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Boy: You don't care about graduating?

소년: 졸업 안해도 돼?

Girl: What for?

소녀: 뭐하게?

Boy: I dunno. So you can go to college, go to university, get a job.

소년: 글쎄. 그럼 전문대도 가고, 4년제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잡고.

Girl: What job? Most jobs will all be run by computers by then anyway. The world will be bombed out by Jihadists or drowning in water or owned by Starbucks and we'll all need to be euthanized so they can use our corpses as fuel for Chinese nuclear plants.

소녀: 직장을 잡아? 나중에는 어차피 일은 모두 컴퓨터들이 할 껄. 세상은 지하드들의 폭탄 세례를 받거나 물에 잠기거나 스타벅스한테 팔릴 테고 우리는 모두 안락사 돼서 시체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일 텐데.

(He smiles.)

(소년 씩 웃는다.)

Boy: I like you.

소년: 너 맘에 든다.

Girl: You don't even know my name.

소녀: 내 이름도 모르면서.

(He shrugs.)

(소년 어깨를 으쓱한다.)

Boy: Want to see something?

소녀: 뭐 보여줘?

띵.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

이어지는 남자와 지영의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 받는 대화라기 보다 각자 생각에 잠겨서 속마음을 풀어내는 것이다. 다만, 지영은 속으로만 반응할 뿐 직접 말하진 않는다.

Beep. Signals the arrival of an elevator.

The continuing conversation between the man and Jiyong is not so much a communication as a monologue emptying out their own pensive inner thoughts. Only difference is, Jiyong does not speak out loud but talks to herself.

지영: 벌써? 어?

Jiyong: Already? What?

남자: 9층...

Man: A ninth floor.

지영: 아...

Jiyong: Ah…

남자 : (밖을 응시하며) 사라졌네... 사라지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Man: (Gazing afar) It disappeared. Disappearing. What do you think it feels like?

지영: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

9층이 눈앞에서 사라지려는 찰나.

Jiyong: The question that I don't understand the intention.

It is about the moment the ninth floor disappears from your eye.

남자: (갑자기 생각난 듯) 잠깐...

Man: (As if the idea hits on the spot) Wait…

지영: 남자가 항구의 불빛들을 꺼버린다.

15, 16 종착역을 없애버린다.

문이 굳게 닫힌다.

JIyong: The man switches off the lights of the harbor.

Eliminates the terminal 15 and 16.

Door closes completely.

남자: 멈췄다...

Man: Stopped.

지영: 내 심장도, 멈 췄 다.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 당할 확률...

Jiyong: My heart also s-topp-ed.

The possibility of getting sexually assualt in an elevator…

남자: (<mark>감격해서</mark>) 진짜로 멈췄어... 봐요. 우린 그냥...

공중에... 봐요... 우리가...

Man: (Being deeply moved) Really stopped… Look. We are just…

Suspended in the air··· look··· we are···

지영: 우리? 이 새끼 나 건들기만 해 봐.

당신과 나, 우리?

Jiyong: We? Hands off. If you dare to touch me!

You and I. We?

지영, 우산으로 공격 자세를 잡는다. 남자, 겁을 먹는다. 지영, 버튼 있는 쪽으로 조심스레 손을 뻗는다.

남자 : 저... 저기... 아녜요...나 아녜요. 그냥 너무 갑갑해서... 진짜에요... 부탁해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멈춰요, 네? 이렇게 조금만... 제발...

지영: (망설인다. 우산 끝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그럼 저기로...

남자: (뒷걸음질 치며) 여기?

지영: 더...

남자:됐어요?

지영: 뭐, 대충...

남자: 고맙습니다.

Man: um···um··· no... I'm··· not. I just feel so trapped··· really··· please··· for a moment··· just for a moment could we stop, please? Just stand still like this··· please···

Jiyong: (hesitates. Points at the corner using the tip of her umbrella) then go over there...

Man: (takes a step back) here?

Jiyong: More...

Man: Here?

Jiyong: Good enough...

Man: Thank you.

(사이.

지영, 슬그머니 우산을 내려놓는다.)

(Pause.

Jiyong, quietly puts down her umbrella.)

남자:엘리베이터는...

지영:...

남자 : 우리집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이 타서...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서로 다른 데를 보고...

다른 버튼을 누르고... 제대로 안간다고 서로 탓하고... 그러다 꽝 폭발...

지영: ...그 우당탕 아버님?

남자: (내게) 악마가 씌었대요...

지영: 헐.

남자 : 옛날에... 워낙 착한 아들이라...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만 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부모님이... 그때가 진짜 내 모습이라고... 난 아직 찾고 있는데...

지영: ...어떻게... 찾아요?

남자: 길에서 정지 표지판 본 적 있어요?

지영: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며) 음...

남자: 저도 우연히 봤는데... 정지... 정지... 그 글자가 (가슴을 두드리며) 여기, 여기 꽂혀서... 막

눈물이...

Man: Elevator is...

Jiyong: ···

Man: Just like my house… have to get on without a choice… can't get off in the middle… look in different directions… push different buttons… blame others for not going properly… then it explodes, Bang…

Jiyong: ... that your father who makes all the noise?

Man: they told me that the evil spirit took over me....

Jiyong: Wow.

Man: A long time ago... I was such a good son... always did what I was told... that's all they talk about, my parents... they say that that is the real me... but I'm still searching for myself...

Jiyong: How would you find it…?

Man: Have you noticed the "STOP" sign on the streets?

Jiyong: (tries to remember) um…

Man: I saw it by accident ··· STOP ··· sTOP ··· those words (beating his heart) stabbed me

here... hard that I began crying...

지영: 아, 눈물까지...

남자: 다른 세계를 맛본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씩 퍼즐조각 찾듯이...

지영: 어렵다.

남자: 어렵죠... (시원하게 숨을 내쉬며) 아, 조용해서 좋다... 집에 가기 싫다...

지영: ... 가지 마요.

남자: ... 할 수 있어요?

지영: 어... 난 별로 안 땡겨서...

남자: 아... 가족들이 괜찮은가 보다.

지영: 전혀... 무심코 화장실 문 열었다가 놀란 적 없죠?

남자: 아빠?

Jiyong: oh, tears...

Man: I've tasted a different world… just like now… one at a time, like fitting a puzzle piece…

Jiyong: That's hard.

Man: It's hard indeed… (Exhales a deep breath) ah, nice and quiet… I don't want to go

home...

Jiyong: Then don't go home...

Man: Can you do it?

Jiyong: Well... I don't fee like it...

Man: Oh... Your family must be tolerable.

Jiyong: Not really... Have you ever opened the bathroom door and been so startled?

Man: Dad?

지영: 할머니요. 전기 아낀다고 맨날 불 꺼놓고 볼일을...

남자: 그거 괜찮다...

지영: 같이 살아봐요. 웃음이 나오나.

남자: 그런가? 남의 가족들은 왜 다 괜찮아보이죠?

지영: 남이니까.

남자 : 남... 남... 차라리 남처럼 아무 것도 해주지 말고 아무 것도 바라지 말지...

지영: (남자 말투를 따라하며) 그거 괜찮다...

Jiyong: Grandma. She does her thing with the lights off to save money...

Man: That's a good idea...

Jiyong: You should try living with her. It wouldn't be so funny then.

Man: I guess. I wonder why other families always look better than your own.

Jiyong: Because we are not related.

Man: not··· related··· I wish they wouldn't do anything for me like we are not related and wouldn't expect anything from me.

Jiyong: (Mimicking the man) That's a good idea...

같이 웃는다. 순간, 지영과 남자가 눈이 마주친다. 지영, 남자 눈에 사로잡힌다. (42p)

They Laugh together. Right that moment. Jiyong and man make eye contact. Jiyong, is carried away by his eyes.

지영: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만이 갖는 초점 없는 눈빛.

저 남자도 얼룩이 생길까 봐 힘들어하는구나...

천장을 사이에 두고도 각자 사는 세상이 이렇게 비슷하다.

그 남자의 목울대가 꿀러덩, 꿀러덩, 움직인다.

(서둘러 몸을 돌린다) 아무리 몸을 돌려도 사방에 저 눈빛이...

내 마음도 같이 꿀러덩 꿀러덩....

Jiyong: Those glassy eyes only the loneliest soul in the world has.

That man is also afraid of getting stained...

Divided by a thin ceiling we each live in the same world.

His Adam's apple moves up and down, gulping.

(Hastily turns her body to the side) No matter how quickly I turn my body I can't escape that look.

남자 : 공중에 떠있는 거에요. 어디에도 없는 거에요.

Man: Being suspended in the air. Actually we are in nowhere.

(남자 핸드폰이 울린다. 남자, 핸드폰을 꺼버린다.)

(His cellular phone rings. Man, turns off the phone.)

지영: 아무데도 아닌 곳에 우리가 있다.

Jiyong: We are in somewhere that is nowhere.

남자 : 아무대도 아닌 곳에...

Man: Somewhere that is nowhere...

(지영. 마음이 통하는 걸 느끼며 남자를 바라본다.)

(Jiyong, looks at him, feeling connected heart to heart.)

남자: 아무도 생각치 못한 곳에...

숨박꼭질...

예전에 참 좋아했는데....

아무도 날 못 보는데, 난 모든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술래 발소리, 애들 잡히는 소리, 내 이름 외치는 소리...

Man: The place that no one can even imagine...

Hide-and-Seek...

I really liked to play it when I was young...

No one can see me, but I can feel it all, yeah.

Footsteps of the tagger [it], the sound of friends getting tagged, the sound of someone yelling my name...

지영: 우리집에선 할머니가 늘 술래였다. 내가 잠시만 안보이면 혹시나 책상 속에 또 들어갔을까 봐 지영아, 지영아 애타게 불렀지....

Jiyong: Grandma always was the "it" in our household.

If she didn't see me even for a short while

She would be worried that I went under the desk again

Worried and called after me Jiyong, Jiyong….

남자 : 모든 걸... 이대로 멈출 수만 있다면...

Man: Anything everything... only if we can stop them...

지영: 문이 영영 열리지 않았으면...

Jiyong: Wish the door would never open...

(사이)

(Pause)

남자 : 곧... 술래한테 잡히겠죠?

Man: Soon… "It" will get us for sure?

지영: 아마도...

이미, 우린, 너무...

Jiyong: Probably...

Already, We are, too...

남자: 너무 커버렸어.

Man: too outgrown.

지영: 떠밀리듯... 여기까지...

Jiyong: Having been pushed to this point

남자 : 입시 전쟁. 최후 통첩. 협상 실패... 협상에 실패하면 포로가 되거나 즉각 처분. 살벌하죠?

Man: Entrance exam war. The final warning. Talk failure… If talk fails, be a captive or immediate execution. Isn't it tense?

지영: 저 남자도, 얼룩이 생길까 봐 힘들어하는구나… 천장을 사이에 두고도 각자 사는 세상이 이렇게 비슷하다.

Jiyong: That man is also afraid of getting stained...

-Divided by a thin ceiling we each live in the same world.

남자 : 다 날 위해서래요. 날 위해서...

Man: It's all for me. Just for me, said they...

지영: 우리 아빠도 그래요.
날 위해서 학원 등록을 하고
날 위해서 학교를 고르고
날 위해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오고
날 위해서 새 차를 사고
날 위해서 섹스 파트너를 찾아다니고
날 위해서 맨날 야근을 한대요.
날 위해서...

Jiyong: My dad said the same thing.

Registered the preparatory school for me

Chose the good school for me

Moved in a luxury apartment for me

Bought a new model car for me

Chasing after the sex partners for me

Often worked late into the night for me

It's for my future...

지영이 속으로 외치는 동안, 남자가 지영을 본다. 지영, 남자 눈과 마주친다. 잠시 동안 뚫어지게 서로를 본다. While Jiyong crying out at heart, man looks at Jiyong, changes eye contact with man. For a while they gaze into each other.

(*The roof of the school.*)

(학교 지붕.)

Girl: How'd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소녀: 여기 어떻게 알았어?

Boy: One time I···well it doesn't matter what happened, but I needed to hide, and I happened upon the caretaker's door, which was open, and then saw the stairs, and then another door, and here we are.

소년: 한 번은 내가...에이 무슨 일이 있었나는 상관없고, 암튼 숨을 곳이 필요했어, 우연히 수위 아저씨 방 앞에 있었는데, 문이 열려있었지, 계단이 보이더라, 그리고 또 다른 문이 있더라구, 그리고 여기.

Girl: You can see them all from here.

소녀: 여기서는 전부 다 보이네.

Boy: They can't see us.

소년: 쟤들은 우리 못 봐.

Girl: How do you know?

소녀: 어떻게 알아?

Boy: How often does anyone ever look up? Trust me.

소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위를 쳐다 보니? 나만 믿어.

Girl: What if the caretaker comes back?

소녀: 수위 아저씨가 돌아 오면?

Boy: For someone who's whose said no one will notice us, you seem awfully worried about getting caught.

소년: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치고는, 잡힐까봐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너.

(She stands at the edge.)

(소녀 난간 끝에 선다.)

Girl: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if I took a step forward?

소녀: 한 발짝 앞으로 디디면 어떻게 될 것 같니?

Boy: You'd die obviously.

소년: 뻔하지 죽지.

Girl: Do you think?

소녀: 네 생각엔?

Boy: It's like 40 feet.

소년: 10 미터가 넘는데 그럼.

Girl: I used to do gymnastics.

소녀: 체조 했거든.

Boy: I don't see a trampoline down there.

소년: 내 눈에는 저 밑에 트램펄린이 안 보이네.

Girl: And do you think any of them would look up? Would they even notice?

소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를 쳐다 볼까? 눈치챌까?

(Beat.

She falls backwards – away from the edge. He catches her.)

(둥둥.

소녀 거꾸로 떨어진다 -난간 반대 방향으로. 소년 소녀를 붙잡는다.)

Bo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You could've, could've...

소년: 야 뭐야? 까딱하면, 까딱하면...

Girl: I didn't fall forwards.

소녀: 앞으로떨어지진 않았잖아.

Boy: Shit, you really. It looked like...

Well you still could've hit your head on the floor up here.

소년: 에이씨, 너 정말. 진짜 꼭…

진짜 여기 바닥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었단 말야.

Girl: But you caught me.

소녀: 네가 붙들었잖아.

Boy: And if I hadn't?

소년: 안 붙들었음?

Girl: I knew that you would.

소녀: 네가 붙들 줄 알았거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인다.)

(Elevator starts moving suddenly.)

지영: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배가 바다 속 블루홀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

10, 11, 12...

눈동자 네 개가 허공을 떠다녀.

종착역 알 수 없음

13, 14...

입술 두 개가 소용돌이치는 말들을 낚아채려고 달싹달싹.

15, 16...

처음으로 각자 항구 그냥 통과!

17...

입술 두 개가 소용돌이치는 말들을 낚아채려고 달싹달싹.

이삿날 화장대를 꽉 붙들고 있던 아이.

18...

은정 씨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었던 아빠.

19...

화장대 밑에서 아이가 보낸 시간들은

20...

개무시

21...

딸이라서 그래.

```
22...
씨늘하게 아빠가 돌아서고...
23
하수도 물어 화장대 밑에 구겨져있던 외로운 시간들이
아파트 배수관을 따라
24...
돌고 돌고 돌고 돌고....
25
(띵)

Jiyong: Then suddenly,
The noise of our boat being sucked into the blue hole in the sea.
10, 11, 12…
Four eyeballs floating around in the air.
Final destination unknown
13, 14…
```

Emergency! Emergency! Two hearts pounding emergency bell.

Two lips opening and trying to snatch swirling words,

15, 16...

For the first time they let each of their harbors pass

17...

The girl holding on to the vanity on the day of moving out.

18...

Dad wanting to obliterate anything about Eunjung once and for all.

19...

Two lips opening and trying to snatch swirling words,

The time the girl has been spending under the vanity

20...

Completely ignored

21...

They are the same species.

22

Heavy breathing

Dad didn't care about my feelings at all…

23...

Those lonely hours tamped down under the vanity

Sewage running along the apartment water pipe

24…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25

(Beep)

Beep. Number 25. The elevator again becomes the bus at the same time.

Boy and Girl and all the school kids get on the bus noisily, who are at the same time some noisy people getting on the elevator on the 45th floor. Jiyong speaks as the elevator reaches 25, and continues after all the bus people have gotten on.

띵. 25 층. 엘리베이터 이번에도 동시에 버스가 된다.

소년과 소녀 그리고 학교 애들이 모두 소란떨며 버스에 올라타고, 이들은 동시에 25 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소란스러운 사람들이다. 지영 엘리베이터가 45 층에 도착하자 말을 시작하여,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엘리베이터에 올라탈 때까지 계속 한다.

학생: (1 층을 누르려다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안 눌렀네?

Student: (Looking suspiciously as he pushes for the first floor) You didn't push?

지영, 당황한다. 얼른 15 층과 16 층을 누른다. 남자와 살짝 눈이 마주친다.

Jiyong, is embarrassed. Quickly pushes for 15th and 16th. Makes brief eye contact with man.

지영: 한꺼번에 밀려든 파도에 휩쓸려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남자는 16 번 항구에.

(16층. 평. 남자, 내린다.)

난 15 번 항구에.

(15층, 평. 지영, 내린다.)

그 남잔, 나도 똑같다고 생각할 거야.

남의 상치 따윈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

(서둘러 움직이며) 잠깐만....

Jiyong: Swept away by the sudden surge of the waves

We return to the place where we used to be.

Not able to talk about anything

As if nothing happened

Man at the harbor 16.

(16. Beep. Man, steps out.)

I at the harbor 15.

(15. Beep. Jiyong, steps out.)

That man, would think I am the same as others.

The kind, who is indifferent to others' wounded heart…

(Hastily walking) wait...

장면 4. 가족과 친구

Boy: She gets off the bus the stop before him and he's breathing fast, a rush of adrenaline, like when he had to stab a kid with an epi-pen when he was eight because the boy was having a reaction to peanuts.

소년: 소녀가 소년보다 한 정거장 앞서 버스에서 내리고 소년의 숨이 가빠진다, 아드레날린 상승, 여덟살 때 어떤 꼬마의 땅콩 알레르기를 멈추게 하려고 아드레날린 주사기로 그 아이를 찌를 수 밖에 없었던 때 처럼.

I'd be careful of her.

It's Arthur. He stares ahead like he's been trained to do.

That girl is proper mental.

What you talking to him for?

And Arthur's caught.

Arthur, what you talking to him for?

Was just saying that he's got a thing for freak-girl.

Nasty. I bet she's freaky in more ways than one. Right, freak boy?

The boy stares ahead but his eyes might as well be closed. As they throw grenades of insults, he concentrates on the sounds of jet engines. (On the bus, everyone stares, cackles, snorts, make insults, but their sounds are soon drowned out by jet engines.) He concentrates on the sound of jet engines. And he imagines the jet dropping a bomb on this very bus. Everyone's staring, snorting, cackling, throwing grenades of insults but all he hears are the jet engines. (the sound of an explosion, everyone lurches forward. But of course it's not the bomb of his imagination but just the bus coming to a sudden halt.)

The bus door opens and he legs it, even though it's not his stop.

Looks over his shoulder and sees Arthur and the other boys have got off too, this is their stop. He turns to run but bashes right into a woman.

She says his name.

Oh. Hi.

나라면 저 여자애 가까이 하지 않을껄.

아더다.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소년은 정면만 주시한다.

저 여자애 똘아이야.

개한테 뭐라 하는 거냐?

그리고 아더가 걸린다.

아더, 너 재한테 뭐라는 거야?

그냥 쟤가 똘아이 여자애한테 맘이 있다고 말한 것 뿐인데요.

고약한 놈. 저 여자에는 분명히 똘아이일 거다. 그치, 똘아이야?

소년은 정면을 보고는 있지만 당연히 눈은 감고 있다. 소년은 제트기소음에 정신을 모은다.

제트기가 바로 이 버스에 폭탄을 투하하는 상상을 한다. 모두들 노려보고, 코방귀를 뀌고, 낄낄 웃고, 욕설을 수류탄 던지듯이 하지만 소년의 귀에는 제트기 소리만 들린다.

버스 문이 열리자 자기 정거장도 아닌데, 내린다.

어깨 너머로 보니 아더와 다른 소년들도 내리는 것이 보인다, 여기는 그 애들이 내리는 정거장이다.

몸을 돌려서 달아나려다 한 아줌마와 제대로 부딪친다.

아줌마가 소년의 이름을 부른다.

아,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off to in a hurry? Look how tall you ar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saw you. I was just saying to Ayotunde that he should have you over after school. Wasn't I saying that?

And she turns to (She turns to Arthur who has sidled up to his mum.)

Wasn't I just saying how come I never see your friend and anymore and here he is!

Arthur becomes fascinated with his shoes.

And his mum says:

Why don't you come round today?

And Arthur looks at the boy. Curious. Wondering what the boy will say reply to his mother. And the boy, feeling suddenly brave in this new environment, revved up by his time with the girl perhaps, says:

Sure. I'd love to come over.

And Arthur's eyes widen. He opens his mouth to speak, but says nothing.

(Arthur is shocked. Pause. The Boy enjoys this, before he continues speaking with:)

Except I can't today. Another time.

And he jolts off before Arthur's mum can say anything else.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진짜 다 컸네. 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 지도 모르겠다. 막에요턴디한테 방과 후에 너랑 집에 와서 놀라고 말한 참이다. 내가 안 그랬니? 그리고 아줌마는 엄마인 자기한테 가만가만 다가오는 아더 쪽으로 몸을 돌린다. 내가 막 그랬지 도대체 네 친구 코뻬기도 구경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얘를 보네! 아더는 소년의 신발에 넋을 잃는다.

그리고 걔 엄마가 말한다:

오늘 놀러 오면 어떠냐?

그리고 아더는 소년을 쳐다본다. 호기심에 차서. 소년이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까 하고. 그리고 소년은, 이 새로운 상황에서 갑자기 용기 백배하여, 그 여자애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그런가 활기차게, 말한다:

옛. 가야죠.

그리고 아더의 눈이 왕방울만 해진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않는다. *오늘은 내가 안되네. 나중에.*

그리고 아더는 엄마가 뭐라고 하기 전에 튄다.

Back before Arthur was Arthur, back when Arthur was in fact Ayotunde, they were in Year 4. The boy had only joined the class a month before when his mum had moved them both to England from their country. And recognising a comrade in arms maybe, the boy took Ayotunde under his wing, when he too, just 4 weeks later, arrived with his mother from another country.

옛날 아더가 아더이기 전에, 옛날 아더가 실상 에요턴디였을 때, 둘이는 사학년이었다. 엄마가 엄마랑 소년을 고향 땅에서 영국으로 이주시킬 때는 학기 시작하고 겨우 한 달째였다. 그리고 사주 후에 에요툰턴디가 자기 엄마와 함께 자기 나라에서 도착했을 때, 전우구나 알아채고, 에요턴디를 자기 휘하로 받아 들였다.

They play pretend guns, chasing each other when they're nine.

At ten they trade the pretend guns for water pistols and chase girls around the park.

At eleven they trade those for video game controls and shoot lasers at goblins.

They start secondary school and it's:

아홉살 땐 권총놀이를 하면서, 서로 서로 졸졸 따라다닌다. 열살 땐 권총에서 물총으로 바꿔 쥐고 공원 주위로 여자애들을 좇는다. 열한 살 땐 그걸 비디오 게임 조종기로 바꾸고 도깨비들한테 레이저총을 쏜다. 중학교에 들어오고 상황은 이렇다:

I can't today

Because he was going out with his new friends Ben and James.

I can't today.

Because sleepovers are for when you're in like Year 4.

I can't today.

Because he was going to some girl's party – one of the girls they used to chase around with a water pistol, and he didn't know her well enough to ask if the boy could come too.

오늘은 안 되네.

걘 새로 사귄 벤과 제임스랑 놀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안 되네.

밤샘 따위는 사학년 애들이나 하는 거니까.

오늘은 안 되네.

여자애가 주최한 파티에 갈 거니까 - 둘이가 물총을 들고 좇아다니던 여자 애들 중 한 명인데, 소년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어볼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란다.

Until eventually it was just:

I can't.

급기야는 그냥 이렇게:

안돼.

There's a slogan on one of the video games they used to play: "If they're not your friend, they're your enemy." And Ayotunde seemed to have taken that too literally. And then he became Arthur for some reason. Which is the dumbest choice of name ever.

둘이 놀았던 비디오 게임중에 이런 구호를 내건 것이 있다: "저들이 너의 친구가 아니라면, 저들은 너의 적이다." 그리고 에요턴디는 그걸 너무 문자 그대로 이해한듯 싶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그는 아더가 됐다. 최악의 멍청이 같은 이름을 골랐네. The news is showing the photos of three girls who have run away to Syria. The police are blaming the school, the school are blaming the parents, and the parents are blaming the police.

The same images they showed yesterday, the same questions they asked yesterday. Last night his Mum kept saying:

I don't understand it.

The boy does.

Him and his mum fled here. The people here are fleeing somewhere else.

Everyone's running.

뉴스는 시리아로 달아난 세 명의 여자 애들 사진을 비춘다. 경찰은 학교를 비난 중이고, 학교는 부모를 비난 중이고, 부모는 경찰을 비난 중이다.

어제도 내보낸 같은 영상, 어제도 물은 같은 질문. 간밤에 그의 엄마는 계속 중얼거렸다. 이해가 안되네.

소년은 이해한다.

소년과 엄마는 이곳으로 도망왔다. 이곳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난다. 모두 달리고 있다.

The boy's in the middle of piercing some man's flesh with a screwdriver in a game. Pretending it's Arthur's. Pretending it's Ayotunde's.

소년은 게임에서 어느 남자의 살을 스쿠루드라이버로 콕콕 찌르는 중이다. 저게 아더지. 저게 에요턴디지 하면서.

지영: 윗 층에서 그 남자가 발 내딛는 소리.

난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 남자 그림자라도 되듯이

그 남자와 발을 맞춘다.

난, 당신을 이해해요.

난, 그 마음 알아요.

그 남자와 함께

비밀 키를 꺼내고,

(소년과 동시에) 현관문을 연다.

-Jiyong: Sounds of him stepping out on the upper floor.

As if I am his shadow living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I pace along his footsteps.

I, understand you.

I, know what you feel.

With him,

Take out the secret key,

(At the same time as Boy) opens the front door,

Boy: When the front door clicks.

소년: 현관문이 찰칵할 때.

지영: (현관문을 열며) 적들을 맞닥뜨리는 찰나

Jiyong: (Opening the front door) It's the moment facing the enemies

집 안.

할머니와 아빠가 기분 좋게 술자리를 하고 있다. 둘 다 살짝 취한 모양새다. 지영, 잠시 멈칫한다.

Inside her Apartment.

Grandma and dad keep each other company for a drink in a good mood. Both of them are a litt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alcohol. Jiyong, holds back for a short while.

할머니: 밥 먹언?

Grandma: Have you eaten?

Boy: (Mum) Have you eaten?

소년: (엄마) 밥 먹었니?

아빠 : 이, 지영! 어, 우리딸~ (다가와서 지영을 안으려고 한다. 지영, 어색해서 살짝 피한다. 아빠, 서운함과 민망함을 감추려고 정색한다.) 왜 이렇게 늦었어?

Dad: Oh, Jiyong! My daugther~ (He tries to hug her. Jiyong backs away, embarrassed. Dad puts on a serious face to hide his hurt feeling and embarassement.) Why are you home so late?

Boy: Why are you home so early? (Mum) I…I wasn't needed as late.

And mum smiles.

But the boy can read her.

소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응...일이 일찍 끝났어. 그리고 엄마는 미소를 띤다. 그러나 소년은 엄마 속을 읽어낸다.

할머니: (소주잔을 들고 흥얼거리며) 지영아. 이레 왕(와서) 지지미 좀 먹어보라. 맛이 기막혀. 사는 게 뭐 별거라. 영 가족들 모영 맛있는 거 고치 먹으민 그게 사는 맛이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Grandma: (*Holding the shot glass and humming*) Jiyong, Have a bite of this monster pancake. Delicious, delicious. Don't take life so seriously. All you need is good food and your good family. Eyeodo sana~ Eyeodo sana~

아빠 : (웃으며) 아빠 말대로 우산 챙기길 잘 했지? 어른 말 들어서 손해 볼 거 없다니까.

Dad: (Smiling) Wasn't it good to listen to your dad and bring the umbrella? It always pays to listen to the adults.

Boy: And later he hears her on the phone, speaking in the language of her country 81

Because she forgets that despite the cocopops the boy still understands it.

She lost her job. The lady at one of the houses she cleans says she stole something. Which isn't true. The lady has dementia in any case. But the agency didn't have a choice but to let her go.

소년: 그리고 조금 후에 엄마가, 엄마 나라 말로 전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코코팝 시리얼을 아무리 먹어도 소년이 아직도 그 말을 알아 듣는다는 사실을 엄마가 잊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는 직장을 잃었다. 엄마가 청소 다니는 집들 중 한 곳의 여주인이 엄마가 뭘 훔쳤다고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어쨋든 그 여주인은 노망이 들었다. 그렇지만 직업 소개소는 엄마를 해고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할머니: 아고 좋다, 아고 좋다. 비 오난 막 지꺼졈저. 꼭 바당 소곱에 이신 거 닮아. (물질 하는 폼으로) 후여 후여~ 지영아, 글라(가자). 전복이영 성게영 구젱기(소라)영 ㅁㆍㄴ(모두)... 나가 똑 지영이만 헐 때주. 순이 어멍이영 처음 바당에 들어신디이, 숨은 쫄르곡, 눈 앞이 왁왁호영 호나도 안보여. 숨통 그차지게 막 아팡 버둥댐신디, 아, 초초 뿌연 게 걷히난 순이 어멍이 요 앞이 신거라. 어평사 반가운지사... 고치(함께) 손 심엉 우(위)로 우로 물 우로 쑥 머릴 내미난, 호오이~ 호오이~ 숨비소리가 절로 되어. 이야, 나 살앗저. 순이야, 나 살앗저.

I was just at Jiyong's age. It was the first day that Suny's mom came to dive, I couldn't breathe, I couldn't see anything, I couldn't breathe I knew I was going to die, hew, finally it was getting clear and look, Suny's mom wa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How glad I was to see her there… together holding hands moving up and up and above the water, Hoy~ hoy~ automatically breathing the Jeju woman diver's breath. Hey, I am alive. Suny, I am alive.

Grandma: Oh yeah, oh yeah. Rain makes me feel ziquizumzeo. It's just like badang sogobe ishingyeo. (In the picking sea creature motion of a Jeju woman diver) whoyeo whoyeo — Jiyong, Geulla. Abalone, sea urchin and guzengi yong neun...

지영 : 지까... 소곱... 글라... 안직... 구젱기...

수신 불가. 바닷물을 뚝뚝 흘리며 흩어지는 제주말들.

<u>할머니는 내가 제주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믿는 걸까. 단지 할머니 손주라는 이유로?</u> 바닷물을 뚝뚝 흘리며 흩어지는 제주말들.

할머니는 내가 제주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믿는 걸까. 단지 할머니 손녀라는 이유로?

Jiyong: Zigui sogob...geulla...anzig...guzengi --

No reception. Jeju words scattered dropping salt water.

Does Grandma believe that I understand Jeju words. Only because I am her granddaughter?

할머니: (지영의 시각으로 약간 과장되개) 나 숨...하도 질엉(길어서)... 요왕 할만 ㄸㅗㄹ... 앞 봘라(앞길 열어)줍서... 그추륵... 지추륵... 느 아방... ㅎㅗㅋ조(학교)영... ㅁㅗㄴ딱(모두)... 처라 처라~

Grandma: (A little exaggeratingly from the Jiyong's perspective) Na sum… too jilang…
Yowang halmang Tdi*leul… opp ballajupseo… geuchuruck… jeochuruck… neu abang… h g
joyong…mn tdack… cheura cheura~

(101-102 p)

아니. 사실은 바다가 또 그리운 거겠지. 어린 시절, 할머니는 나보다도 더 방학을 기다렸다. 방학이 되면, 날 데리고 제주 고향집으로 날아갔다. 난, 육지에서 온 손녀딸, 이혼한 아들네 딸이라는 수군거림이 싫어 날마다 집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고

할머니는 날마다 바다에서 사느라 얼굴이 현무암처럼 새까매졌다.

Jiyong: Meaning you got ripped off for abalones????

Seriously, I believe she is missing the sea.

When I was young, grandma had been waiting for the summer break more than I did. Every break, I accompanied her to Jeju Island home.

I, her granddaughter from the land, hated their back talk of my being the child of her divorced son

And kept reading books at home every day

And grandma stayed out in the sea, and got darker like basalt every day.

(지영의 기억)

(Jiyong's memory)

할머니: (물질을 다녀오며) 지영아~ 오늘은 뭐 헹 먹으코? 전복도 싯고, 문어도 싯고, 해삼도 싯고... 다 할망이 잡아시네. 할망이 배운 건 어서도 물질 하난 일등이지이? 우리 지영이도 아방 닮앙 일등해불라이.

Grandma: (Coming back from diving) Jiyong~ What do you want to eat today? Abalone sitgo, octopus sitgo, sea cucumber sitgo… your grandma caught them all. Grandma is the best although didn't get the education, right? My Jiyong will get the first in school like your dad.

지영: 일등?

Jiyong: First in class?

할머니: 오게. 일등.

Grandma: Right. First in class.

지영: 나, 먹는 거 일등이잖아.

Jiyong: I, am the first in eating.

할머니: (웃으며) 기여 기여. 잘 먹는 게 최고주. 하영 먹으라이.

Grandma: (Smiling) right right. Having a good appetite is the best. Eat as much as you'd like.

지영: 초등학교 4 학년부터 방학을 기다리기 시작한 건 아빠. 날 데리고 학원 여기저기를 등록하고는 할머니 방학도 없애 버렸지. 난, 철부지 딸, 머리 나쁜 아빠랑 하나도 안닮은 딸이라는 수군거림이 싫어 날마다 열심히 학원을 다녔지만 성적은 그게 그거.

할머니 얼굴만 아파트 콘크리트처럼 조금씩 하얘져갔다.

Jiyong: It was dad waiting for the break from the fourth grade.

Having registered for the preparatory schools everywhere, and taken away grandma's break.

I, hated their back talk of me not looking after my dad at all. the indiscreet kiddie, ungrateful daughter

Attended the preparatory schools diligently but my grade stayed the same.

Only grandma's face got paler and paler.

할머니: 기철아, 막걸리 가졍오카.

기철:됐어요.

할머니: 마농 짱아찌 맛있게 익어선게 좀 가졍오마.

기철: 됐다니까. 물이나 좀 줘요.

할머니: 기여 기여. (일어선다. 여전히 쭈뼛거리고 있는 지영을 본다.) 뭐 햄시? 식으믄 맛 엇나.

기철: 할머니, 내 핸드폰도.

할머니: 기여 기여. (얼른 물건들을 챙겨들고 아빠한테 간다.) 마.

지영: 나, 들어가서 공부할래..

아빠 : 우리 딸 철들었네.

할머니: 너미 안 먹엉 큰일이여.

아빠 : 밖에서 사 먹겠지.

할머니: 몸에 좋지도 않은 거... 기철아, 시간 나는 순이 어멍신디 좀 댕겨 오라. 서울대 병원 알아지지이?

아빠 : 오늘 다녀왔다며? 가족 대표로 갔음 됐지 뭘. 문병 자주 하는 거 환자한테도 안 좋아요.

할머니: 정해도... 너미 안좋아 보영... 자식 못 낳았댄 평생 고생만 하곡... 너 잘도 예뻥해신디...

아빠 :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자, 건배! (잔을 부딪히며) 건배! 할머니, 오래오래

Grandma: Hey Kichul, Let me bring over the Makgulli.

Kichul: Forget it.

사세요.

Grandma: Let me bring over the Garlic Jang-a-tsi, it's picking up the flavor.

Kichul: I said, forget it. Give me some water instead.

Grandma: ok ok. (She gets up and sees that Jiyong is still acting shy) What are you doing?

The food won't be good cold.

Kichul: Grandma, and my cellphone too.

Grandma: ok ok. (Brings the water and cellphone to dad) Here.

Jiyong: I'm going in to study…

Dad: She's a good girl now.

Grandma: She doesn't eat a lot.

Dad: She must eat out.

Grandma: That's not good for her… Kichul, when you get the chance, go visit Suny's mom.

You know she's admitted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d: I thought you went today? As long as you represented our family, it's all good. It's not good to visit a sick person so much.

Grandma: But… didn't look very good… couldn't have kids and suffered too much… she cared for you…

Dad: If you're sick, go to the doctors, if you need medicine, go to the pharmacist… Now, Cheers!

Dad: (Toasting with a glass) Bottoms up! Grandma, long live grandma.

지영: 어쩌면 할머니는 제주말 속에서 고향을 되새김질 하는지 몰라.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동안 늙어가는 게 슬퍼셔,

자식의 자식까지 젖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개 슬퍼서,

물질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몰라.

흥, 할아버지였음 오래 살라고도 안하겠지.

궂은 일은 다 할머니 시키고, 자기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잘난 척, 멋진 척...

여우같은 태희는 몇 번이나 얻어탄 그 차를

할머닌 한 번도 못 얻어 탔지.

밤마다 우는 나를 포대기로 업고

아빠 잠 설칠까봐 동네 몇 바퀴를 돌고 돌다

내가 잠들고, 아빠가 잠들면 겨우 쪽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 아침밥 짓고, 걸레질 하고... 아아, 난 절대 결혼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손주도 안 키워. 엄마 안 해. 할머니도 안 해. 그런데, 할머니를 제주 바다에서 덥석 꺼내 온 게, 이게 다 날 위해서라고? 나 때문이라고?

Yuck, if it was grandpa, he wouldn't even say "long live."

He made grandma do all the dirty work, and he's the one riding the expensive car and pretending to be a rich, hotshot…

That fox of Taehee rode it multiple times

And grandma never even got to ride it once.

Every night she wrapped me in a blanket while I was crying

And walked around the neightborhood for the fear of waking dad up

She took a quick nap when I fell asleep and dad fell asleep

And got up again to prepare breakfast, mopped the floor...

Ahhh, I will never get married. I won't have kids. No grandkids. I won't be a mom. Won't be a grandma.

But, the reason why we plucked her away from the Jeju sea was because of me?

Jiyong: Perhaps Grandma ruminates her hometown over with Jeju words.
Saddened by her growing old while moving from apartment to apartment,
Saddened by her child and child of that child clinging to her breast,
Probably that makes her keep ruminating picking—sea creature—in the salt water talk.
By the way, picking up grandma in the Jeju water once and for all, it is all for my sake?

Dad and Grandma continue drinking during the following:

아빠와 할머니 다음 장면 동안 계속 술을 마신다.

Boy: When the boy was younger he would sometimes go with his mum, like on half term or in the summer holidays.

Don't touch anything.

And you wouldn't want to. The way some people live.

Mum was giving her the lady a bath so the boy examined her collection of dog figurines. Sitting in a glass case that Mum would have to dust after. Framed watercolour prints of dogs with the logo of a dog's home in the corner. This was her free gift for having a direct debit to some puppy charity.

And the boy thought: in our country there were people with no money to eat. And so we came here so Mum could wipe some old lady's arse and we could still have not enough money to eat because this woman was sending money for a new pillow for a Chihuahua. And the boy, in a moment of anger, or vision, or protest,

소년이 더 어렸을 적에는 중간 휴가나 여름 방학 같은 때는, 가끔 엄마가 일하는 곳에 따라 가기도 했다.

아무 것도 만지지 마.

뭐 사실 만지고 싶지도 않다. 어떤 사람들은 참 사는게.

엄마는 소년이 여주인이 수집한 자그마한 강아지 조각상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여주인을 목욕시켰다. 엄마가 조각상을 모셔둔 그 유리 진열장 먼지를 털어야 했을 것이다. 한 귀퉁이에 강아지 입양 기관의 로고를 새긴 강아지 수채화 인쇄를 넣은 액자. 그 여주인이 강아지 자선 단체에 자동 이체를 하고 받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생각했다: 우리 나라에는 음식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왔고 그래서 엄마가 어느 노파의 엉덩이를 닦아줬고 그래도 아직도 음식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건 이 늙은 여자가 치화화 강아지를 위해 새 벼개 살 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분노의 순간, 아니 통찰의 순간, 아니 저항의 순간,

지영, 굳센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간다.

Jiyong, enters the room with firm steps.

지영: (방문을 닫으며)우릴 못미더워하는 어른들은 출입금지.

Jiyong: (Shutting the door) Off limits to suspicious adults.

Boy: grabbed one of the frames

소년: 액자 하나를 거머쥐고

지영: (방문을 닫는다 화장대를 바라보며) 우린 이겨야 해.

Jiyong: (Looking at the vanity) We must overcome.

Boy: and threw it against the wall.

소년: 벽에 던졌다.

지영: (책상 화장대 위로 올라가며) 모든 혼란을 없애야 해.

Jiyong: (Stepping on top of the desk the vanity) We must clear all confusions.

Boy: Smash.

Crack.

소년: 쨍.

부지직.

화장대 거울에 금이 간다. 그 틈새를 뚫고 바닷물이 쏟아져 나온다.

The vanity mirror cracks. Through the cracked mirror, sea water comes pouring out.

지영: (천장을 만지며) 오직 우리만 서로를 알 수 있어.

Jiyong: (Touching the ceiling) Only we understand each other.

(빗소리)

(Sound of rain)

Sound of rain getting louder. The boy seeks refuge in his bed.

Jiyong's desk vanity starts slowly turning while she stands on it during the following:

점점 커지는 빗소리.

소년 침대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지영의 책상 화장대, 지영이 올라 서있는 다음 장면 동안 천천히 회전을 시작한다.

Boy: In bed he dreams of him and the Girl. The two of them in combat gear, with machine guns, waving black flags, burning things.

He dreams of them adopting a dog from a dog's home.

He dreams of them roasting the dog when there's nothing left to eat.

He dreams of her crying, and he takes the dog out of the oven and it licks their faces. And how the dog licks her face to comfort her.

He hears Mum crying in the next room.

He thinks of going to hug her.

He wants to.

He knows he should.

But his legs won't move. They're on fire.

소년: 침대에 누워 소년은 자기와 그 소녀를 상상한다. 그들 둘이는 전투복을 입고, 기관총을 차고, 검은 깃발을 흔들면서. 물건들을 태우고 있다.

소년은 둘이 강아지 입양 센타에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을 상상한다.

소년은 둘이 먹을 것이 하나도 안남아서 강아지를 통구이하는 것을 상상한다.

소년은 소녀가 울부짖자, 오븐에서 강아지를 꺼내고 강아지가 둘의 얼굴을 핥는 상상을 한다.

소년은 옆 방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는다.

소년은 엄마를 안아주러 갈까 생각해 본다.

소년은 원한다.

소년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다리가 불 타고 있다.

The Boy's bed starts spinning and as water level rises in the apartment from the rain his bed is taken away by a wave from Jiyong's fantasy.

Water level goes higher in the apartment. The Boy's bed starts floating/turning as the water level rises.

소년의 침대 회전하기 시작하고 쏟아지는 비로 아파트에 점점 더 물이 차오르자 그의 침대는 지영의 환상 속의 파도에 떠내려 간다.

아파트에 물이 차오른다.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소년의 침대 물위에 둥둥 뜨고 회전하기 시작한다.

아파트가 바다에 잠긴다. 지영, 헤엄쳐서 윗 층으로 간다. 남자가 의자에 꽁꽁 묶여있다.

Apartment is under the sea.

Jiyong, swims up to the upper floor.

That man is bound tight to a chair.

지영: (밧줄을 풀며) 모든 혼란을가<mark>족이라는 굴레를</mark> 끊고 (남자 손을 잡고 탈출하며)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Jiyong: (Untying the rope) Cutting off all confusions the yoke of family ties (Holding his hand and escaping) We will hit the road together.

To the world we dream of.

저 멀리, 잠수복 입은 할머니가 나타난다. 이어도사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물망에 잡힌 물고기들을 바다에 놓아준다. 지영과 남자, 그것들과 어우러져 자유롭게 헤엄친다.

From afar, grandma in a wetsuit appears.

Humming Eyeodosana, she releases sea creatures caught in a net to the sea. Jiyong and man, swim free with them.

지영: 자유롭게! 자유롭게!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어.

Jiyong: Freedom! Freedom!

We can be free.

천둥 소리와 함께 쿵! 쿠쿵! 윗 층에서 뭔가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 바다가 사라진다. 지영 혼자 덩그러니 책상 화장대 위에 남는다. 지영, 얼른 책상 화장대 밑에 숨는다.

With a thunder, thud! thump!

Sound of something bumping against hard upstairs.

The sea disappears.

Jiyong is left alone on top of the desk vanity.

Jiyong, hides under the desk vanity in no time.

아빠 목소리: (쿵쿵 소리에 뒤섞여서)

경비실! 경비실! (쿵쿵)

경찰은 뒀다 뭐해 (쿵쿵)

똑같은 관리비에 왜 (쿵쿵)

우리만 왜... 왜... (쿵쿵)

Voice of dad: (Mixed with thud and thump sound)

Front desk! Front desk! (Thud)

What good is the police for! (Thud)

Why do we pay the same amount as everyone else (Thud)

Why are we the only ones suffering why (Thud)

Scene 5. Hot Stain.

장면 5. 뜨거운 얼룩.

Boy: Criminal to be teaching us maths in this weather. Hotter in there than it is out here.

소년: 이런 날씨에 우리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범죄야. 여기 바깥보다 저 안이 훨씬 덥다.

Girl: How they control the masses, keep us obedient.

소녀: 어떻게 저들은 대중을 조종하지, 고분고분하게 만들지.

He undoes his school shirt, takes it off so he's just in his vest underneath.

소년 교복 셔츠의 단추를 풀어 벗어 버려서 조끼 바람이다.

Boy: Aren't you roasting in that?

소년: 그렇게 입고 있으면 푹푹 찌지 않니?

Girl: I'm fine.

소녀: 괜찮아.

Boy: At least roll up your sleeves. It's making me sweat just looking at you.

소년: 소매 만이라도 걷어.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다 땀이 날 지경이다.

Girl: At least I won't get cancer this way.

소녀: 적어도 이러고 있음 암에는 안 걸리니까.

Boy: We're all going to get cancer. If it's not the sun it will be the excess car fumes or our mobile phones or Coca-Cola or whatever new thing they find that causes cancer.

93

소년: 우리는 모두 암에 걸리게 되어 있어. 태양이 아니라도 과다한 자동차 배기 가스나 핸드폰이나 코카 콜라나 뭐든 저들의 신발명품이 암을 유발한다고.

Girl: (Smiles) You're probably right.

소녀: (*미소짓는다*) 아마 네 말이 맞을 거야.

Boy: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climb trees with – …with my friend. And we'd try to touch the sun. It seemed so close, so possible, you know? And then one day we just stopped trying.

I don't know what I mean by that. I don't know why I told you that.

소년: 어렸을 적에는 나무에 기어올랐댔어 그러니까 -...친구랑. 그리고 우리는 태양을 만져 보려고 했지. 바로 닿을 것 같더라, 가능한 일 같았어, 알아?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애 쓰는 짓을그냥 그만 뒀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너한테 이 말 왜 하냐.

Girl: My parents friends used to joke I was 9 going on 49. And they'd laugh, my parents too. It never occurred to them I didn't have a choice when they were at work all the time. Like what did they expect?

And one time we fought, this is so classic of my parents, because daddy came home early from work which for him is like 9 pm. Smelling like whisky or whatever they drank at the work meeting he had and he was angry because I'd left my paintings in the hallway to dry and he'd stepped in one getting smears of red all over his new shoes.

One day Daddy came home early – which for him is like 9pm. He reeked of whisky. And then he stepped in a painting I'd left drying on the hallway tiles. Red footprints now everywhere.

Why can't you ever clean up? Do you how much those tiles cost? You seem absolutely set on devaluing our house every single day.

So I shouted: Well maybe if you were home you could clean up! Maybe if you did what normal parents did? Like cook food to put on the table –

- And what do you think I do every day? What do you think pays for that food? You think I wouldn't like to be home like your friend's parents watching reality TV everyday at 4pm? at 4pm everyday, watching reality TV like your friends' parents? Who do you think I work like a dog for? For you, that's who! For this family!

He could kid himself But I knew he did it for himself. Not for me. I was so incensed that I started smearing the red paint all over the tiles. Well I don't want any of this! I just want a normal family.

He watched me destroying his precious tiles. I thought he was going to hit me. But he just watched and quietly said: Why can't you be more like your sister, you ungrateful bitch. And I knew then, not even in retrospect, right then, in my 9 year—old head, that I wasn't a child anymore. That was the end.

소녀: 우리 엄마 아빠 친구분들이 농으로 아홉 살짜리가 꼭 49살 중늙은이 같다고 하셨었지. 어른들이 웃고, 우리 부모님도 웃고. 어른들은 자기들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내가 뭐 다르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건지?

그리고 한 번은 싸움이 났어, 전형적인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지, 위스키인지 뭔지직장 회의에서 마신 술 냄새를 풍기면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복도에 말리려고 내놓은 그림을 밟는 바람에 새 신발이 온통 빨간 색으로 얼룩덜룩 해졌다고.

좀 치우면 안 되니? 저 타일이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널 보면 아주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매일마다 작정한 애 같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거든. *아빠가 집에 있음 아빠가 치울 수 있겠네! 정상적인 엄마 아빠처럼* 한다면 말야? 밥을 해서 식탁에 올려 놓으면-

그래 내가 매일 뭘 하는 것 같니? 그 음식은 무슨 돈으로 사는데? 네 생각엔 나는 네 친구 부모들처럼 매일 저녁 4 시에 리얼 TV 보는 걸 안 좋아할 것 같니? 네 생각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개처럼 일할 것 같니? 바로 너야. 너라고! 이 가족을 위해서야!

아빠가 자신은 속일 수 있겠지만 아니 난 알아 아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냐. 난 너무 성질이 나서 타일 사방에 페인트를 문질러 대기 시작했어. *이런 거 다 싫어! 난 그냥 정상적인 가족이면 돼.*

아빠는 내가 자기의 소중한 타일을 망가뜨리는 것을 쳐다봤어. 나를 치겠지 싶더라. 그런데 아빠는 그냥 쳐다만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 *너 네 언니처럼 하면 안되냐, 은혜도 모르는 망할 년.* 그리고 그때 난 알았어,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홉 살짜리의 머리로 나의 유년이 끝난 것을. 끝이 났어.

(An airplane flies overhead and they watch it.)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둘이 그것을 바라본다.)

Girl: I keep thinking about that plane on the news. The one that just disappeared.

소녀: 계속 뉴스에서 본 그 비행기 생각이 나네. 최근 실종된 비행기.

Boy: Me too. Do you think they'll find it?

소년: 나두. 찾아낼까?

Girl: Doubt it. Not if it doesn't want to be found.

소녀: 아니. 발견되기를 원치 않으니 못 찾을 거야.

Boy: That doesn't make any sense.

소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She shrugs.)

(소녀 어깨를 으쓱한다.)

Boy: My mum just kept saying *I don't understand it*. Though granted she says that about just about everything on the news.

And those poor families. It's one thing to have someone die, but to not know. To not know where they are or what happened. For them to just… disappear.

소년: 우리 엄마는 계속 난 이해가 안되네 그래 . 엄마 스스로도 인정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다 이해가 안된대.

그 가족들이 불쌍하지. 가족이 죽는 것도 힘들지만, 생사 여부를 모르는 것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건 또 달라. 가족들한테는 그냥...증발이야.

Girl: Maybe no peace for the families, but for the people...

소녀: 그 가족들한테 평화는 불가능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

(She pours some water on the ground. They watch it evaporate in the heat.)

(소녀가 바닥에 물을 조금 붓는다. 둘이는 그것이 열기 속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본다.)

Girl: Watch it just ... vanish. Wouldn't you do that if you could? Freedom.

소녀: 저거 봐 그냥...사라지지. 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안 하겠어? 자유.

(She takes off her shoes and socks.)

(소녀 신발과 양말을 벗는다.)

Boy: I knew you'd succumb. You can't hide beneath those clothes forever.

소년: 네가 항복할 줄 알았다. 언제까지 그 천조각 밑에 숨어있을 수는 없거든.

He does the same, but quickly finds the floor in the heat is burning.

소년도 똑같이 한다, 하지만 금새 바닥이 열기 속에 절절 끓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Boy: Shit, that's completely we! Ow! There's nowhere to stand, it's actually burning -

소년: 칫, 이건 완전...앗! 앗! 설 곳이 없잖아, 이건 진짜 끓는 거네 -

(He's hopping about wildly.

Finally he wraps himself around a pillar to be off the ground, looking ridiculous.)

(소년은 미친듯이 깡충거린다.

마침내 소년은 우스꽝스럽게, 기둥에 몸을 감아 바닥에서 떨어진다.)

(She laughs.)

(소녀가 웃는다.)

Boy: How are you just standing there?

소년: 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서있니?

(She shrugs.)

(소녀가 어깨를 으쓱한다.)

Boy: Doesn't it burn?

소년: 화끈거리지 않아?

Girl: Yes.

소녀: 화끈거려.

Boy: So how are you doing that? Isn't it painful?

소년: 그런데 어떻게 가만 있어? 고통스럽지 않아?

Girl: Yes but you just ... own the pain. Transcend it. Let it release you.

소녀: 응 그래도 그냥...고통을 내 것으로 하는 거지. 그걸 뛰어 넘어. 고통이 너를 놔 주도록 하는 거지.

(She holds out a hand. He hesitates. Climbs down and hops over to her. Takes her hands. He's hopping in place.)

(소녀가 손을 내민다. 소년 망서린다. 바닥으로 내려와 소녀에게 깡총 뛰어간다. 소녀의 손을 잡는다. 소년 제자리 뜀박질을 한다.)

Girl: Just stand still.

소녀: 그냥 가만히 서있어 봐.

(He does.)

(소년 그렇게 한다.)

Boy: I can't, I can't, I need to -

소년: 난 못해, 난 못해, 난 난 난 -

(She grips his hands tighter, not letting him go.)

(소녀 그의 손을 더 꽉 잡고, 놔주지 않는다.)

Girl: Just focus on…

소녀: 그냥 집중해 봐…

Boy: You?

소년: 너한테?

Girl: No. On the pain. The moment that follows.

소녀: 아니. 고통에. 매 순간 순간에.

(He settles into it holding his breath, eyes squeezed shut, her holding his hands.)

(소년은 숨을 멈추고, 눈을 꽉 감고, 자신의 손을 쥔 소녀, 이 모든 상황에 젖어든다.)

Girl: Breathe out.

Open your eyes.

소녀: 숨을 내쉬어.

눈을 떠.

He does. She kisses him.

It's a surprise to him so he slightly hesitates.

Then he kisses her back, still holding her hands, feet on the burning floor.

She moves closer as they kiss, placing her feet on top of his.

His breath quickens and he moans in pain and delight at once.

(소년 그렇게 한다. 소녀가 그에게 키스를 한다.

돌발 상황이라 소년은 살짝 망설인다.

그리고 소년도 소녀에게 키스를 한다. 아직도 소녀의 손을 쥔 채로,절절 끓고 있는 바닥에 발을 올려놓고.

키스를 하면서 소녀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발을 소년의 발등에 올린다.

소년의 숨이 가빠지고 고통과 환희을 동시에 느끼며 신음한다.

(Schoolbell rings.)

(학교 종이 울린다.)

(The boy arrives home. Sits down at his mother's dressing table, He's still euphoric from the kiss at school.)

Boy: The boy can't stop smiling!

(He catches himself in the mirror, Is embaressed.)

Until he catches himself in the mirror. And everything that made him happy seems to evaporate like the water on the roof.

Smiling doesn't suit him. And anyway, he's got wonky teeth.

Who would actually be attracted to a face like this?

(He pulls out a scrunched up pamphlet from his pocket.)

White teeth mouths enticing you to join them.

Fresh-faced boys with helmuts.

Ponytailed girls in sunlit grass.

The boy who gave him the pamphlet couldn't have been much older than he is. Grinning from behind the booth set up in the school corridor. Hilighting for him everything that's wonderful about the ARMY. The same things in bold in the pamphlet. (Perhaps these words can be projected as he says them/reads them.)

DISCIPLINE. COMMUNITY. FRIENDS.

BELONGING.

And of course, you get paid too. Did you know that? the young man had asked him. 14,000 pounds a year, and that's just start with. 18,000 by the time training finishes.

The boy scans the pamphlet again, looking for the young man's face. Is he here, blending in amongst the helmeted faces?

And the boy thinks of his Mum, in her cleaning uniform.

And he thinks of Raj in his cheap suit.

The two of them up every morning ironing their clothes, rubbing out creases,

Proud in what they wear, proud in their new country.

Somehow unaware that all people see is their clothing, not the person wearing them.

So they'd be better off not wearing them at all.

And the boy remembers the red dress his mother used to wear in their country. The yellow scarf. Purple earings.

And if it is so much better here then why is it all she can wear now is grey and brown and black.

Boy: There's an education fair at school, but barely any unis have booths. Someone somewhere has already decided most of them won't be going to university. So aside from ones you've never heard of, there's some *practical* colleges — woodworking, cooking,

hair dressing.

And then there's a display with young men who could come from an Abercrombie ad. Except they're all in green.

Fresh-faced boys with helmuts.

Ponytailed girls in sunlit grass.

White teethed mouths enticing you to join them as they hold guns like pet dogs in their arms.

One of the boys manning the booth, doesn't look much older than the boy, catches his eye.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ll do after school is done?

Seriously, best thing I ever done.

I didn't have a clue what I'd do, didn't have the grades, but found a real sense of my abilities in the army.

Discipline, community, friends. Belonging, you know? And not to mention the money. You get paid, did you know that? It's a job.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I didn't. 14,000 pounds a year. And that's just to start with. Almost 18,000 by the time training finishes.

The Boy scans the talking boy's face and then the faces in the photographs.

Is he here?

Blending in amongst the helmeted faces?

The boy says nothing but he takes one of the pamphlets.

소년: 학교에서 진학 설명회를 하지만, 부스가 있는 대학교는 거의 없다. 어디서 누군가가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한 번도 들어 보지도 못한 학교들 외에는, 실업 학교 부스가 있을 뿐이다 - 목공.

유리

미용.

그리고 아버크롬비 광고에서 볼 법한 젊은 남자들이 나온 전시물.

다른 점은 이들은 모두 녹색 제복을 입었다는 점.

안전모를 쓴 앳된 소년들.

햇빛이 쏟아지는 풀밭에 서있는 머리를 묶은 소녀들.

마치 애완건 인냥 팔에 권총을 끼고서 합류하라고 유혹하는 하얀 치아를 드러낸 입들.

소년 또래나 됨직한, 부스를 자키고 있는 소년들 중 한 명이, 소년과 눈이 마주친다.

졸업하면 뭐 할지 생각해 봤니?

진짜 진짜, 내가 한 일중에서 젤로 잘 한 일 같아.

무슨 일을 할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다가 군대에서 진짜 내 능력을 발견한 거야.

규율, 공동체, 친구들. 소속감, 알아?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월급도 받아 ,그가 알았냐? 직장이라고. 대부분 그걸 모르더라. 나도 몰랐거든. 일년에 14,000 파운드.(2,400 백만 원) 그건 초봉이고. 훈련을 마칠 때에는 거의 18,000 파운드 (3100 만 원).

소년은 말하고 있는 얼굴을 또 사진 속의 얼굴들을 낱낱이 살펴 본다.

재도 사진에 있나?

<u> 안전모를 쓴 얼굴 사이에 섞여 있나?</u> 소년은 아무 말없이 팜플렛을 하나 집어 든다.

Raj is in there with a joke and a wink as the Boy picks up food and cigarettes.

Raj is desperate to be noticed, to make a life for himself here.

The boy is trying desperately not to be noticed.

Raj hasn't figured out that he'll never fit, never be noticed for the right reasons.

So better not to be noticed at all.

소년이 음식과 담배를 고르는 동안 라지가 저 쪽에서 농담을 하고 윙크를 날리고 있다. 라지는 필사적으로 주목받고, 이곳에서 살아 내보려고 한다.

소년은 필사적으로 주목받지 않으려고 애쓴다.

라지는 자기가 절대로 주류 사회에 까지 못할 것을, 멀쩡한 이유로는 절대로 주목받지 못할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차라리 아예 주목받지 않는 것이 최고인데.

월, 화장대 앞에 앉는다. 지영 또한 화장대 앞에 앉는다. 소년과 지영이가 화장서랍 안을 뒤지고 화장품을 꺼내 화장하는 모습이 서로 약간 들뜬 기분 속에서 교차된다.

Will, sits down at his vanity. Jiyong also sits down at her vanity. As the boy and Jiyong go through the vanity drawers and try out different make up, they are shown in a bit buoyant spirit alternately.

Boy: At home he burrows through his Mum's make-up drawer.

Finds some black lipstick.

That'll do.

(The boy draws lines under his eyes like war paint. Smears it.)

(The boy looks at the pamphlet again. Then he undoes his tie, and puts it around his forehead like a warrior bandana.

He ruffles through his mother's drawers. Finds some black lipstick.

Draws lines under his eyes like war paint. Smears it. But he can still see himself so he tries with more and more.)

집에서 엄마의 화장서랍 안을 뒤진다. 검은 색 립스틱을 발견한다. 이거면 되겠다. (소년은 전투에 대비하듯 눈 밑에 줄을 긋는다. 문지른다.)

지영: (들떠서 가만 있질 못한다.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심호흡 했다 하며 어쩔 줄을 모른다.) 이건... 운명이야. 운명... 심쿵! (입을 막고 키득거린다) 우우~ 살짝 눈인사 한 거 맞지? 맞지? 아, 엘리베이터에 딴 사람들만 없었어도... 되게 말하고 싶은 눈치드만... 내 손 덥석 잡고 엘리베이터를 뛰쳐나가지... 내 폰 번호라도 따지... 아님 내가? 아, 또 보고 싶다. (화장품들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그 남자도 내가 보고싶을까? 이럴 줄 알았음 화장법 좀 배워둘걸. (휴대폰을 검색하며) 십대 화장법... (얼굴에 화장품을 문지른다.)

Jiyong: (too excited to sit still. Keeps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and taking deep breaths, just floating on air.) This is... my destiny. Destiny... pounding heart! (Giggles covering her mouth) Oh yeah~ Is it right we exchanged nods? Right? Ah, if there were no other people in the elevator... He was all shook up to speak to me... Why didn't you hold my hand and burst out of the elevator... Why didn't you ask my phone number... Or should I? Ah, I miss him. (Taking out makeup and playing with them) Would he miss me too? Well I should have learned how to wear makeup. (Searching the web on her cell phone) Teenager makeup... (applies makeup on her face.)

BOY: He looks in the mirror. But he can still see himself. 기울을 들여다 본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다. No matter how much Mum or Raj try, they can't be seen. And no matter how much the boy tries to change, to disappear, he can still see himself.

He tries to wash off mum's make-up but a heavy stain remains.

(지영, 소년과 동시에 거울을 들여다 본다. 한숨을 내쉰다.)

(Jiyong, looks in the mirror at the same as the Boy does. Sighs.)

He tries to wash it out but a heavy stain of it remains.

(Mum appears.)

What happened? Did you get in a fight?

No.

Tell me.

I didn't! Why do you never believe me?

Well then what happened to your face?

It's just mud. From PE.

Go have a bath. Later. I need to have one first. I have an interview.

닦아 내려고 하지만 짙은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다.

무슨 일이야? 싸웠어?

아니.

말해봐.

아니라고! 왜 날 한 번도 안 믿는 건데?

그래 그럼 얼굴이 왜 그모양이니?

진흙이야 그냥. 체육 시간에.

목욕해라. 나중에. 나 부터 먼저 해야겠다. 인터뷰가 있어.

The boy eats his spaghetti-o's. Different noodle-faces drowning in the red soup. Screaming for help-as he swallows them whole, their cries echoing in his belly.

The news is showing election polls.

A man is talking about how immigrants are stealing all the houses.

소년은 즉석 스파게티-O 를 먹는다. 빨간 국물에 빠진 여러 가지 얼굴 모양의 파스타들. 살려 달라고 소리치네… 소년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니, 그들의 비명이 소년의 뱃속에서 메아리 친다.

뉴스에서 선거 개표 상황이 비친다.

한 남자가 이민자들이 어떤 식으로 주택들을 모두 가로채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지영의 집 TV 에서도 동시에 BBC 뉴스가 흘러 나온다.

학원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지영.

자기 방으로 가기 위해 할머니와 아빠 앞을 지나는 동안, 상상 속에서 뉴스 리포터가 되어 가족들의 새로운 소식을 중계한다.

Jiyong's household TV is also showing BBC World News at the same time.

Jiyong getting back home from the preparatory school.

While passing grandma and dad to get into her room, she fancies herself as a reporter and broadcasts the newest family news.

지영: (걸레질 하는 할머니 앞을 지나며) 1503 호 뉘우스! 노인 사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지난 달 할머니가 약장수한데 산 건강보조제가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청구서를 보면…

Jiyong: (Passing her grandma mopping) Unit 1503 news! While fraud for the olds are seriously rampant, last month grandma was charged big due to the health supplement she bought from the charlatan. The bill shows...

Boy: Another story is showing a graph of rising house prices and how young people today will never be able to buy a house when they're adults.

(He smiles again.) And he thinks of him and the girl living in a tent under the stars, somewhere no one can find them.

He remembers the wet of her mouth. Her taste of spearmint.

He closes his eyes and tries to render her smell.

Opens his eyes. Sees:

소년: 다른 뉴스는 주택 가격의 오름세를 도표로 만들어 현재의 젊은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절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영 : (컴퓨터 작업 하는 아빠 곁을 지나며) 최근 부기철 씨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룩의 용의자는 술집 여자 아니면 직장 동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Jiyong: (Passing her dad working on computer) Recently the incident of finding a lipstick mark on Bu Geechul's Y-shirts is increasing. Allegedly those new stains belong to his colleague or barmaid...

Boy: Crying faces in an airport. The loved ones wanting news on the missing plane.

A reconstruction shows all the possible places the plane might have disappeared.

It's there.

And then it's not.

소년: 공항에서 울고 있는 얼굴들. 실종 비행기에 관한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재구성표가 비행기가 사라졌을 법한 모든 장소들을 보여준다. 저 곳입니다. 그리고 아니군요.

지영: (방으로 들어가 윗층을 올려다보며) 어제 1603 호에서 터진 심각한 내전으로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지영 양이 에타게 그 남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9층 사건으로 적군에서 동지로 변한 그 남자가 하룻밤 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문이 열릴 것인지…

Jiyong: (Entering the room and looking up upstairs) While the serious civil war broken in unit 1603 yesterday has fueled commotion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Jiyong Bu is said to look for that man anxiously. The ninth floor incident transforms their relationship status from enemy to friend; however whether it would end up as one night story, or a new opportunity would open...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다.)

(Grandma, opens the door and enters.)

문 두드리는 소리.

Knocking on the door.

할머니: 지영아! 지영아!

지영: (화들짝 놀라며) 자...자...잠깐만!

Grandma: Jiyong! Jiyong!

Jiyong: (Startled) Wai..wai···wait a minute!

지영, 물티슈로 얼굴을 마구 문지르고 동시에 화장품들을 서랍 속에 치우느라 허둥댄다.

Jiyong flounders to wipe away the makeup with wet wipe as she stuffs the makeup back into the vanity.

지영: 화장품 끝났고... 얼굴... (거울을 보며 확인한다)

할머니: 뭐 햄시?

지영: 아, 알았다고!

Jiyong: Make up is put away… face… (checks in the mirror)

Grandma: What are you doing?

Jiyong: ok, ok!

지영, 문을 연다.

Jiyong opens the door.

할머니: 얼굴은 무사?

지영: 아, 피곤해서... 왜?

Grandma: What's with your face?

Jiyong: Oh, just tired ... why?

할머니: (지영 앞에 검은 봉지를 내밀며) 이거 뭐라?

Grandma: (Holding out a black plastic bag to Jiyong) What is this?

지영 :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 얼룩을 지우면서 종종 자신의 기억까지도

지워버립니다.

바밀 변호, 전화 변호, 이름, 지갑, 장바구나... 이번에 지워진 기억은 과연 무엇일까요?

Jiyong: Grandma wipes off often her memory as well as the stain from every nook and corner of the house all day long. Password. phone number, name, purse, shopping basket...

What on earth she wipes off this time?

할머니: 선반 속에 처박아선 게.

Grandma: Hidden in the cupboard.

아빠 : (얼른 다가온다) 뭔데?

Dad: (Immediately approaches) What is it?

할머니: 빤스.

Grandma: Her panties.

아빠, 지영: (동시에, 각자 다른 반응으로) 빤스?

Dad, Jiyong: (at the same time, but with different response) Panties?

(사이)

(Pause)

할머니: 버릴 걸 버려사주. 초마가라. 게메, 아맹 화장실 청소해도 썩은 내가 난게마는....

Grandma: See what you hid. Tsomagara. Geme, ameng clean and clean, the bathroom still stinks…

아빠 : 빤스가 왜?

Dad: What's the matter with panties?

지영: 지워진 기억. 잊혀진 빤스!

7 개월 전에 덜덜 떨며 숨겼던 숨거놓은 검붉은 초경 얼룩!

뉴스에서 여중생 혼자 출산한 아기처럼 삑삑 울어대던 그 얼룩!

아빠가 검은 봉지에 손을 대자, 봉지 속에 버려진 핏덩이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다.

나는 그 핏덩이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핏덩이는 7 개월 전으로 돌아가,

<u>빨간 교문을 지나</u> 시뻘건 신호등을 지나 둥둥 떠다니는 보도블럭을 지나 끝없이 드넓은 편의점을 지나

바코드 삑, 생리대와 함께 스캔당하는 내 몸을 지나

경비 아저씨 충혈된 눈을 지나

피로 출렁이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빨간 바코드 기계를 지나

빨간 우체통과 빨간 소화기를 지나

빨간 경비원 아저씨 눈을 지나

빨간 엘리베이터 단추를 지나

아빠 눈 앞으로 돌진!

안돼! 안돼! 아빠가 봐선 안돼!

Jiyong: Deleted memories! Forgotten panties!

First menarche stain that I shuddered with fear to hide seven months ago!

That stain that cried hard like the baby born to a junior highschool girl alone on the news!

The moment dad puts his hands on the black plastic bag, blood clot trashed in the plastic bag runs screaming out of the bag.

I struggle to get hold of that blood clot.

However the blood clot hidden seven months ago, returns.

Passing the red school gate,

Passing the red traffic light,

Passing the red barcode machine,

Passing the red mailbox and the red fire extinguisher,

Passing the red guard man's eyes,

Passing the red elevator button,

Rushing to dad's eyes!

No! No! He must not see it!

아빠: (검은 봉지 안을 들여다본다. 구역질난다는 듯이) 뭐야. 이게? 여자애가... (나간다)

Dad: (Looks inside the black plastic bag. Disgusted) What, is this? What the heck, girl··· (Exits)

Boy: Mum is out of the bath and in a blouse and dress trousers.

The same blouse and trousers she wears for every important occasion.

The same blouse and trousers she brought with her from our country.

Do you really think they care what you're wearing?

She ignores the Boy.

Do you honestly think they give a shit?

(Mum) Don't swear.

The interview is for a strip club. To be the cleaner. To come clean up at 2 am everyday because they open again at 10am the next morning.

Who the heck is going to a strip club for breakfast?

And the Boy can't help picturing his mother as a stripper.

He can't help picturing the kind of things she'll need to clean up.

He's trying hard to get the images out of his mind.

엄마가 목욕을 마치고 브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입고 나온다. 중요한 행사때 마다 입는 똑같은 브라우스와 바지. 우리 나라에서 엄마가 가져 온 바로 그 브라우스와 바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엄마가 뭐 입고 왔나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소년의 말을 무심히 넘긴다.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젠장 신경 쓸 것 같냐고? 고약하게 말하지 말고. 인터뷰 할 곳은 스트립 클럽이다. 청소 일. 매일 새벽 2 시에 청소하러 간다 다음 날 아침 10 시에 다시 문을 열어야 하니까.

어떤 놈이 스트립 클럽에 아침을 먹으러 가지?

그리고 소년은 스트립 댄서가 된 엄마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년은 엄마가 치워야만 할 것들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년은 자기 마음에서 그런 상상들을 지워 내려고 무진 애를 쓴다.

지영 둘레로 붉은 빛이 퍼진다.

Tint of red spreads out around Jiyong.

지영: 7 개월 전, 자궁에서 처음 떨어진 핏방울...

핏방울 때문에 세상은 온통 흔들렸고

핏방울 때문에 발밑은 온통 피바다.

걸어도 걸어도 집은 아득했어.

Jiyong: Seven months ago, a blooddrop dropping from uterus for the first time...

World shook badly for the blooddrop

Beneath my feet was sea of blood for the blooddrop

Walking and walking, home felt afar.

(행인들) 왜 우니? 성폭력? 학교 폭력? 왕따? 교통사고?

간혹 지나치게 친절한 어른들

(Passers by) Why are you crying? Sexual assault? School violence? School bullying? Car accident?

Sometimes too kind adults

난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슬퍼서요.

학교 화장실에서 태어나 버려진 아기,

몸에 장애가 있어서 버려진 아기,

부모한테 맞아서 죽은 아기.

여자라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기,

굶주림으로, 전쟁으로, 테러로 죽은 아기...

그리고 엄마 얼굴을 잊어버린 내게도 깊은 애도를...

I'd like to say this:

Sad for all lives born from the uterus

A new-born baby born and deserted in the school bathroom,

A baby deserted for its defect,

A baby killed for parental violence,

A baby killed even before being born for its being female

A baby killed for hunger, war, and terror-

And please also express deep condolences to me forgetting my mother's face...

할머니: 개난, 언제부터 한 거라?

Grandma: Genan, When did it start?

지영: (검은 봉지를 뺏으며) 몰라.

Jiyong: (Snatching the black plastic bag) I don't know.

할머니: 날짜 계산도 안ㅎ • 여?

Grandma: You don't do the math hhh?

지영: (입술을 깨문다)

Jiyong: (bites her lips)

할머니 : 진짜 모르멘?

Grandma: Are you serious mormen?

지영: 상관 마. 남의 일에...

Jiyong: Never mind. None of your business...

할머니: 남? 너, 남이랜 햇나?

Grandma: None of your business? you, never mind?

지영: 그래, 남.

Jiyong: You heard. None of your business.

할머니: 게난, 이거 언제 꺼라? 영 게을러 터졍 나중에 어떻 시집가젠?

지영: (봉지를 빼앗으며) 누가 시집간대?

할머니: 메! 혼자 살당 나중에 처녀 귀신 되잰?

지영: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거든.

할머니: 아무나 혼자 사는 줄 알암나. 여자가 부지런해사주.

지영 : 왜? 왜 여자만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지런해서 할머닌 잘 살아? 평생 일 복 터졌잖아. 할아버지도 한량이셨다며? 지금도 다 큰 아들 시중이나 들지. 이게 사는 거야?

할머니: 걸 지금 말이랜 골암나? 느 아방 돈 벌잰 고생햄시네.

지영: 다른집 아빠들은 안 그래. 돈 벌어온다고 주인행세 안해. 집안일도 같이 하고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다 할머니 탓이야. 할머니가 다 망친 거야. 알아? 맨날 잘난 아들 떠받들어주니까이 꼴 난 거라구.

할머니: 느 아방 꼴이 뭐 어떵? 아방이 못한 게 뭐가 이시니?

Grandma: Genan, when was this? So lazy dare you dream of marrying?

Jiyong: (Snatching the plastic bag) Who said I would marry?

Grandma: What! Living single and becoming a nightmarcher after death?

Jiyong: That's the trend these days to live single.

Grandma: If that happens, I'll eat my shoes. Girl should be diligent.

Jiyong: Why? Why should girls be diligent? So you are successful grandma? You have drowned in work, work, work all your life. Wasn't granpa a womanizer? And now you look after your grown-up son. Do you think this is a successful life?

Grandma: Watch your mouth! You don't know how hard it is to support your family.

Jiyong: Other dads are different. They don't act so haughty just because they work outside. They share housework and act very kind. It is all because of you grandma. Grandma you ruined everything. You know? You spoiled your hotshot son.

Grandma: What's the matter with your dad? What did he wrong?

할머니와 지영. 서로를 노려본다.

Grandma and Jiyong, glare at each other.

(1)

(Pause)

할머니: (숨비소리처럼 숨을 깊게 내쉬며) 호오이....개믄, 난 이 집이서 청소부로구나이... 또시 생리 얼룩 생기걸랑이 겁 먹지 말앙 찬물에 풀어노라. 겅행 비누칠하믄 되어. 너미 오래 묻어두민 얼룩이 굳어분다. 호오이~

Grandma: (Breathes out deep like just getting out of water) hoy... gemun, I am just a maid for you... By the way, Jiyong, next time you get stained from menstruation, soak it in the cold water, no worry. Simple soap will do. If you keep it there too long, the stain won't come out. Hoy!

지영, 할머니가 힘없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하다.

Jiyong, watches grandma exiting helplessly. Feels her heart break.

지영: (화장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니까, 왜 날 건드려....

Jiyong: (plops down on the vanity chiar) see, why did you even bother...

지영,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음악을 들으며 눈을 질끈 감는다.

Jiyong puts in her earbuds and closes her eyes and listens to the music.

지영: 이건 할머니도 절대 지울 수 없는 얼룩.

바다 깊은 곳에 꼭꼭 묻었어야 되는 얼룩.

Jiyong: This stain even grandma could not wipe off.

This stain should be buried tight in the deep sea.

내가 악에 받쳐 울 때마다

내가 찌질하게 굴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지.

Jiyong: Whenever I cried hard and desperate

Whenever I made a trouble

People said:

사람들 (수군거림): 여자애가 성질 보통 아니네. 저런 애를 왜 데리고 있어? 엄마한테나 보내지.

People (Whispering): Why should he raise that troublemaker? He must send her to her mom.

지영: 저런 애... 저런 애... 저런 애…

Jiyong: That troublemaker… that troublemaker… that troublemaker…

Boy: So he turns on his video game.

소년: 그래서 그는 비디오 게임을 튼다.

지영: 그래서 나는 엄마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Jiyong: So I go under my mom's desk.

Boy: It's an army game.

소년: 이것은 군대 게임이다.

지영: 15 년 세월을 지우기 위해...

Jiyong: To wipe off 15 year time...

(지영, 생각을 떨치기 위해 책상 속에 가위표를 계속 긋는다. 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Jiyong, draws "x" inside the desk continuously while planning out. Acts by Will's instruction)

Boy: He runs.

He jumps.

He rolls.

He gets shot and dies.

소년: 달린다.

점프한다.

구른다.

총에 맞아 죽는다.

소리: 저런 애, 저런 애

(지영, 귀를 막는다)

Voice: That troublemaker, that troublemaker

(Jiyong, covers her ears)

Boy: He starts again.

소년: 다시 시작한다.

(지영, 더 빠른 속도로 가위표를 긋는다)

(Jiyong, draws "x" at the faster speed)

Boy: He runs.

He jumps.

He rolls.

He gets shot and dies.

소년: 달린다.

점프한다.

구른다.

총에 맞아 죽는다.

소리: 저런 얼룩, 저런 얼룩

(지영, 귀를 막는다)

Voice: That stain, that stain

(Jiyong, covers her ears)

Boy: He starts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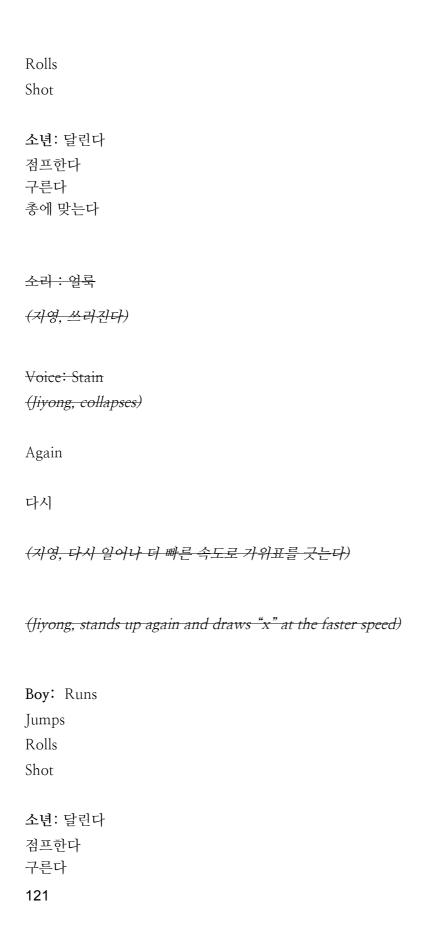
소년: 다시 시작한다.

(지영, 더 빠른 속도로 가위표를 긋는다)

(Jiyong, draws "x" at the even faster speed)

Boy: Runs

Jumps



총에 맞는다
소라 : 얼룩
Voice: Stain
(지영, 쓰러진다.
아래 월이 말하는 동안, 이번에는 자기 몸에 가위표를 긋는 시늉을 한다.)
(Jiyong, collapses.
While Will is talking during the following, she pretends to draw "x" on her body this time.)
Boy: He dies again.
· · · · · · · · · · · · · · · · · · ·
소년: 다시 죽는다.
عاما ، عاما
지영 : 지워
Jiyong: Wipe off
Boy: He dies again.
소년: 다시 죽는다.
조현, 너지 푹근데.
지영:지워
Jiyong: Wipe off
Pay: He dies again
Boy: He dies again.
소년: 다시 죽는다.
122

지영: 자궁에서 지워버려...

Jiyong: Wipe it off from uterus...

Boy: His mum shuts the front door.

소년: 그의 엄마가 현관문을 닫는다.

(지영, 태아처럼 몸을 응크린다. 할머니의 탄식 같은 노랫소리가 허밍으로 울러퍼진다.)

(Jiyong, curls up her body like a fetus. Grandma hums a song echoing like a lamentation.)

Boy: He looks in the mirror and the smudged warpaint looks like a bruise.

He tries to feel the pain of it

The fight that caused it

The contact of fist against skin

A house crumbles

A plane drops out of the sky

The girl slides down a pole

And he dies again.

소년: 거울을 쳐다보니 문질러진 전투용 화장이 멍처럼 보인다.

소년은 멍이 유발한고통을 느껴보려고 한다

멍을 생기게 한 싸움을

살갗에 닿은 주먹

주택이 무너져 내리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소녀가 봉을 타고 내려 가고

그리고 소년은 다시 죽는다.

Scene 6. Confusions.

장면 6. 혼돈.

Girl: You weren't at the exam.

소녀: 시험 치러 안 왔더라.

Boy: Didn't see the point.

Not like anyone's gonna notice anyhow right?

소년: 굳이 칠 이유가 없어서. 암튼 누가 뭐랄 것도 아니고 그치?

Girl: I noticed.

소녀: 난 알았잖아.

(He smiles.

Picks up fallen leaves that are on the roof.)

(소년이 미소짓는다.

지붕 위에 떨어진 낙엽을 집어든다.)

Boy: When the leaves are on the tree, all bright and green, someone should tell 'em, warn 'em: They're destined to turn, crumble and fall.

Each one of these meant to be individual, no two the same, but all look identical.

소년: 잎이 나무에 달렸을 때는 생생하게 초록색인데, 누군가 말해줘야 해, 경고를 해야 해. 변색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떨어질 운명이라고.

잎 하나 하나는 각기 자기 세계가 있는 건데,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다 똑같이 보이잖아.

Girl: I think that's snowflakes.

소녀: 그건 눈송이가 그런 거고.

Boy: Is it?

Like the veins running through it. Supposed to tell you their life story, their age or something.

소년: 그런 거야?

잎에 난 금처럼. 자기의 삶의 이야기, 나이 등등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Girl: I think that's tree bark.

소녀: 그건 나무 껍질이 그런 거고.

Boy: (traces the lines/veins on the leaf.) Like this one means he used to play football but wasn't good enough.

And this one means his father buggered off when he was two.

And this one means he's crap at maths.

And this one means he just wants to blow away in the breeze, far far away.

소년: (잎의 금/정맥들을 따라가 본다.) 여기 이건 그가 축구를 했지만 썩 잘하지는 못했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건 그가 두살 적에 아버지가 돌연 꺼졌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건 그가 수학에 젬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건 그는 다만 산들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뜻이지.

Girl: Wow you're good at that.

소녀: 와아 너 대단하다.

(He goes over, takes her hand.

Traces the lines.)

(소년 자리를 옮겨가, 소녀의 손을 잡아 든다. 금을 따라가 본다.)

Boy: And this one means...

소년: 그리고 이것은…

Girl: What?

소녀: 뭐?

Boy: Dunno. Think it's only leaves I can read.

소년; 모르겠다.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나뭇잎 뿐인가봐.

Girl: Go on.

소녀: 해 봐봐.

Boy: I can't. I can't read it. I can't read you.

You need to help me.

소년: 못하겠네. 못 읽겠어. 넌 못읽겠어.

네가 날 도와줘봐.

(Pause.)

(멈춤.)

Girl: That one means she's also crap at maths.

(He moves his finger to another line on her palm)

And that one means she likes reading, likes stories. That she cares more about people in stories than in her own real life, than in her own family, than in…

And that one, that line that just seems to suddenly stop in her palm? That's her older sister.

The one she looked up to. The one who had it all figured out. The one person in the world who got her. The one who just went and died. A freak accident.

And that little bit coming off the line, that's the girl wishing it was her. She never said it aloud, but she did. She wished it had been her, not her sister.

And worse, so did her parents.

Because you'd think that after losing one child you'd hold on tighter to the one left behind. But not the girl's parents.

No, they buried themselves into their work at the office, into home renovations, into trips away. Because if one was going to go, they wished it had been her. They never said it but the girl knew.

And the girl was sad obviously. And angry. But more than that she was jealous of her sister. Because the dead can't do anything wrong.

And her sister gets relief. From all…this.

And she was the only one who...

That line just stops because there's no one left in the world who understands the girl.

소녀: 저건 소녀도 역시 수학에 젬병이라는 뜻이고.

(소년은 손가락으로 소녀의 다른 손금을 따라간다)

그리고 저건 소녀가 독서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고. 이건 소녀가 이야기 속의 사람들을 자기 실제 인생, 자기 실제 가족, 등등 보다 훨씬 챙긴다는 거고…

그리고 저건, 소녀의 손금에서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금은. 그건 소녀의 언니다.

소녀가 믿고 따랐던 언니. 모든 상황을 다 꿰찬 언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녀를 이해한 존재. 그냥 떠나…죽어 버린 존재. 말도 안되는 사고.

그리고 저거 금 바깥으로 삐져나온 짧은 금, 소녀가 바라는 자기 자신.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한 적은 없지만, 소녀는 바랬다. 소녀는 자기였으면 했다, 언니가 아니고,

그리고 더 고약한 것은, 소녀의 부모도 그걸 바랬다는 점이다.

자식을 하나 잃고 나면 남은 자식에게 더 매달릴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겠지만.

소녀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다, 부모는 사무실 일에, 집의 리모델링에, 먼 여행에 몰두했다. 만약 한 명이 죽어야만 한다면, 그것이 소녀이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부모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소녀는 알았다.

그리고 소녀는 누가 봐도 슬픔에 젖었다. 그리고 화가 났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녀는 언니한테 질투를 하고 있었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잘못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언니는 휴식을 얻은 것이니까. 이...모든 것으로 부터.

그리고 소녀만이…

이 금이 그냥 끊어진것은 소녀를 이해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Pause.

He traces a new line on her palm.)

(멈춤.

소년은 소녀의 손바닥에 새로운 금을 새긴다.)

Boy: And this is when she meets a boy who does. [understand her.]

(Keeps tracing up) And this is when they have lunch for the first time.

And this is when they escape to the roof for the first time.

And this is when - (his finger now firmly up her sleeve, he suddenly stops short.)

소년: 그리고 이 금은 소녀가 그런 [소녀를 이해하는] 소년을 만난 때 생긴다. (계속 금을 긋는다) 그리고 이 금은 둘이 최초로 함께 점심을 먹는 때 생긴다. 그리고 이 금은 둘이 최초로 지붕으로 도주한 때 생긴다.

그리고 이 금은 - (소년의 손가락은 이제 단호하게 소녀의 옷소매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춘다.)

(She pulls his finger away, pulls sleeve down.)

(소녀가 소년의 손가락을 치우고, 소매를 걷어 내린다.)

Boy: What's that?

소년: 뭐야?

Girl: What's what?

소녀: 뭐가 뭐?

Boy: Let me see.

소년: 어디 보자.

Girl: Don't touch me.

소녀: 건드리지 마.

Boy: Let me see.

소년: 보자.

Girl: Just leave me alone.

소녀: 날 내버려 둬.

(A brief struggle, and he gently but firmly grabs hold of her, pulls up her sleeve. A series of cut marks.

Pause.

He hesitates, then gently traces one with his fingers.

She loosens up and lets him.)

(짧은 몸싸움, 그리고 소년이 부드러우나 단호하게 소녀를 잡고, 소매를 끌어 올린다. 여기 저기 자상의 흔적.

멈춤.

소년은 망서리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자상 흔적 을 따라가 본다. 소녀가 긴장을 풀고 소년이 하는 대로 둔다.)

Boy: Do your parents know?

소년: 네 부모님도 아셔?

Girl: Yeah right.

소녀: 하하.

Boy: And the other stuff? About your sister? Have you told them about that?

. . .

Why don't you talk to them?

소년: 그리고 다른 건? 네 언니 일은? 그 얘기는 했어?

. . .

왜 말씀 안 드려?

Girl: Why doesn't he?

소녀: 쟨 왜 안 그러는데?

Boy: Who?

소년: 누구?

(She picks up the leaf from before.)

(소녀는 좀 전의 잎을 줏어든다.)

Girl: Why doesn't he just…run away? Blow off in the wind far far away like he wants to? He's already invisible, right?

He could just disappear.

(She flings the leaf into the wind.)

Just like that.

소녀: 왜 쟤는 그냥...달아나지 않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멀리 멀리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 쟤는 벌써 안 보여, 그치? 쟤는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 (소녀는 바람에 잎을 던진다.) 딱 저렇게.

Boy: With you, I just. I dunno. I fit.

소년: 너랑, 난 그냥. 모르겠다. 난 괜찮은데.

Girl: I'd come with you.

소녀: 나도 너랑 갈께.

Boy: Come with me where? What do you mean?

소년: 어딜 가 나랑? 무슨 소리야?

Girl: I'm saying, I'm actually saying, we could do it. We could disappear.

소녀: 말하 잖아. 말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사라질 수 있다고.

Boy: You serious?

소년: 진심이야?

Girl: You and me.

(She takes his hand. Stares at the horizon.)

Gone.

소녀: 너랑 나랑.

(소녀가 소년의 손을 쥔다. 지평선을 응시한다.)

사라지자.

Boy: I can't.

소년: 난 안돼.

Girl: Isn't that what you said you wanted?

소녀: 너 그러고 싶다고 말한 거 아니야?

Boy: ...

소년: ...

Girl: Isn't it?

소녀: 아니야?

Boy: Yeah but I didn't mean…

소년: 그래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Girl: Mean what?

Mean with me.

소녀: 그럼 뭐야?

나랑 함께.

Boy: No, it's not

소년: 아니, 그게 아니야

Girl: No I get it.

소녀: 아니긴 그렇지.

Boy: That's not it.

I can't just…

What about my mum?

소년: 그게 아니야.

난 그냥 그럴 수 없어…

우리 엄마는 어쩌고?

Girl: You said she's never home anyway.

소녀: 네가 그랬잖아 네 엄마는 어차피 집에 안 계신다고.

Boy: Well yeah.

소년: 뭐 그렇긴 하지.

Girl: And you can't stand her anyway

소녀: 그리고 어차피 네 엄마 진짜 못말린다며

Boy: We can't just -

소년: 그냥 그럴 순 없어 우린-

Girl: I thought we were in this together.

소녀: 난 우리가 이걸 같이 헤쳐나가는 줄 알았다.

Boy: In what?

소년: 뭘 같이?

Girl: THIS.

Understanding this pointless world of listening and following and asking and selling and earning just so you can cause a volcano or a stock market crash or a late night stabbing or cycle collision or keep a pig in a cage so we can all get cancer on the cheap.

You think anyone would actually miss you? Do you?

You think any of the kids down there give two shits about you?

You think they'd even notice?

You and I can never belong.

Never.

Because we understand it.

소녀: 이. 거. 말.야.

듣고 따르고 묻고 팔고 얻고 그래서 화산 폭발, 주식 시장의 붕괴, 한 밤중의 칼부림, 자전거 충돌, 혹은 돼지를 축사에 가둬서 우리가 모두 싼 값에 암에 걸릴 수 있게 원인 제공을 하는 이 무의미한 세계를 이해하기.

너 진짜 누가 너를 보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 저 아래 애들 중에 한 녀석이라도 너를 궁금해 할 것 같아? 네가 없어진 걸 눈치라도 챌 것 같아? 너랑 나는 절대로 쟤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절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니까.

(Pause.)

(멈춤)

Boy: This is fine isn't it? Like this.

소년: 이대로도 괜찮지 않아? 이대로.

Girl: Coward.

소녀; 겁장이.

Boy: Come on.

소년: 야.

Girl: You're no one! You know that?

소녀: 넌 존재도 없어! 그거 알아?

Boy: Stop screaming!

소년: 소리지르지 마!

Girl: Why?! You think anyone cares! You think they're going to come up here! Or even look!

No! Because no one cares about you!

소녀: 왜?! 누가 신경쓴다고! 쟤들이 여기로 올라 올 것 같아! 아님 쳐다라도 볼까 봐! 아니! 아무도 너따위 관심없거든!

Boy: Stop it.

소년: 시끄러.

Girl: No one!

Not even me.

Not even me.

소녀: 아무도 아냐!

나도 아냐.

나도 아니라고.

(She exits. Leaving him alone to stare at the horizon.)

(소녀 퇴장한다. 지평선을 응시하는 소년을 혼자 두고.)

The boy remains on the roof and begins once again mirroring the physical movements of Jiyong who is below in her morning ritual. They're both doing the physical sequence we've seen twice before but this time without words.

소년 지붕에 남아 아래에서 아침 의식을 실행하고 있는 지영의 몸 동작을 똑같이 실행하기 시작한다. 둘 다 우리가 이전에 두변 봤던 같은 동작을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없다.

아침 의식.

예전보다 많이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

Morning ritual.

A lot more anxious and excited than before.

지영 : 얼굴.

(고대기로 앞 머리를 편다)

천장에 귀를 붙이고

가슴.

(후드 점퍼를 조용히 걸치며)

1603 호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엉덩이.

(점퍼를 밑으로 잡아당기며)

그 남자를 찾는다.

화이트.

(가방을 매고 걸어 나오며)

그 남자는 지금쯤…

Jiyong: Face.

(Straightens her bang with a curler)

Brings her ear to the ceiling

Breast.

(Calmly puts on the hooded jacket)

Feels every inch of the unit 1603

Hips.

(Pulls the jacket down)

Looks after that man.

'White'

(Wears the backpack and steps out)

That man is about to...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지영을 쳐다본다.

In front of an elevator.

The elevator opens. People stare at Jiyong.

지영: 또 없다... 무사한 걸까.

Jiyong: Still not here yet... Is he okay?

지영,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몸을 잔뜩 웅그린다.

Jjiyong, steps in the elevator. Curls up her body tight.

The Boy curls up on the roof just like Jiyong.

소년도 자붕 위에서 지영처럼 몸을 웅그린다.

엘리베이터 앞.

In front of an elevator.

지영: 교실 문, 교문, 카페 문, 학원 문, 수많은 문을 지나 다시 엘리베이터.
그 남자는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
난 고장 난 배처럼 안절부절 못한다.
엘리베이터 수십 개를 먼저 보내고
발소리 수백 개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생리만큼이나
기약할 수 없는 시간들을 먼저 보내고
마침내 날 부르는 목소리.

Jiyong: Classroom door, school gate, cafe door, preparatory school gate, Passing so many doors again back to the elevator.

He has not been seen for days.

As if a broken boat I don't know what to do,

Pass the elevator so many times

Passed footsteps so many times

Passed the indefinite times

As the waiting time for the second menstruation

Finally the voice calling me.

남자 목소리 : 지영아!

Male Voice: Jiyong!

지영: (반가움에 고개를 들며) 아! 마침내!

가만, 그 남자는 내 이름 모르는데…

그렇담 저 목소린?

Jiyong: (Looks up delighted) Ah! Finally!

Wait, that man doesn't know my name…

Then whose voice is that?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난다.

할머니가 아파트 출입문 밖에서 지영을 부르며 손을 흔든다. 검은 옷을 입고 있다.

Grandma appears out of the darkness.

Grandma calls Jiyong waving her hand at the apartment gate. She dresses in black.

지영: 남이 보거나 말거나 늘 당당한 할머니.

(누가 볼까 봐 둘레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 다행이야.

하필이면 할머니...

(서두르며) 열림 또 열림.

Grandma always in high spirits never minding others.

(Glances around to see if others look at them) None. Lucky.

Why does grandma have to show up now...

(Hurriedly) Open and open again.

할머니: (호들갑스럽게 출입문 안으로 들어서며) 아이고 살앗저. 지영이 덕에 살앗저.

Grandma: (Gets in making a fuss) Thank God. Thanks to my Jiyong I am saved.

지영:출입카드는?

Jiyong: Where is your pass card?

할머니: 게메…

Grandma: Geme...

지영: 또 잊어버렸어? 비밀번호도 적어줬잖아.

Jiyong: Forgot again? Didn't I write the password for you.

할머니: 게메…

Grandma: Geme...

지영: 나는 남자를 포기하고, 떠난다.

15 와 16. 위아래로 나란히 불을 밝히던 우리들의 항구.

지금은 혼자 외로이 남은 15.

맨날 게메 게메...

Stop saying geme geme geme....

Jiyong: I give up on the man, and leave.

15 and 16. Our harbors lighted from above and below at the same time.

Now 15 left all alone.

할머니: 게메... (스타로폼 박스를 내려놓으며) 오늘따라 댕기는 사름도 엇지, 경비 할아방도 엇지, 핸드폰 하잰 허난 어디사 놔져신디 노시 못 찾앙…

Grandma: Geme··· (Puts down the styrofoam box) I couldn't see anybody today, that old guardsman was not there, and couldn't call you because I didn't remember where I left my cell phone···

(할머니와 지영. 엘리베이터를 탄다.)

(Grandma and Jiyong, step in the elevator.)

지영, 얼굴을 찌푸리며 스티로폼 박스를 본다. 할머니는 생기가 넘친다.

Jiyong, makes her face and looks down at the styrofoam box. Grandma is full of energy.

할머니: 약장수 물건 아니라. 전복이여 전복. 아방이영 너영 몸보신 시켜주갠 노량진 강 따와시네. (스타로폼 박스를 태왁처럼 들고 숨비소리를 내본다) 호오이. 호오이. 지금 한창 물때라노난 물건은 하서라마는, 나 물질 할 때 만이 못ㅎ~여. 이만씩 한 걸 비싼 돈 주명 사갠 하난, 아이고...

Grandma: Not a drug peddler stuff. They're abalones, abalones. To nourish your dad and you I picked them at Norangjin Market. (Clenches the styrofoam box as if a Taewak net and breathes sumbee, Jeju woman diver's breath) Hoy. Hoy. Because right now the tide is on the flow, they were abundant, but not as good as I did. I had to pay the high price for this mediocres, it's a rip off..

지영: 그러니까 전복을 비싸게 샀단 얘기?

지영: 좀 밝은 옷 입고 다녀. 화사하게.

할머니: 기여 기여. 우리 지영이가 영 커신디, 나가 안 늙고 배길 말이라. 오랜만에 지영이랑 고치

타난 좋다.

지영: 치이. 어디 갔다 와?

할머니: 우리 순이 보러.

지영: 아직도 많이 아파?

할머니: (고개를 저으며) 이젠 안 아파. 가부러시네... 저디 하늘로...

(사이)

지영: 밥은... 먹었어?

할머니: (고개를 주억거리며) 두 그릇. 순이 몫까지... 살암시믄이 다 살아진다... 아, 가만셔보라.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종이 봉투를 내민다) 마.

지영: 안 먹어.

할머니: (웃으며) 먹으민 되어?

지영: (가만히 들춰본다) 틴트?

할머니: 발르는 것도 무사 경 한지사... 그게 중학생들신디 젤로 인기 싯댄. 발라보라.

지영: ...나중에...

(사이)

Jiyong: Wear in brighter colors. Cheerfully.

Grandma: Okay okay. My Jiyong has grown and how could I stay young and not grow old.

I like to take elevator with you in a long time.

Jiyong: Enough. Where have you been?

Grandma: To see my friend Suny.

Jiyong: Is she still very sick?

Grandma: (Shaking her head) Not any more. She's gone… to heaven…

(Pause)

Jiyong: Have you... eaten?

Grandma: (Nodding) Two plates. One for Suny… Life should go on… Oh, wait. (Fumbling

in her bag, she takes out a small envelope) Here.

Jiyong: I don't eat it.

Grandma: (Smiling) Not to eat.

Jiyong: (Softly looks in) Tint?

Grandma: There were so many lipsticks... She said that one was the bestseller among

teenagers. Try it.

Jiyong: ··· Later···

(Pause)

할머니: 지영아…

Grandma: Jiyong...

지영: 어?

Jiyong: Yeah?

할머니: 만나 보난 어떵호니?

Grandma: You met her, whatu do you think?

지영: 뭐가?

Jiyo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할머니: 누게 학교로 안 와서냐?

Grandma: Did anybody come to see you at school?

지영: 아…

Jiyong: Well···

학교에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아빠랑 각별한 사이라며 날 카페로 데려간 여자.

아빠랑 사귀는 아빠한테 접근하는 여자들은 다 뻑하면 각별한 사이래지.

아마도 립스틱 자국 용의자? 회사 동료처럼 보이진 않던데....

아빠 여자라면 어차피 별로 관심 없다.

One woman was waiting for me when I walked out of school.

That woman told me she's a good friend of my dad and brought me to the cafe.

Dad's dates All the women after him always said they were good friends of him.

Possibly the one who left lipstick mark? Didn't look his colleague...

I don't care about his women anyway.

(할머니한테) 뭐, 그냥…

(To grandma) Well, nothing special...

할머니: 뭐랜 안 헤냐?

Grandma: Didn't she say anything?

지영: 할머니가 관심 갖는 걸 보니, 아빠랑 재혼이라도 할 여잔가?

여자가 뭐라고 했더라?

많이 컸네… 잘 지내지?

친한 척 나불대는 뻔한 인사말들.

별로 관심 없다.

Jiyong: Since you show interest in her, is she the woman he is to remarry?

Well let me think, what did she say…?

You grew big... Are you doing well?

As if we are friends, same old same old.

I don't care.

(할머니한테) 뭐, 그냥…

(To grandma) Well, nothing special...

할머니: 그냥 그냥만 하지 말앙 좀…

Grandma: Don't just say "nothing, nothing special" please...

지영: 아, 돈 주더라. 이따만한 봉투로. 웃기지? 됐다 그랬어.

Jiyong: Wait, she gave me money. Putting in a huge envelope. Funny huh? I said "Don't bother."

사실 난 어쩔 줄 몰라 그냥 도망쳤다.

Actually I ran from her embarrassed.

할머니: 재혼 얘긴, 안 헤냐?

Grandma: Anything about remarrying, didn't she talk about it?

지영: 역시 그랬다. 야근 핑계로 여자나 만나고…

Jiyong: I was right. He made excuses of working late in an office but actually met women...

아빠 재혼 하면, 난...난...

If dad gets remarried, I will... I will...

(할머니한테 선언하듯) 난 할머니랑 살 거야. 독립할 거야.

(As if a manifesto to grandma) I will stay with grandma. I will move out and be on my own.

할머니: 무신 두렁청한 소리고?

Grandma: What is this durungchungchung out of nowhere?

지영: 아빠 재혼하면, 나가 살라고 해. 할머니도 제주도 가. 하고 싶은 거 해. 친구들도 만나고... Jiyong: If dad gets remarried, tell him to leave. Grandma you move out to Jeju. And do whatever you'd like to do. Meet your friends and…

할머니: 지영아…

Grandma: Jiyong...

지영: 아님, 우리가 제주도로 갈까? 할머니집 있잖아. 내 걱정은 마. 밥 하는 거 배울게. 할머니가 그랬잖아. 나 밥 할 줄 알면 제주 내려간다고. Don't worry about me. I will learn how to cook. Grandma you said you would return to Jeju once I got to know how to cook.

Jiyong: Or, how about us going to Jeju Island? You have a house there.

할머니: 진짜 몰란?

Grandma: You really didn't have any clue?

지영: 뭐?

Jiyong: What?

할머니: 어멍인디… 진짜 느 어멍.

Grandma: It's your mom. That's your mom really.

지영: 할머니가 우리집 금기어를 깬다.

Jiyong: Grandma breaks our household taboo word.

엘리베이터 숫자 단추들이 고장 난 것처럼 정신 없이 불빛을 깜박거린다.

Elevator number buttons flicker frantically as if out of order.

지영 : 엄마? 진짜 내 엄마? 그럴 리가?

그 여자는 나처럼 못생기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나처럼 바보 같지 않았다.

내 모습이 이 따위인 게 다 엄마 탓이라고 믿었는데…
그럼, 난 도대체 뭐지? 괴물?

사람들이 그래서 수군거렸나?

Jiyong: Mom? My mom really? It couldn't be?
She was not ugly like me.

She was not stupid like me.

I believed and blamed my ugly looks on my mom.

Then, what am I? A monster?

Is this why people talked behind my back?

할머니: 요번에 재혼행 떠남댄. 외국으로. 이번에 가믄…

Grandma: She's leaving once she remarries. To a foreign country. If she leaves this time...

지영: 최후 통첩. 협상 실패. 즉각 처분.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다. 밑으로, 밑으로... 이대로 떨어질 순 없어! 어차피 3 살배가 날 두고 떠날 때, 엄마는 그냥 떠났다. 책상만 남기고 증발해버렸어. 다시 혼란 속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 불규칙한 생리 주기, 태희, 아빠만으로도 혼란은 충분해. 빨리 할머니 입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Jiyong: Final warning. Failed talk. Immediate execution Elevator cable cuts. Falls, falls down.

I won't fall like this!

Anyway when she left me a three-year old, mom left once and for all.

She vanished leaving behind the desk only.

I don't want to fall into confusions all over again.

Irregular menstruation period, Taehee, and dad are already enough confusions for me.

Quickly I must shut up grandma. I don't want to know any more!

지영: (할머니한테) 됐지? 나 공부할 거 많아.

Jiyong: (To grandma): Enough? I have a lot to study.

지영: 말하고 보니 태희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태희 말투.

엘리베이터가 겨우겨우 내 방 앞에 멈춘다.

Jiyong: Well that is Taehee's talking style.

Taehee's talking style I hate.

The elevator manages to stop in front of my room.

할머니: (한숨 쉬며) 기여. 기여. 다 어른들 욕심이주. (스타로폼 박스를 들어올리며) 호오이~ 나도 손질할 거 하다. (가다가 돌아선다) 참, 지영아, # · 시 생리 얼룩 생기걸랑이 겁 먹지 말앙 찬물에 풀어노라. 경행 비누칠하믄 되어. 너미 오래 묻어두면 얼룩이 굳어분다. 호오이~

Grandma: (Sighs) I understand, I understand. It is all about adult's greed. (Lifts up the styrofoam box) Hoy~ Me too lots to do cleaning these guys up. (Turns around) By the way, Jiyong, next time you get stained from menstruation, soak it in the cold water, no worry. Simple soap will do. If you keep it there too long, the stain won't come out. Hoy!

지영: 나는 더듬더듬 방문을 틀어잠군다.

심장이 머리에서, 위장에서, 다리에서, 자궁에서 팔딱팔딱팔딱...

카페에서 처음 본 은정 씨 얼굴이 조각조각 찢어진다.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잘 지내지?

귓등으로 흘려버린 은정 씨 목소리가 온몸에 구멍을 낸다.

은정 씨를 만나게 되면, 정말 쿨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괜찮아. 최선이었잖아. 이해해. 같은 여자니까...

그런데... 그런데... 비겁하게...

화장대가 날 비웃는다.

뭘 기다린 거야?

뭘 기다린 거야?

(지영, 화장대를 노려본다. 검은 천으로 화장대를 가린다.)

Jiyong: I grope about to lock the door.

The heart flutters in my head, in my stomach, in my legs, and in my womb...

Eunjung's face that I have seen for the first time in the café is torn in pieces.

How are you? Doing well? Doing well?

Eunjung's voice that I took no notice drills holes all over my body.

I really wanted to let her go like a grown-up if I ever see her…

It's okay, it was the best you could do. I understand. We are both women…

But… but… cowardly…

The vanity laughs at me.

What were you waiting for?

What were you waiting for?

(Jiyong, stares at the vanity. Covers the vanity with dark fabric.)

A new-born baby born and deserted in the school bathroom,

A baby deserted for its defect,

A baby killed for parental violence,

A baby killed even before being born for its being female

A baby killed for hunger, war, and terror---

And please also express deep condolences to me forgetting my mother's face...

Scene 7. Disappear.

장면 7. 사라지다.

Boy: Bus trucks home

Wind blows

Branches scrape windows

Bags swung

Shoulders back

Music pumps

Clouds open

Rain cuts

Hail scrapes

Debris falls from the sky

Grenades going off as the boy's feet kick puddles

A siren of loud breath in his head

Water and mud burning up his trousers

As he dives through the front door.

소년: 버스가 털털털 집으로 간다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다

가방이 흔들흔들

어깨는 뒤로 젖히고

음악이 쾅쾅

구름이 열리고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우박이 훑고 지나고 잔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소년의 발이 물 웅덩이를 발로 차자 수류탄이 터지고 머릿속에는 호흡의 요란한 경보음 물과 진흙이 바지를 불 태운다 소년이 현관 문을 다이빙하듯이 통과할 때.

Silence.

Shivering.

Gentle aftershock – two letters fall to the floor, caught in the letterbox and now free.

정적.

경련.

가벼운 후충격 - 편지 두 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우편함으로 안착 이제는 자유다.

지영: 며칠 째, 폭풍전야처럼 너무 조용하다.

엄마는 새 삶을 시작한다는데

아빠도 잔소리 없이 너무 조용하고.

날씨도 숨막힐 정도로 너무 조용하다.

조금씩 폭풍이 다가오는 소리.

Jiyong: For several days. it has been ominously quiet as if before the storm.

Mom is said to start a new life

But dad eerily keeps low key without nitpicking,

Unit 1603 on the upper floor has been discomfortingly quiet,

Even the weather has been suffocatingly quiet.

Sound of storm approaching near little by little.

Boy: Water from the boy's hair makes a bullet hole in the letter, forcing the ink to bleed. The words running away and disappearing.

소년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잉크가 번져, 편지에 총알 구멍이 생긴다. 달아나고 사라지는 글자들.

To the parent/carer of…

부모님전 상서…

The boy picks it up slowly like the grenade it is.

그게 마치 수류탄이라도 되는 냥 소년 천천히 집어든다.

지영, 가방을 멘 채로 가만히 서 있다.

아빠와 할머니는 아직 지영을 보지 못한다.

Jiyong, stands still wearing a backpack on her back.

Dad and Grandma don't see her coming in yet.

할머니: 진짜 회사에 뭐 일 어서? 난데어시 일찍 오고…

Grandma: Is there anything wrong at the office? What made you come home so early...

아빠 : 일은 무슨… 말했잖아요. 지영이 책상 때문에 반차 썼다니까.

Dad: Nothing's wrong… I told you. I took half day off to install Jiyong's desk.

지영: 내 책상이… 안 보인다.

Jiyong: My desk... it's gone.

아빠: 구닥다리 책상 치우니까 방이 훤하네. 그쵸?

Dad: Tossing that funny old desk makes the room spacious, doesn't it?

할머니: 게메… 지영이도 좋아하카.

Grandma: Geme... Hope Jiyong would like it, too.

아빠 : 이거, 없어서 못 판대요. 학생들한테 얼마나 인기 상품인데…

Dad: This one, they sell out so fast none of the stores even have any. It is the first on their wish list…

할머니:게메…

Grandma: Geme...

지영: 내 책상이 사라졌다.

Jiyong: My desk is gone.

아빠 : 밖에 시든 나무들도 싹 정리해야 돼. 관리실에 만원 넣을까.

Dad: They should uproot those dried trees outside. Maybe I'll file a complaint.

할머니: 나무만 갈아치우믄 되어. 시멘트로 숨통을 막아놔신다…

Grandma: It is no good just replacing the tree. Cement stomps it out...

아빠: 그래도 보기 좋잖아요. 흙먼지도 안 날리고.

Dad: But doesn't it look good. Doesn't raise a cloud of dust either.

지영: 내 책상을, 아빠가 갈아치웠다.

Jiyong: My desk, dad replaced it with a new one.

할머니: 기철이 너… 알암지어?

Grandma: Gichul you… knew it?

아빠 : 뭘?

Dad: What?

할머니: 지영이 어멍 재혼…

Grandma: Eunyong 4's remarrying...

아빠 : (노려보며) 할머니!

Dad: (Glaring) Grandma!

지영, 학원을 빠지고 다른 때보다 일찍 집에 가는 길. 엄마 재혼 소식을 들은 뒤론 마음이 무겁다.

Jiyong ditches her after school program and is going home early. Her heart has been heavy after hearing the news of her mother's remarriage.

⁴ Eunyong - Translator gave any name in random for Jiyong's mom to make it more like a Westerner's first name basis communication covention.
154

Boy: Holds the tiny single sheet. How could something so small do so much damage?

소년: 작은 종이 한 장을 쥔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Words pop off the page at him.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소년에게 튀어 나온다.

Absences

부재

지영: 내 책상을 아빠가 버렸다.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화장대 거울을 가린 뒤론 세상은 온통 잿빛.

The whole world turned gray after she covered the vanity.

Jiyong: Dad tossed away my desk. To take vengeance on mom.

Boy: Final warning

최후통첩

할머니: 너무 조둘리지 말라. 맺고 끊는 게 경 마음처럼 되어. 살암시믄 다 살아진다.

Grandma: Don't be too impatient. Attachment and aversion are not something we can do anything about. Time helps.

지영: 은정 씨는 새 삶을 시작한다는데, 학교종은 제시간에 울리고, 우리집도, 1603 호도, 아무일 없이 잠잠...

Jiyong: Eungung is starting a new life, why does my school bell ring on time, why do my house and apartment 1603, stay the same...

Boy: Failure to

소년: 실패

아빠 : 난 다 잊었어.

Dad: I've forgotten completely.

지영: 태희하고는 동맹 실패.

학원 앞에서 태희가 지 가방을 억지로 맡기길래 그냥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Jiyong: An attempt for an alliance with Taehee has failed.

Taehee forced me to carry her bag in front of the institute, so I just threw her bag on the ground.

Boy: Possible exclusion

소년: 왕따 가능함

지영: 될 대로 되라지.

(다가가며) 내 책상은?

(할머니와 아빠, 뭔가를 조용히 얘기 나누고 있다.)

근데, 화장대가... (여기저기 둘러본다) 안 보인다.

(성큼 다가서며) 내 화장대는?

Jiyong: Whatever.

(Grandma and dad are having conversation quietly)

But, the vanity… (looking around) isnt' there.

(Walking up) Where is my vanity?

Jiyong: (Approaching) Where is my desk?

Boy: (Mum) Is that you?

소년: 거기 엄마?

His mum looks at him from the other end of the flat.

소년의 엄마가 아파트 저쪽 끝에서 그를 쳐다본다.

Grandma and dad, startled look at Jiyong.

할머니와 아빠, 화들짝 놀라며 지영을 본다.

지영: 내 책상… 어딨어? 내 화장대? 어딨냐고?

Jiyong: My desk··· Where is it? Where is my vanity? Where is it?

할머니: 지영아, 아빠가 엄청 좋은 책상 사와시네. 어떻사 좋은지이 나도 여기 앉앙 막 공부하고파. 어떻 벌써라... (속삭이듯) 화장품들은 나가 잘 챙겨놧저. 화장대 필요하민 아방이 새로 사준댄. 좋은 걸로.

Grandma: Wow, already come home… (as if in whispers) I've saved your make up. If you need a vanity, your dad will buy you a new one. A really pretty one.

Grandma: Jiyong, your dad bought a really nice desk for you. Addungsa so good that I myself feel like studying at this desk.

지영: (아빠를 노려보며) 내 책상 어딨어? 내 꺼 건들지 말랬잖아.

Jiyong: (Glaring at dad) I told you not to touch my stuff. desk?

Boy: (Mum) What's that in your hand?

소년: (엄마) 손에 그게 뭐니?

Boy: What are you wearing? What the hell are you wearing?

물 입은 거야? 젠장 물 입고 있는 거야?

(Mum) Language!

입조심!

She comes closer, grabs the note out of the boy's hand.

엄마 가까이 다가와서, 소년의 손에서 쪽지를 뺏어낸다.

아빠 : 유난 떨지 마. 금방 익숙해져. 어차피 언젠간 버릴거잖아. 그게 오늘인 것 뿐야.

Dad: Don't make a big deal about it. Soon you will get used to it. We were going to throw it away at some point. That day was today.

Boy: What are you wearing?

입은게 뭐냐고?

Boy: (Mum) My uniform. For that new job. Everyone wears same.

소년: (엄마) 내 유니폼. 새 직장의 유니폼. 다 똑같이 입거든.

You look like a right tart.

딱 작부네.

지영: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는 처음으로 아빠한테 대든다.

(아빠한테) 내 책상 어딨어? 어딨냐고?

왜 버렸어? 왜 버렸냐고? 아빠가 뭔데 버리고 지랄이야?

Jiyong: What a jerk, jerk, jerk…

I challenge my da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o dad) Where is my desk? Where is it? Why did you throw it away? Why did you throw it away? Who told you to fucking throw it away?

Boy: (Simultaneously) She slaps him.

소년: (동시에) 엄마가 그를 갈긴다.

지영:(동시에)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한테 맞는다.

Jiyong: (Simultaneously) Then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get slapped.

Boy: It burns but he just stares at her, through her. Defiant.

소년: 얼굴에서 불이 났지만 소년은 그냥 엄마를 노려본다, 속속들이. 반항적으로.

아빠: 그 화장대는... 네 엄마가 날 버린 이유니까. 네 엄마가 나보다 더 의지했던 남자친구한테 받은 거니까. 그래도 부족해? 그 남자랑... 결국 재혼해서 떠나니까. 그런데도 넌 바보같이 그년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니까. 날 자꾸 아무 것도 아닌 놈으로 만드니까. 젠장, 같이 사는 난, 도대체 너한테 뭐냐고?

Dad: That vanity… was the reason why your mom left me. It was a gift from her boyfriend that she leaned on more than me. Is this an enough reason? Because with that guy… she is going to marry and leave. And you are holding on to her shell stupidly. You keep making me miserable. Fuck, I live with you, what am I to you?

할머니: (아빠를 말리며) 아이고 요왕 할망님, 할망 조손들이우다, 도와줍셔. 도와줍셔. (처음 듣는 아빠 얘기에 충격을 받는다. 탄식하듯) 호오이. 호오아. 경 된 거라... 경... 아이고 요왕할마님...

Grandma: (Stops dad) Help me sea Yowang, Halmang G, sundeuliwoeda my babies, help us god. Please help us. (catches her breath) (Shocked by Kichul's story that she has never heard before. In a lamenting tone) Hoy. Hoy. Forget it... just... Please help us Yowang halmang...

아빠 : (문득 천장을 보며) 뭐야, 저 새끼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나도 확 불질러봐! 니들도 내가 그렇게 만만해?

Dad: (Abruptly looking at the ceiling) What is it, those jerks. Do I look that easy to you guys too? I should set it all on fire, too!

할머니: 기철아, 정신 차리라. 아니여게. 아무 소리도 안 남져게. 잘못 들은 거라. 기철아... 기철아... Grandma: Gichul, calm down. Nothing was heard. You imagined it. Gichul... Gichul...

Boy: Grabs the note back and charges to his room.

소년: 쪽지를 다시 빼앗아 자기 방으로 튄다.

(The Boy and Dad slam the door at the same time.)

지영: 아빠가 처음으로 현관문을 꽝 거칠게 닫고 나간다.

아빠가 처음으로 윗집에 올라가 미친 개처럼 짖는다.

할머니가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허우적 허우적 집을 나간다.

Hearing Grandma's subdued crying, I stagger and get out of my apartment.

(소년과 아빠 동시에 문을 거칠게 닫는다.)

Jiyong: Dad slams the front door for the first time and goes out.

Dad goes up to the upper unit for the first time and barks like a mad dog.

As the boy speaks of his actions on the video game, Jiyong begins doing the movements or some embodiment of their violent actions.

소년이 비디오 개임에서 하는 자신의 행동을 말하는 대로, 지영 몸동작을 시작하고 게임의 기찬 행동을 몸으로도 표현한다.

Boy: Door slams.

And he shoots them with guns

And he chops them with knunchuks

And he strangles them with rope

And he throws the controls at the screen

But it doesn't break

Nothing breaks

소년: 문을 쾅 닫는다. 총으로 쏜다 쌍절봉으로 자른다 밧줄로 목을 조른다 게임 조종기를 화면에 던진다 그러나 화면은 깨지지 않는다 아무 것도 깨지지 않는다

At this point the scene with the memory of Jiyong, Grandma and Dad happens at the same time so both scenes occur concurrently.

이 지점에서 지영, 할머니, 아버지의 회상장면이 동시에 보여져 영한 두 상황이 함께 연출된다.

(As the following is said, Korean issues/words can be projected around the set. (Perhaps English ones too. It's a moment where we're bombarded with images/words/ideas, and just as Boy and Jiyong, we should become overwhelmed.)

Boy: Breaking heart

Beating hearts

Teenage boy beaten on the street

Street smarts

Smart phone

Phone scam

Scamming migrants

Send em home

House squatters

House prices

Debt

Repayments

Working credit

Credit card

Nought interest

Not interested

Tax cuts

Taxi driver kills girl

Girl exploited

Explosions

Nuclear

New clothes

New questions

Wrong answer

Student fees

Student loans

Exams and tests

STI test

Testing my patience

Patient killed by nurse

Ebola

Pimples

Pop-ups

New message

Swipe right

Nothing left

Warning

Exclusion

Absent

Nothing

Nothing

Nothing

You're nothing

부숴지는 마음 방망이질하는 마음 십대 소년이 길거리에서 방망이질을 당하고 세상 물정에 스마트하게 밝은 놈 스마트 폰 폰 전화 사기

사기치는 이민자들

저들 나라로 보내

공유지의 무단 거주자들

거주 주택 가격

빚

상환

근로 소득세액 신용감면

신용 카드

무이자

이자가 안 붙어 관심무

세금 감면택시

택시 기사가 소녀를 살해하다

착취당하는 소녀

폭발

핵폭탄

핵폭탄급 새 옷

새로운 질문

틀린 답변

학생 회비

학자금 대출

시험과 검사

성병 감염 검사

나의 인내력 검사하기

간호사에게 살해된 환자

이볼라

여드름

팝업 상점

새 메시지가 팝업 창에

쓱 카드로 긁어

싹 없어짐

경고

왕따

부재

없음

없음

없음

너의 존재는 없음이야

(The following is what occurs concurrently with the above.)

다음 장면은 위 장면과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지영: 아무 것도 지워지지 않았어...

아파트가 흔들리는 걸 느끼며, 나는 간신히 밖으로 걸어 나온다.

세 살배기 꼬마가 엄마를 찾아 걸어 나온다.

Jiyong: Nothing has been deleted...

Feeling the apartment shaken, I barely walk outside.

Three year old walks outside the house to find her mom.

할머니: 지영아, 이레 오라. 아멩 가도 어멍 못 찾아.

Grandma: Jiyong, Come here. Ameng no matter how far you go you cannot find your mom.

아빠 : 부지영! 너 한번만 더 엄마 찾으면서 징징대면 진짜 가만 안 뒤. 할머니도 절대 엄마 얘기 꺼내지 마세요.

Dad: Jiyong Bu, I will spank you hard if you cry for your mom one more time. Grandma you must not talk about her either.

할머니: 지영아, 혼자 오라, 지영아…

Grandma: Jiyong, Honjea hurry to come here. Jiyong...

(지영, 사라진다.)

(Jiyong, disappears.)

(And we're suddenly in the next day, on the bus.)

Boy: Pop

Spray

Thud

Bus trucks along

Where's your girlfriend?

Arthur

Lasers, guns

Warning

A Little trouble in psycho paradise?

Bash, thud, pop

And the boy feels…

Arthur is lying on the floor, bleeding from his nose

Arm over his ribs

The boy's hand covered in sweat and blood

His shoe on Arthur's stomach

And the boy feels...

Like blood emptying from veins

Like jumping freefall

Like going underwater

He feels…released.

(All the words that have been projected disappear. There is calm.)

소년: 평 스프레이

쾃

버스가 털털털 지나간다 네 여자 친구 어딨냐?

아더

레이저총, 권총

경고

정신병자의 낙원에 문제 생겼어?

강타, 쿵, 펑

그리고 소년이 느낀 것은…

아더는 바닥에 벌러덩 누어있다, 코피를 흘리면서

팔은 갈비뼈 위에 늘어져있고

소년의 손은 땀과 피로 범벅

신발 한 짝은 아더의 배 위에

그리고 소년이 느낀 것은…

피가 정맥에서 빠져 나가는 것 같은

자유 낙하로 뛰어 내리는 것 같은

잠수하는 것 같은

느낀 것은...해방감.

(And now the boy is back on the roof.)

Boy: Okay.

소년: 오케이.

Girl: Okay what?

소녀: 오케이 뭐?

Boy: Look, let's not…

소년: 야아, 그러지 말고…

Girl: I'm sorry.

For.

소녀: 미안하지만.

무슨 뜻.

Boy: I know.

Okay?

소년: 알아.

오케이?

Girl: Okay.

소녀: 오케이.

Boy: And I'm. I'm saying. I'm saying okay to.

소년: 내 말은. 내 말은. 내 말은 그게 오케이라고.

Girl: To what?

소녀: 뭐가?

Boy: Let's disappear. Together.

소년: 사라지자. 함께.

Girl: You mean that?

소녀: 정말?

(He takes her hand.)

(소년은 소녀의 손을 쥔다.)

Boy: No one understands us here.

Where will we go?

Cos we should go like, now. Or tomorrow. But like soon cos…

We need to get tickets and pack or...

소년: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어디로 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떠나야 하거든. 아님 내일. 어쨋든 곧 왜냐면…

티켓도 사고 짐도 꾸리고 안 그럼…

Girl: We don't need tickets.

소녀: 티켓은 필요없어.

Boy: What do you mean?

소년: 무슨 뜻이야?

Girl: You know what I mean.

소녀: 너도 알잖아.

Beat.

둥둥.

Girl: There's nowhere for us.

Not really.

We can be properly free from all this.

You said it yourself, no one understands us here.

(She takes his hand. Brings him to the edge with her.)

Think of all the shit we won't have to endure anymore.

소녀: 갈 곳이 없어 우리에겐.

딱히.

이 모든 것에서 제대로 자유로와질 수 있긴 하지.

네 입으로 말했잖아,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녀는 소년의 손을 쥔다. 소년을 난간 끝으로 데리고 간다.)

생각해봐 허접한 것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I know it's what's been underneath us all along, beneath all our conversations, our first kiss. It was always coming to this.

I know you know that.

난 알아 이 결말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어, 우리의 모든 대화와 첫키스와 함께 수순을 밟는 거지. 난 알아 너도 그걸 안다는 걸.

(Long pause.)

(긴 멈춤.)

Tomorrow.

You and me.

내일.

너랑 나랑.

지영, 악몽 속을 헤매는 듯 가까스로 걸음을 내딛는다.

문득, 아랫배에 통증을 느낀다. 배를 꾹꾹 누르며 웅크려 앉는다. 아파트를 올려다본다.

Jiyong looks up at the apartment but the effect is she's looking up at the Boy and Girl on the roof.

Jiyong, barely manages to walk as if lost in a nightmare.

Suddenly feels the pain in her lower belly. Pushes it hard and sits curling up. Looks up the apartment.

지영 아파트 위를 쳐다보지만 장면 효과적으로는 지붕 위 소년과 소녀를 쳐다보는 것이다.

지영: 다시, 혼란 속으로 떨어져버렸다.

개미들이 이겼다...

개미떼에 밀려 모두 뿔뿔이...

Ants won…

Defeated people were dispersed by the swarm of ants...

아파트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Jiyong: Again, fell into confusions.

I wish the apartment vanished in the air...

I wish I were never born...

I wish I could die…

(The light on Boy and Girl above fades so we can't see them anymore.)

(위 소년과 소녀를 비추는 조명이 꺼져서 두 사람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지영: 갑자기 나무에 떨어지는 검은 그림자.

뭐지?

(천천히 다가간다.)

나무가 심하게 떨린다.

커다란 새?

In no time dark shadow falls to the tree.

What is it?

(Slowly approaches)

That tree trembles terribly.

A big bird?

지영: 타다다 두두두

파도처럼 덮치는 발소리.

나를 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이쪽이다!

다 사라져버려... 다...

자궁, 화장대, 가족...

고함, 비명, 전화벨, 응급차, 싸이렌...

사라져, 제발...

대체 니들이 노리는 먹이는...

(주민들) 1603 호래. / 1603 호가?

1603 호?!

Jiyong: Tadada Dududu

A Wave of footsteps envelops.

Over-riding me, trampling me, ignoring me, here it is!

Go away all··· everything···

Womb, vanity, family...

Yelling, screaming, a phone ringing, an ambulance, siren...

Go away, please...

What on earth do you try to prey on...

(Apartment Residents) It is 1603./ Is it 1603?

1603?!

(사람들이 몰려온다.)

People pour in.

(지영, 벌떡 일어선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사고 현장 모습에 숨이 막힌다.)

지영: 그, 남, 자? 나뭇가지에... 걸린 게? 저 끔찍하게 뒤틀린... 몸뚱이가? (숨을 쉬어보려고 애쓰지만 잘 안된다.) 호... 호... 숨비소리를... 할머니...

(Jiyong, gets up with a jump. Slipping through the residents, she approaches to the site where the man is. Feels choked by the accident scene.)

Jiyong: Tha, t, man? Hung… in the tree branches? That terribly distorted… body? (Tries to breathe but no avail.) Hoy… hoy… a Jeju woman diver's breath… Grandma…

주민 1: 그 집이라며? 우리 동 폭탄. 또 부자지간에 터진 거야?

Resident 1: It' them? A time bomb in our complex. The same old father—son war?

지영: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팔다리…?

(멈춘다.)

Jiyong: Are those arms and legs in the tree branches…?

(Stops.)

주민 2 : 아니. 집엔 혼자 있었대. 근데 15층 아저씨가 거기 있었나 봐. 막 소리자르고 난라 파웠다던데?

Resident 2: No, He was said to be all by himself at home. But the guy from the 15th floor seemed to be there. They yelled at each other and made a scene?

지영: 1603 호?

Jiyong:

구급대원들이 안전봉으로 사람들을 제지한다.

The paramedics prevent people from approaching with the club.

주민 1: 어머 어머 집에 <mark>혼자 있었대</mark>? 그럼, 15층 아저씨 땜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거야?

Resident 1: What the hell. Was he home alone? Then 15th floor guy caused him to jump off the veranda?

주민 2: (진저리를 치며) 아파트값 떨어질까 걱정이네.

Resident 2: I am worried it might affect the apartment price.

지영 : 쿵... 쿵... 무거운 건 다 바닥으로 쿵... 그 끝에 남은 건... 우리를 배반한 몸뚱이... 사라지지 않는 몸뚱이... (구급차 떠나는 소리) Jiyong: Thud… Thud... Every heavy object falls to the floor with a thud… And the thing left after that is... Our body that betrays us... Our body that never disappears… (Pause) 남자의 숨통을 옥죄는 신음소리... (떨면서) 사라지고 싶었을까. 나처럼. 하지만, 몸뚱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 눈 앞에, 그대로… 끔찍하게 뒤틀린 몸뚱이, 축 늘어진 팔다리, 고통스런 얼굴… 175

남자도 알고 있을까.

우리를 배반한 몸뚱이를…

죽음으로도 지울 수 없는 몸뚱이를…

세상은 눈 꿈쩍도 안하는 몸뚱이를...

Jiyong: The sound of his moaning by constricting the windpipe...

(Shivers) Did he want to disappear. Like me.

But, his body did not disappear.

Here, in front of my eyes, still here...

Awfully distorted body, droopy arms and legs, suffering face...

Does he also know.

That body betraying us...

That body not being able to delete it even with death...

That body not being able to make the world flinch at it...

지영,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끼내 든다.

뭘 눌러야 할지 잠시 망설인다.

멀리서 119 싸이렌 소리가 들린다.

Jiyong, her quivering hand takes out her cell phone.

Hesitates for a while where to call.

From afar 119 siren is heard.

지영: (한숨을 내쉬며) 그래, 아파트니까.

누가 이미 신고한 거야. 다행이야. (사이) 다행일까? 살아있는 개? 나는? 아빠는? 저 남자는? Jiyong: (Sighs with relief) Of course, It's an apartment. Somebody already reported. It's good. (Pause) Jiyong: Is it good? To be alive? What about me? What about dad?

Boy: And the boy goes home.

Not on the bus obviously.

He walks, he runs.

He doesn't go to Raj's.

소년: 그리고 소년은 집으로 간다. 버스를 안 탄 것은 분명하고. 소년은 걷는다, 달린다. 소년은 라지네 가게로 가지 않는다.

The phone is ringing and he knows it's the school.

Or the police.

(The phone rings and rings as the boy grabs pen & paper. The ringing becomes so frustrating that the boy pulls the phone cord form the wall, silencing the ringing.)

He doesn't answer it.

He lets it ring

And ring

He grabs a pen

And ring

And paper

And ring

He doesn't know how to begin

He pulls the phone cord from the wall.

He just holds the pen

He thinks of those English classes

When they had to practice letter writing

To Whom It May Concern

Kind regards

Dear

It always helps to start with Dear

He writes Dear

He's never written a letter like this before

He holds his hand with the other hand to steady it.

And he writes

And he writes

Like it is the last letter of his life.

전화가 울리고 소년은 그것이 학교에서 온 것임을 안다. 아님 경찰서.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울리도록 내버려 둔다 울리도록 소년은 펜을 집어 든다 그리고 울리도록 그리고 편지지를 그리고 울리도록 소년은 어떻게 첫머리를 시작할지 모른다 소년은 벽에서 전화기 코드를 뽑는다. 펜을 그냥 쥐고만 있다 소년은 영어 시간들을 떠올린다 편지 쓰기를 연습 했었는데 관계자 분께 두루 평안하시기를 "친애하는" 언제나 "친애하는" 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년은 "친애하는" 이라고 적는다 한 번도 이런 편지는 써본 적이 없다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게 다른 한 손으로 꽉 쥔다. 그리고 적는다 그리고 적는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라도 되는 것처럼.

(Pause. He goes to sign the letter.)

(멈춤. 편지에 서명을 한다.)

아빠, 비틀거리며 지영에게 다가온다. Dad, approaches Jiyong staggering.

아빠 : (떨면서) 지영아… 알지? 난… 그저… 난 진짜… 별 말 안 했어. 저 놈이 작정하고... 뛰어내린 거야. 난 진짜… 별 말 안 했어… 별 말 안 했는데… 저 놈이… 괜찮겠지? 응? 응? 뭐라고 말 좀 해봐.

Dad: (Quivers) Jiyong… You know that? I… just… I actually… didn't say much. That jerk was determined to jump. I actually… didn't say much… didn't say much… That jerk… he will be okay? right? Say something anything.

Boy: Kind regards.

Sincerely.

Love.

William.

소년: 두루 평안하세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윌리엄.

지영: 나는 처음으로 아빠 눈을 오래오래 쳐다본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만이 갖는 초점 없는 눈빛… 씨발.

그 남잔 단지 계기가 필요했던 거야...

이제 내가 알던 아빠는 없다.

내가 꿈꾸던 은정 씨도 없다.

내가 기억하는 남자도, 할머니도, 나도,

산산이 부서져, 바람에 흩어져

빙...빙...

한자락 기억때문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빙...빙...

구급차가 그 남자 몸뚱이를 실어가고 경찰차가 아빠 몸뚱이를 실으려고 다가온다.

Jiyong: For the first time I look at dad's eyes for very long. Those glassy eyes only the loneliest person in the world has... Fuck.

That man just needed a catalyst to act···

There is no more my dad that I used to know about.

There is no more Eunjung that I used to dream about.

The man I remembered, Grandma, and me,

All shattered in pieces, scattered in the wind

Swirling... and swirling...

All those that I have been holding on to for the memory of it Swirling… and swirling…

The ambulance carries that man's body away

The police car comes near to carry dad's body away.

경찰이 아빠에게 다가온다. 아빠, 순순히 끌려간다.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자꾸 지영을 돌아본다. 지영, 이 낯선 상황이 혼란스럽다. 얼어붙은 듯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아빠, 떠나간다.

Police approaches my dad. Dad surrenders without resistence. He keeps looking back at Jiyong as if crying for help. Jiyong gets confused with this unfamiliar situation. She cannot try anything as if frozen. Dad is taken to.

Boy: The door opens and he knows his mother will yell at him for yesterday.

He knows that she'll -

But she just hands him a box of cocopops.

소년: 문이 열리고 소년은 엄마가 어제 일로 큰 소리를 낼 것을 안다.

소년은 엄마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안다 -

그런데 엄마는 그냥 코코팝 시리얼 한 상자를 건네고 만다.

(Mum) I saw that you were out of them.

다 떨어졌더구나.

And she smiles.

그리고 엄마는 미소짓는다.

(Mum) What is it?

뭐야?

Boy: And he hands her the note he has written.

소년: 그리고 소년은 엄마에게 자기가 적은 쪽지를 건넨다.

아빠 : 괜찮겠지? 응? 응?

Dad: He will be okay? Right? Right?

지영 : 남자 몸뚱이가 떠났는데도 나무들은 여전히 떨고 있다.

이파리도, 줄기도, 뿌리도,

경비실도, 가로등도, 엘리베이터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백하다.

Jiyong: Long after his body was carried away the trees are still trembling.

And leaves, and stems, and roots,

And a guardsman's room, and a street lamp, and an elevator.

Everything in the apartment complex turns pale.

Boy: And he sobs.

소년: 그리고 소년은 흐느낀다.

지영: 이게 다 보도블록 때문이야.

나는 두 손으로 거침 없이 보도블록을 걷어내기 시작한다.

Jiyong: These blocks of pavement are to blame.

I start to remove the blocks with my two hands without a second thought.

Boy: He sobs deep into her breast like he did when they moved here.

소년: 엄마의 가슴 깊숙이 파묻혀 흐느낀다 이곳으로 이주해 올 때 그랬던 것처럼.

(지영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말들이 울려퍼진다. 지영, 그것들을 펼쳐내려는 듯 거의 동시에 외친다.)

(The words remained alive in her memory echo. Jiyong, shouts as if to shake them off almost at the same time.)

할머니: 진짜 몰란? 어멍인디…

Grandma: Really didn't you recognize her? How come, she's your mom…

지영: 뿌리를 감추고 있는 보도블록을

Jiyong: The blocks that hide the roots

Boy: Like he did when his dad left.

소년: 아빠가 떠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빠 : 괜찮겠지? 응? 응?

Dad: He will be okay? Right? Right?

지영: 흙을 감추고 있는 보도블록을

Jiyong: The blocks that hide the earth

Boy: Like he did when he fell off his bike.

소년: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남자 : 사라지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다른 세계를 맛본 거죠... 지금처럼...

Man: That to disappear… what does it feel like? It was just like tasting the different world… like this moment…

지영: 풀을 감추고 있는 보도블록을

Jiyong: The blocks that hide grass

Boy: He cries for the refugees and the cancers and the animals in the cages and the tsunamis and the planes falling out of skies.

소년: 그는 난민들과 암과 축사에 갇힌 동물들과 쓰나미와 하늘에서 추락한 비행기들 때문에 운다.

할머니: 너무 오래 묻어두민 얼룩이 굳어분다.

Grandma: If you keep it there too long the stain won't come out.

지영: 숨통을 막고 있는 보도블록을

Jiyong: The blocks that stomps on the breath

Boy: He cries for the polar bears and the young men and women losing their legs in the army. He cries for frienships gone. He cries for Raj and the man he tries so hard to be.

소년: 북극 곰과 군대에서 다리를 잃은 젊은 남녀들 때문에 운다.

아빠 : 난 다 잊었어! 같이 사는 난, 도대체 너한테 뭐냐고?

Dad: I've forgotten completely! I live with you, and what am I to you?

지영: 15 년 세월을 기슬리 올라 보도블록들을 다 걷어내버려! (웅얼거리며) 엄, 마... (울먹인다) 엄마! 엄마아!

Jiyong: Trace 15 years back and remove all the blocks! (Mumbling) Mmmm, om··· (is about to cry) Mom! Mom!

Boy: He holds on to his mother so he won't sink.

And he cries for the Girl.

소년: 가라앉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매달린다. 그리고 소녀때문에 운다.

지영: 왈칵 쏟아져 나오는 생리.

'엄마'라는 금기어에서 풀려난 순간, 마침내 자궁은 자유로워진다.

어제 아파트 단지는 원래대로 숲이 된다.

원래대로 바다가 된다.

Jiyong: Menses gushing out.

The moment it is released from a taboo word list, uterus becomes free.

Now apartment complex returns to its primordial forest.

Returns to its primordial ocean.

할머니 물질 노래소리가 허밍으로 울려 퍼진다. 지영, 몸을 웅크린다. 자궁 속 태아처럼.

Boy opens the letter he's written, begins to read. Grandma continues singing underneath the reading of the letter.

Grandma's Jeju diving song is humming and echoing. Jiyong, curls up her body. Like a fetus in the uterus.

소년 자기가 쓴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한다. 할머니의 허밍이 소년의 편지 낭독 아래로 깔린다.

Boy: Dear Mrs Jeffreys.

You don't know me. But I'm friends with your daughter.

Well maybe more than friends. Or perhaps after this not anything at all.

But I need to tell you...

That I fear for the life of your daughter.

I fear she's going to…

소년: 친애하는 제프리스 부인께,

저를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의 따님 제니퍼양의 친구예요.

어쩜 친구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 편지 이후로는 아무 관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따님의 목숨이 달렸거든요.

걱정입니다 따님이 혹시라도…

(The lights come up on a hospital bed with the Girl in it. The Boy is in the same room as her.

It becomes clear now that the whole time he has been telling this story to the girl.

The girl is in the same position as Jiyong curled up.)

(소녀가 누워있는 병원 침대에 조명이 들어온다. 소년은 소녀와 같은 병실에 있다. 쭉 소년이 이 이야기를 소녀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진다. 소녀 지영이 그랬던 것처럼 몸을 응그리고 있다.)

Boy: Love William.

소년: 사랑으로 윌리엄.

아빠: 뭐라고 말 좀 해 봐.

Dad: Say something anything.

지영: (응얼거리는 소리로) 엄. 마…

Jiyong: (With a mumbling voice) Mmmm, om...

아빠 : 어?

Dad: What?

지영 : 엄, 마···

(울먹이며) 엄마아! 엄마아!

Jiyong: Mmmm, om...

(On the verge of tears) Mom! Mom!

아빠: (고개를 떨구며) 지영아…

Dad: (Drops his head) Jiyong...

경찰차 싸이레 소리.

아빠,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다.

Sound of police car siren.

Dad, is carried away in the police car.

지영: 왈칵 쏟아져 나오는 생리.

금기어에서 풀려난 순간, 마침내 자궁은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그렇게 준비했건만, 팬티에, 다시, 얼룩이 생긴다.

어차파… 그런 거였다.

얼룩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개 아니었다.

철저히 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Jiyong: Menses gushing out.

The moment it is released from a taboo word list, uterus becomes free.

Though having prepared for so long, on the panties, again, I left the stain.

No matter what… that's the way it goes.

Stain was not something that would disappear by hiding.

It's not something that we could prevent by preparing thoroughly.

For the first time in the play the Boy speaks in the first person...

Boy: And he gave the letter to the girl's mother, and then he - I.

I gave it to her mother and I···I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next.

But I think her mother saw her.

Really saw her.

And maybe, I hope, that meant that the girl really saw herself.

Jennifer.

And maybe that's enough. To start.

Maybe he caught her just in time. Like he did that first time they went up to the roof.

Just like she knew he would.

(He begins packing things into a backpack.)

Her mum text. She's in hospital. Getting help. So I'm going to bring her some essentials.

(He packs some cocopops. Smiles.

He packs a stuffed animal that is a polar bear. Gives it a kiss on the nose or a squeeze – it's not scary at all)

And this. (It's a broken frame with a photo of a Chihuahua)

I stole it once from some lady's house after I broke the frame.

(He zips it into his bag.)

And maybe some silly photo of dog is enough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He puts on his tie like he did early in the play. He looks in the mirror. And this time he really sees himself. And he's okay with it. He pauses.)

Maybe it can make everything just a bit better.

He leaves the mirror, picks up his bag.

And he goes to the house and rings the bell and gives the letter to the girl's mother.

소년: 그리고 그는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건넨다.

And he does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next.

But he imagines that her mother saw her.

Really saw her.

And maybe that meant that the girl actually saw herself.

Alexis.

Saw herself the way the boy sees her.

And maybe that's enough. To start.

Maybe he caught her just in time.

Like she knew he would.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확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소년은 소녀의 엄마가 소녀를 봤을 거라 상상한다.

소녀의 진짜 모습을 봤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은 소녀가 사실 소녀 자신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알렉시스.

소년이 소녀를 보는 방식으로 소녀 자신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거면 충분할 것이다. 시작이니까.

아마도 소년이 소녀를 적시에 발견했을 것이다.

소년이 그럴 것임을 소녀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Girl: You forgot a part.

소녀: 빼먹은 부분이 있더라.

Boy: Did I?

소년: 그랬어?

Girl: That the food was terrible in the place they took the girl.

And they did not understand vegetarian there.

소녀: 그들이 소녀를 대려간 병원의 음식은 최악이었다. 그들은 채식주의를 모른다.

(He pulls out cocopops)

(소년 코코팝 시리얼을 꺼낸다)

Boy: But the boy brought her chocolatey cereal.

소년: 그러나 소년은 소녀에게 초코렛맛 시리얼을 가져왔다.

(He pulls out a picture of a dog in a frame with no glass.)

(그는 유리 없는 액자에 넣은 강아지 그림을 꺼낸다.)

And he brought her a picture of a dog that he'd once stolen from some lady's house after he broke the frame. It's a Chihuahua with it's tongue sticking out.

And that made the world a better place.

It made everything just a bit better.

그리고 어느 부인의 집에서 액자를 깨뜨린 후 훔친 강아지 그림을 소녀에게 가져왔다. 혀를 내민 치화화 강아지 액자다.

그리고 그 행위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 행위가 모든 것을 조금은 더 낫게 만들었다.

지영, 일어선다. 아파트를 올려다본다.

Jiyong, raises up her body. Looks up at the apartment.

지영: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얼룩이 더 번지기 전에…

Jiyong: I need to go. Home where my grandma awaits me···
Before stain smears too much...

Jiyong rises and head's home. The boy is en route to the hospital. The pass each other, look at one another as they pass. And then they keep on walking, with a subtle stride to their walk. (End.)

